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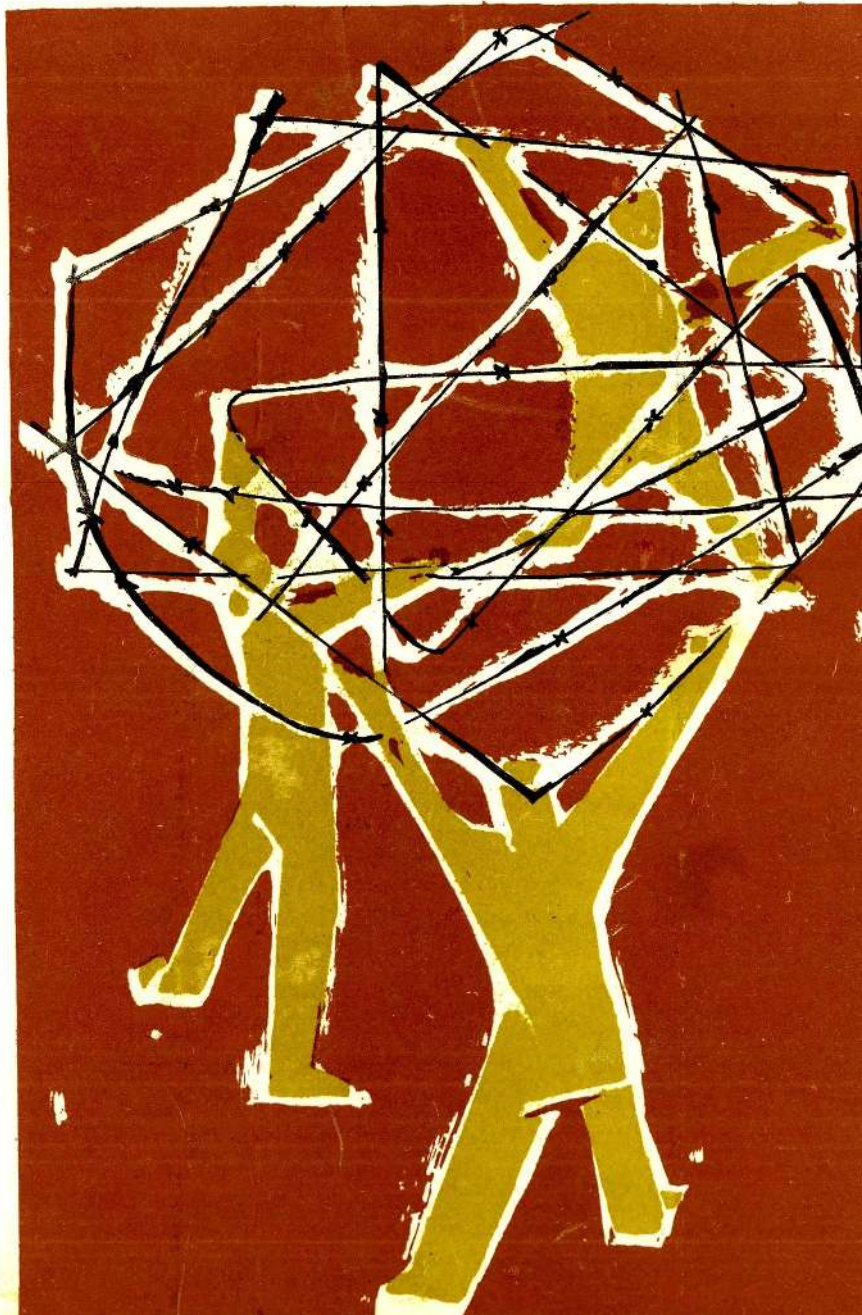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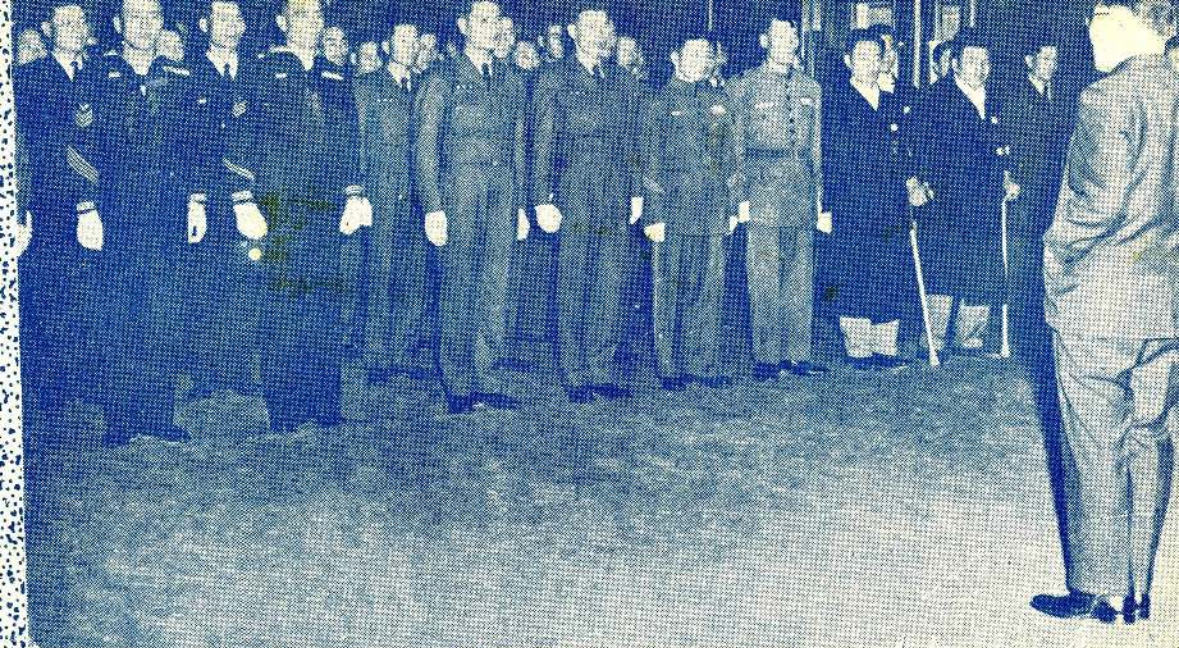
6

바른 생각은 곧 「힘」이다
再建 座右銘 七章

設問

나는 이렇게 實踐했다





靑瓦臺에서 尹大統領의 致辭를 듣고 있는 三軍模範勇士들.

(下) 慶祝分列式典에서 사열대앞을 行進하고 있는 空士生徒들.

空中展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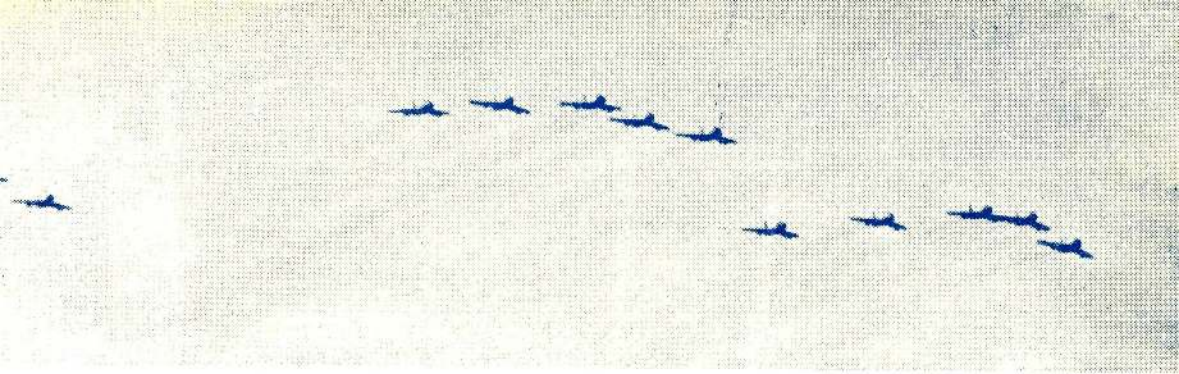
建軍 13 週年

國軍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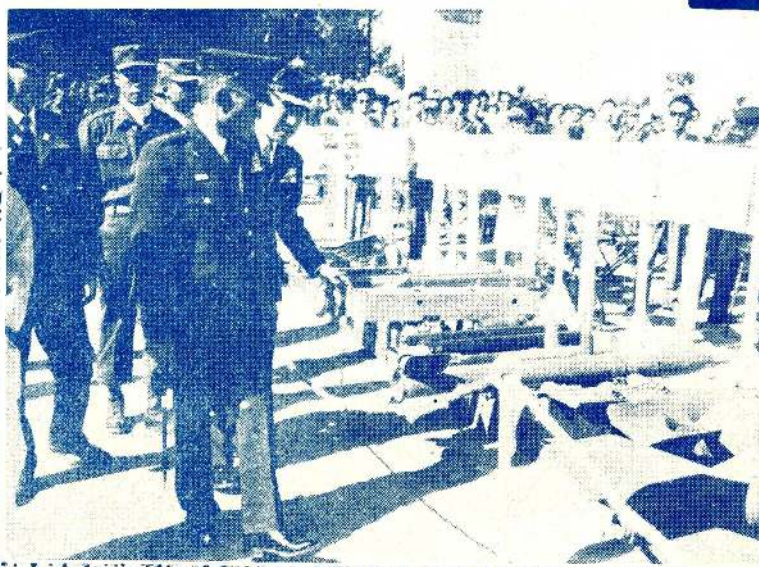
建軍 13週年 國軍의 날을 記念하는
空中展示가 30萬 市民의 눈과 全國
民의 귀를 모은 가운데 지난 10月
2日 漢江 白沙場 上空에서 盛大히
열렸다.

實戰을 방불케 하는 對地攻擊 示範.





C-46 機斗編隊飛行。



會場入口에 展示된 各種武器를 觀
람한 朴議長。

漢江白沙場에 떨어진 낙산군
만은 空挺投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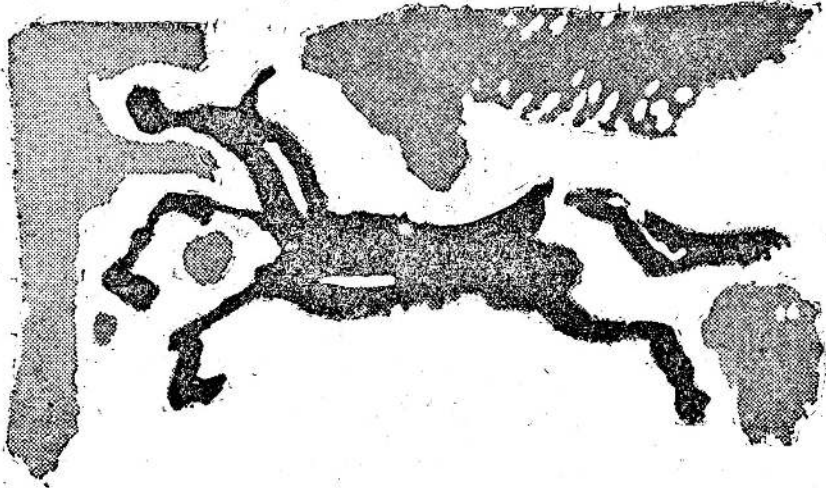
飛行雲도 아름



F 86 F 제트戰闘機의 나이아몬드 緞家飛行.

數千萬觀衆의 손에 涙을 쥐게한
水上救助示範.





表紙.....國民의 團結·建設·
克難精神을 表現
〈閔 哲 泓〉

〈目 次〉

★ 國報 國軍의 날 空中展示

바른 것은 곧 힘이다..... 成仁基 (二)

再建座右銘 七章..... 朱允鎬 (五)

먼저 알아야 할 것..... 趙豐衍 (八)

軍人の 敎養과 人品..... 洪鍾仁 (一〇)

앙케이트 나는 어떻게 實踐했다..... (六)

空軍家族에게 特殊한 氣質理解하기를..... 鄭忠良 (一)

드리는 글 언니에게 부치는 편지..... 鄭珍九 (五)

江華要塞 30年의 抵抗..... 趙雪嶺 (四)

防空救國三個月..... (一)..... 外誌에서 (三)

앙케이트 최근에 읽은 感銘깊은 책..... (四)

解 說 時事 韓日會談의 어제와 오늘..... (五)

科學 美國의 로버트 衛星..... (四)

미사일의 歷史 ④..... (三)

軍人과 信仰..... 林東善 (三)

際厚娘과 白雲郎..... 김일순 (四)

그랜드·캐논 (世界의 驚異)..... 하리바른 (六)

名畫案內·旋風을 일으킨 嫉妬..... 유기영 (四)

世界新聞 瑞典篇..... 金基漸 (三)

★ 三強五輪..... 姜小泉 (三)

★ 俗談春秋..... 孤客子 (元)

필 落葉 읽은 街路樹..... 全光鏞 (三)

스튜디오의 思想..... 李賢淑 (三)

하늘을 달리는 그리움..... 朴賢緒 (四)

詩 太白峻嶺..... 李仁石 (六)

讚 歌..... 李興雨 (三)

說 푸른 하늘 처럼..... 俞湖 (五)

小 抗拒하는 사람들..... 朴贊興 (七)



바른 생각은 곧 「힘」이다

成 仁 基

위인(偉人)이나 열사(烈士)의 전기(傳記) 또는 자서전(自叙傳)을 읽을 때 제일 감명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지력이 굳세고 실천력과 희생정신이 강함 그것이다. 그들이 바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온갖 고초를 참아가면서 실천해 간 용기에 저절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인과 열사는 거의 예외없이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목숨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또한 바쳐왔다. 생을 좋아하고 사(死)를 싫어하며 위험한 것을 피하려 함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이들 위인 열사들은 어찌서 그들의 몸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하고자 한 일을 용감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정의감(正義感)에서 솟아오르는 용기요 「힘」 때문임 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몇가지 실패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구한구말에 하르빈(哈爾濱)역두에서 일본

의 이동박문(伊藤博文)을 쏘아 넘어뜨린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의 의거를 생각해보자. 「이등」을 없애야만 당시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국난을 건질 수 있으리라는 굳은 신념에서 그는 「이등」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그때 안의사는 국가의 위기와 민족의 예측화를 막기위해서 「이등」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에서 자기의 한몸을 가볍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아(小我)를 버려서 대아(大我)를 살리려는 희생정신이 안의사로 하여금 의거를 집행할 큰 용기를 갖게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때에 어린몸으로 항일투쟁의 선두에서 서서 독립탄세를 부르르고 격문을 돌리고 하다가 일제의 앞잡이 현병에게 붙잡혀 팔골내 사살을 불지않고 항거하다가 고문에 의해 쓰러진 유관순(柳寬順)소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가 독립자라는 것은 천리(天理)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에게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천만번 당연한 일이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거족적인 독

립운동에 참가한 것인데 왜 일제현병은 괴롭게 고문하느냐. 배후나 동료들 현병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차라리 한몸을 희생함이 정의요, 대의(大義)다. 라는 굳은 신념에서 팔골내 항거할 용기가 솟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성삼문(成三問), 박평년(朴彭年), 이개(李愷), 유성원(柳誠源), 유응부(俞應孚), 하위지(河緯地) 등 사육신(死六臣)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문종(文宗)의 유족을 받아 단종(端宗)을 보필해 오던 터이므로 세조(世祖)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것은 찬탈(篡奪)로서 불의(不義)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물러나간 단종을 복위(復位)시키기는 것만이 정의요 충(忠)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단종복위의 기회를 엿보고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조에게 가담하면 중용될 것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끝끝내 절개를 지켜서 세조의 탈람도 위협도 거역하고 참혹한 형벌을 당하였던 것이

다. 또한 그들은 자기 한 몸 뿐만 아니라

족이다. 범문의 환을 당함을 모른바도 아니

었다. 아무리 그런 큰 화를 당한다 하더라도

대의를 버리고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다

는 신념 밑에 그들의 충과 의를 깨우지 않려

운 것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忠臣不事二君)는 신념 밑에 살고 죽었다는

것은 『임금의 밥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었

으니 평생에 깨우친 뜻이 그릇되지 않기를

원한다(食君之食衣君衣, 素志平生莫願違)

는 성삼문이 남긴 시(詩句)를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별장계 불에 달군

쇠팔로 단근질을 당하면서 『묵숨은 빼앗

을 수 있어도 마음은 빼앗을 수 없』이라고

저항하는 그들 사육신의 태연차악한 태도에

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한 손에 쥔

세조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한다면 정의, 대의 태

신의 부(富)나, 귀(貴)나와를 바꿀 수 없다

는 공은 신념이 결국 사육신의 이름을 천후

에 남기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17세기

초엽의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 갈

릴레오의 예기는 재미스러운 한 예다.

그는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하여 천

체(天體)를 관측한 결과 『지구는 태양의 둘

레를 돌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지명명을 받았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천문대화(天文對話)

라는 책을 발간하여 자기의 의견을 밝힌 때

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그는 다시는 그

학설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더러 그는 항상 감시인의 감시

를 받는 유폐(幽閉)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그

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은 원

코로 정리해서 몰래 『폴렌드』에서 『신과학

대화(新科學對話)』라는 책을 발간하였었다.

그는 종교의 압력으로 부득이 자기의 주

장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용서를 받았

으나 그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직』이고 있는 것은 지구이고 태양은 아닌

것으로 믿는다』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것

이다.

『갈릴레이』가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자

기나라에서는 일반에게 퍼놓고 주장하지는

못했으나 외국에서 몰래 저서를 발간한 것

은 자기의 학설이 바르다는 것을 확실한 나

머지 회색을 각오하고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종교만능시대에는 법왕의 금

지명령을 받고도 저서를 낼 수 있는 그 용기

역시 자기 학설이 바른 것이라는 신념이 없

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는 것으로 쉽사리 추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맹자(孟子)가 고자장구상편

(告子章句上篇)에서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자

하는 것이요, 의(義)도 내가 지니고 자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함께 결해서 얻을 수

없어서 어떤 것이요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경

우에는 생명보다도 의가 더 중하므로 생명

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생명도 역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마는 생명보다도 더 소

중한 것이 있다(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죽는 것 역시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죽는 것 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불의

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서는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것

을 피하여 생명을 아끼려고는 하지 않는다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

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

於死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

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고 논한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생각이 정의감이란 어떤 것인가

를 잠깐 살펴보자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며 정의감이나 이것은

간단히 말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맹자는 맹자이루장구상편(離屢章句上)에

서 『인(仁)은 사람이 사는 원한 집과 같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살기 좋은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고, 골은 길은 버리고 다니지 않는다. 실로 애달픈 일이다(仁人之安宅也。義人之正路也。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哀哉。)"라고 하여 의를 사랑이 다니는 골은 길, 바른 길에 비유하였다.

지금도 옛날 맹자가 비유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 설명해서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회(社會)의 한 구성분자(構成分子)로서 사람다운 사람의 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의라고 할진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잘지에 반드시 걸어야 할 골은 한길과 같다고 한 것은 참으로 잘된 설명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은 정의는 재관성을 떠나야 하고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바로고 저것은 바로지 않다는지, 이것은 좋고 그것은 나쁘다는지, 그것은 선(善)하고 이것은 악(惡)하다는지, 이것은 옳고 그것은 그르다는지 하는 분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개의 주관적 판단은 판단력의 척도(尺度)에 따라 구구해서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을 때에는 그것이 옳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여러 말 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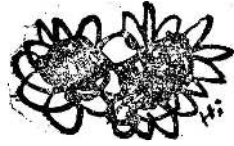
반드시 객관적이어서 비토소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약간 변해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예해방전쟁이 있던 후까지에도 노예(奴隸)는 주인의 산 도구(道具)라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양 생각 되어있었다. 19세기기에 이르러서는 인류평등이라는 관념이 높아짐에 따라 불의로 지탄받게 되었으며 봉건제도하에서는 계급의 차별이 사회정의의 같이 인정 되었으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계급차별은 불의중에서도 불의로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들을 생각할 때 곧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천성이 선하다는 설과 악하다는 설이 옛부터 있으나 성선설이 보다 우세하고 또 그 설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한 것을 해서 지탄을 받고 또는 법에 걸리어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는 자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도 사육에 양심이 호려져서 그런 불의한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불의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자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한 것을 하는 인간은 개, 비둘기하고 또 뱀구멍을 찾고 짐을 먹어 당황당패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정의의 버리고 불의한 것을 하는 것은 지나친 몰욕, 금전욕, 권력욕 같은 욕심 때문이다. 남을 해치더라도 다만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불의의 돈과 뇌물을 받게 되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며 남을 내쫓고 제가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모략,

중상, 음모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른생각이 마땅히 말해서 정의에 맞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나침 사로운 욕심만 버리면 되는 것이다. 소아를 위하는 욕심만 제어할 수 있다면 저마다 위인열사는 못 될망정 그 사회에서 정의물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함께 즐기고 함께 고생할 각오만 한다면 저절로 바른생각이 들고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윌슨에 九十세나 된 '버틀랜드' '릿셀' (정) (卿)은 六十세인 그의 부인 '에디스' '핀질' '릿셀' (여사)와 함께 핵(核) 실험 반대운동을 선동한 죄로 7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九십이 나 된 노인이 자기가 더 오래 살겠다고 핵실험 반대운동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를 위해 핵실험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서 노구를 이끌고 반대운동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영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어 7일 동안 구류처분을 받았지만는 번영과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류는 그를 위대한 선각자로서 존경할 일이 아닐 것인가. 위에서 바른생각이란 정의의 감은 '힘'이라는 것을 보아 왔다. 우리나라는 힘과 용기가 어느 때 보라도 결실하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국민은 다 함께 바른생각을 하고 용바른 일을 힘차게 실천함으로써 당면한 혁명과업을 달성해야 할 이때다. 국토방위, 혁명파업완수, 승공통일의 중책을 두 어깨에 걸머진 국군장병에 있어서라. 바른생각은 곧 '힘'임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筆者·韓國日報社 副社長)



再

建

座

右

銘

七

章

朱 允 鎬

五·一六革命이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國家再建과 新秩序의 確立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음은 勿論이고 그것은 又 政治、經濟、社會、文化 및 教育의 全分野에 亘하여 舊秩序로부터 새로운 體制로의 轉換을 期하려는 데 있다 竊도 再三 贅言을 要치 않 는 바이다.

새삼스럽게 되풀이 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가 八·一五解放後 十有餘年 동안 極度の 腐敗와 無能을 일삼어 온 結果 國民經濟는 破綻一路에 빠졌으며 社會는 날로 混亂만을 助長하였는가 하면 反共은 한낱 口號와 形式에만 그쳤을 뿐이니 國家와 民族의 將來를 念慮하는 者는 누구나 이대로 座視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五·一六軍事革命이 이와 같은 祖國의 刻薄한 運命을 打開하려고 愛國의인 青年將校의 蹶起에 依하여 舉事된 非常手段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軍事革命은 다른 革命

과 달라서 그야말로 歷史的으로 볼 때 必然的인 快學가 아닐 수 없으며 現在 우리나라가 共產侵略分子와 對決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기는나 그렇지 않으면 패하는나의 판가름에 놓인 諸般內外情勢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國家再建의 새로운 課題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고 共產傀儡를 粉碎하여야 할 勝共體制를 確立하지 않으면 앞날 宿命的使命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들이 五·一六革命을 마지막 革命이라고 일컫는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革命課業의 完遂與否는 그대로 우리의 運命과 直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軍事革命은 單純한 政權交替라든가 흔히 外國에서 볼 수 있었던 平凡한 革命이 아니고 그야말로 救國革命이고 마지막 革命이니만큼 이에 對한 國民의인 協調와 支援이 없이는 그本來의 成功的達成을 期할 수 없음으로 이른바 國民革命이라고도 理解되어 있는 것이다.

即 五·一六革命이 救國革命이고 國民革

命으로서 모든 再建事業에 國民個人이 直接自己의 革命으로 알고 人間革命과 生活革命을 通한 確固한 理念과 果敢한 實踐없는 이는 國家再建의 至重한 基本課業을 成功的으로 達成할 수 없음 것이다.

이와 같은 國民革命的인 重要性과 그 要請에 따라서 再建國民運動을 展開키로 되었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一連의 國民運動에 對한 여러가지 問題가 提高되어 있고 이미 國民運動七大要綱이 發表되어 있음은 이 또한 周知의 事實이 되어 있다.

이에 筆者는 再建國民運動에 몸을 던진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의 再建座右銘을 다시 具體的으로 나누어 說明하여 보겠다.

二、

첫째, 勝共體制的 強化와 生活化

우리나라는 國土가 兩斷된 채 언제던지 共產侵略에 맞서고 있고 지난 六·二五와 같은 慘劇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爲하여서는 우리나라가 反共을 國是로 한은 勿

論인 바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體制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새삼스럽게 共產帝國主義에 對해서 더論할餘地조차 없거니와 언제든지 그들과 對決하고 그들을 이당에서 몰아낼 態勢를 갖추어야 할진대 그러기 爲해서 우리는 우리가 所謂 共產主義者의 理論이나 그들의 制度 其他一切을 凌駕할 수 있는 實力培養을 하여야 한다.

얼핏 생각할 때 反共이라 하면 어느 때나 부르짖어 왔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의 認識이 充分한 것같이 疎忽히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舊政權이 모두 反共을 한날 口號에만 그쳐는 反面에 敵은 間接的侵略方法을 써서 우리를 內部로부터 崩壞하려고 가진 策動을 다하고 있음에 想到할 때 우리는 이를 自己生活化하는 데 더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民主主義國家의 一員으로서의 尊嚴된 自由와 責任을 履行하는 한편 안으로 自己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누구를 對하더라도 中立主義와 機會主義 그리고 安易主義와 放慢主義를 一切容納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萬一如斯한 隨性이나 破壞分子에 接할 때에는 假借없이 이를 是正케 하거나 膺懲할 수 있는 積極性과 勇斷을 가져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反共을 形式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國民個人이 實際行動으로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自己의 生活化에 具體적으로 옮겨 감으로써 비로써 우리가 國是의 참된 理解者가 되고 行動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勤勞精神의 鼓吹

우리나라 民族性의 缺陷中의 하나가 勤勞

精神의 缺乏이라는 의미 識者層에서 云謂되어 왔고 外國사람이나 外國에 다녀온 人士들에 依하여 指摘되어 온 것을 記憶한다. 外國에 比하여 우리는 古來로 遊休徒食을 何等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習性이 있으며 封建的家族制度下의 早老症이 尤甚하였는가 하면 일하는 것을 마지 않지 않게 여겨 온 士農工商의 思想이 뿌리 깊어 스며 들어 있어 一言而蔽之하여 勤勞精神과 努力이 缺乏되어 왔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었다. 우리는 「再建事業은 勤勞로부터」라는 새 스로-강을 내걸고 職業의 貴賤없이 各自가 맡은 바 職域에서 한방울의 땀을 더 흘릴 수 있는 날에 그만 큼 國民所得의 增加와 나라의 富強을 期할 수 있을 것임으로써 勤勞精神을 鼓吹하는 새로운 生活努力을 傾注하여야 하겠다.

셋째, 耐乏生活의 勵行

위에서 말한 勤勞精神의 鼓吹가 自己의 收入增加運動이라고 한다면 耐乏生活의 勵行은 自己의 支出抑制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衣食住로부터 社會生活에 이르기까지 汎生活을 日常化하는데 있어서 收入內支出을 原則으로 함은 勿論인데 우리 國民은 自己의 收入을 度外視한 虛榮과 虛飾에 홀려서 過度한 奢侈와 過多支出을 일삼아 왔음도 또한 누구나 否認할 것이다. 外國에 간人士나 外國人自身이 놀랄만큼 衣服이나 所持品이 先進國家의 그들에 比肩이 아닐만큼 奢侈와 無理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家族儀式이나 社會儀禮에 있어서도 벗어나는 限이 있더라도 形式과 好奇心에 사로잡혀 自己의 分을 넘치고 있었으니 이 어찌

痛嘆을 禁치 않을 수 있겠는가. 特別히 大部分이 都市層에서 그러 했지만 이러한 虛禮虛飾의 裏面에는 正當한 自己收入外에 陰性收入이나 不正不當收入을 前提하거나 그것을 造出케 하는 惡性的不法手段이 附隨되거나 隨心으로 우리는 지난날의 惡風을 斷然拂拭하고 健全하고도 正當한 生活態度와 社會氣風을 가짐으로써 個個經濟와 家族經濟 그리고 國民經濟의 伸張을 期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耐乏과 忍耐가 곧 再建譜의 새로운 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넷째, 生産建設의 增進

지난 十有餘年 동안의 社會秩序와 經濟體制가 姑息의 이고도 一貫性없는 無軌道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로운 國家再建과 經濟復興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禍社된 經濟建設에 달려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차차 都市에서 失業者는 洪水같이 밀려들고 農村에서도 絕糧農家나 離農이 例年마다 모두 살 수 없다는 아우성과 飢餓線上에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反共과 勝共을 앞아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勿論이 問題는 政府의 새롭고도 果敢한 經濟施策에 期待하여 둔다고는 하지만 우리 國民들의 自發의 이고도 自律의 인 生産建設意識의 昂揚이 또한 必要한 것이다.

特別히 民族資本이 貧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產業資金의 形成乃至 調達問題는 무엇보다도 緊要한 바인데 우리는 모든 遊休資金이나 零細資金을 産業化 生産化하는 精神運動과 經濟運動을 展開하여야 하고 이것이 爲해

서 우리國民個人은貯蓄의勵行創意力の發揮技術의保護、生産増大와建設事業の振興을期하는데全力을傾注하여야할 것이며生産増大에依한自主經濟建設의捷徑이바로各自의建設意識에달려있다는것을잊어서는아니될것이다.

다섯째、國民道義의昂揚

政治가腐敗하고社會가混亂하고經濟가麻痺된곳에國民道義만이孤高할수없다고는하지만 우리는民族固有의美風良俗은다있어버린듯各自의營利主義功利主義및利己主義에만사로잡혀國民道義는땅에떨어져다시찾아볼수없는地境에이르렀었다.

모든經濟惡과社會惡은連이어惡循環하면서國民은社會道徳과社會規範을度外視한 나머지都是社會正義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國家再建이니經濟復興이니 하지만 이와같은社會正義의實現이 없는 곳에 그本然의成功과姿勢를 바랄 수 없을 것이며社會正義는 다시國民道義의振作과復古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땅에 떨어진道義心을 되찾고 各自의生活正義와生活理性에 돌아가서 서로道義道徳心을昂揚하고良心의이고도誠實한國民이 되도록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爲해서 우리는法秩序를 지키고社會正義와公衆道徳에透徹하여公益先行的原則을遵守하고一切의不正이나不義와 싸울수 있는 새로운道義心을涵養하여야 할 것이며社會正義와國民主義의昂

揚이 바로再建事業의發源 原動力이 되고 모든新秩序를確立하는基點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여섯째、派閥意識의根絶

筆者는再建座右銘을 말하는 자리에서派閥意識의根絶을드는데躊躇치 않는다.

우리나라는歷史的으로固疾化되어온이派閥爭鬪 때문에 가는곳마다 골치 넘어리가 되어오고 있음은 누구나否認할수 없을만큼事實化되어 있다.

이派閥意識은健全한社會秩序와正當한社會體制속에서는 있을수 없는일이거니와 더욱獨裁의腐敗政治속에서派閥爭鬪와派閥助長은 그極을 다하여 왔다.

우리가國家再建이라는聖業完遂를 다함에 있어서共同正義와共同目標에어긋나는派閥이란 있을수 없음은勿論이며이派閥이繁殖하는곳에서는그大本을 그릇치는結果에陷入할것임은明若觀火함으로國民이個人된立場에서小利와小乘을一擲하여民族大我와社會全體의一人이라는大義에立脚하여一切의地方色이나學校色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門閥이나族閥이니하는自信없는輕舉妄動을일삼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남이 잘되는 것을 힐끗고謀略하는가 하면上司에게 가진阿諛과阿附로對하거나上司된者가努力에依하지 않은情實과私心に 호른다면 그것이 바로公益生活의病幣가 되어全體를 그르친 것임으로、派閥助長이란 이와같은自信이 없고能力이 없는곳에서加産될 것이니 우리國民은職場에서나社會에서 모두 이派閥意識을根絶하는데格

別한決心과勇氣를 가져야 할 것이며、能力과誠心을本位로하는健全한社會氣風을養成하는데努力을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派閥이 없는곳에만드시職場團合이나社會融和가助成될 것이며國民融和의健全한土臺위에 비로소民族團結의大業이成就될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國民義務의遵守

끝으로筆者는 우리의座右銘으로國民義務의遵守를例舉치 않을수 없다.

우리는民主主義國家에서生을享有하는榮光을 잊어서는 아니되거니와民主主義가 곧放縱을일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진대 우리는自由를 누리는代價로個人生活과國家生活에 있어自己的責任과義務를 다하여야겠다.

國民이國民으로서의義務와責任을 다하지 못하는곳에 아무리爲政者나指導層이아우성을치더라도國家建設이百年大計의盤石위에 놓일理 없다.

國民義務가納稅義務이건兵役義務이건그리고教育義務이거나勤勞義務이거나를莫論하고그어느하나라도國家再建에直結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림에도不拘하고兵役忌避나脫稅나其他가지가지의 우리의義務가 마치 남의 일같이 동떨어져履行되지 않는곳에 더 이상무엇을期待할수 있을 것인가.

이에 우리는個人生活에서나家族生活에서나 나아가서國家生活을營爲하는데 있어自己的義務와責任을 다할 줄 아는國民的覺悟와實踐이要請되는 것이다.

일찍 생각하면 우리에게過重한責任이나

義務가 負擔될 理由로 그 根本마저 있어 버릴 수 있다는 口實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自己의 意見과 自己의 主張을 表示하고 貫徹케 하는 自由가 保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己의 義務를 다할 줄 아는 國民의 矜持와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며 그리함으로서 明朝하고도 眞正한 民主主義 國家의 一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三、

우리나라를 共產主義의 侵略으로부터 守

먼저 알아야 할 것



趙 豐 衍

護하고 안으로 腐敗와 不正과 貧困으로 因한 國家와 民族의 危機를 克服하여 眞正한 民主共和國으로 再建하기 爲한 五·一六革命은 그間 民族正氣를 되찾고 國家再建의 모든 基盤을 마련하는데 總力을 傾注하여 왔으며 民主共和國의 앞날의 새 살림을 爲하여 果敢한 諸般課業이 成功的으로 遂行되고 있다.

不過 數個月남지 않은 期間에 이와 같은 巨大한 業債을 舉揚하게 됨은 革命政府의 눈부신 活動과 晝夜를 가리지 않은 奮鬪의 結果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國家再建의 土臺를 盤石위에 놓기 爲해서는 國民 個個人의 絕對的인 協力과 參與이 있는 그 早速하고도 成功的인 達成을 期待할 수 없을 것임으로 國民서로서가 自己의 革命으로 알고 人間革命과 生活革命을 通한 眞摯한 努力과 積極的인 協력을 아끼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革命인 五·一六의 精神을 自己의 精神으로 알고 滅共 勝共의 굳은 理念에 동쳐 위의 座右銘을 念頭に 두고 再建 事業에 總邁進하기를 바랄 뿐이다.

(筆者·再建國民運動本部 報道課長)

兵法 孫子에 이런 대문이 있다. 『故曰、知彼知己、百戰不危。不知彼不知己、每戰必殆』

敵情을 잘 알고 友軍의 實力을 잘 알고 나서 戰場에 나가면 몇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敵情도 모르고 友軍의 實力도 모르고서 暗中摸索으로 대드는 者는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대개 이런 뜻이다. 敵情을 알려 드는 것은 謀攻의 바탕이 되므로 누구나 하고 있다. 現在도 間諜을 써서 敵情의 掌握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我方의 長點을 잘 알고 이것을 利用善用하

는 일은 뜻밖에는 드문 법이다. 管仲은 아들이 齊桓公을 도와서 天下를 統一한 政治家다. 그는 어떠한 敵에게서나 脅威를 느끼지 않고, 어떠한 敵도 征服할 수 있는 方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政治가 閒暇하여 政廳은 秩序가 있고, 公法이 行해져 私의 惡事가 行해짐이 없고, 廣에는 穀物이 가득차고 監獄은 텅 비었으며, 賢人이 나아가고 姦民이 물러나고, 尙

武의 氣像이 充滿하여 射利를 賤히 여기고, 農民은 밭갈기를 좋아하여 飲酒美食을 바라지 않으며, 財用에 不足이 없이 柴糧이 到處에 豊富하고, 上下가 和合하여 禮儀道義가 신다. 그런 故로, 處해 있으면 安定되고, 動하면 威嚴이 있으며,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堅固하니라.』

이렇게 말한 管仲은 이를 말에만 그치지 않고 德을 實行했으며 齊나라는 霸者가 된 것이다. 우리는 方今 革命課業을 完遂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窮極의 目標가 管仲이

示唆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管仲의 理想은 모두가 國家와 民生에 두어 저 있다. 外敵을 이기려하기 전에 안을 먼저 튼튼히 하였다. 우리가 共産北傀에 이기는 捷徑은 진실로 여기에 달린 것이다. 國結해 蹶起할 때는 왔는가 한다.

○ 李氏明宗朝의 尙震은 領議政의 자리에 오를 만큼 學識과 슬기가 있었다. 단 하나 남을 批評하기를 소홀히 하는 缺陷이 있어 尙公의 성미를 貶하는 者가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다가 農夫가 말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農夫가 두匹의 소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는 尙소요 하나는 尙소다. 두匹이 모두 튼튼해 보이며, 바라보면 尙公이 이윽고 農夫에게 물었다.

『尙소와 尙소, 그 어느 것이 더 쓸만한가?』 이 말을 들은 農民은 자못 난처한듯이 尙公에게 절이 왔다. 그리고 나서 尙公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尙소가 더 쓸만하지요.』 한다. 그까짓 말을 하고자 일부러 다가가 꺾속말 한 것이 피이져서 인하여 尙公이 되물었다.

『그토록 가만히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때에 農夫가 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예. 한쪽을 좋게 보면 한쪽을 나빠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들이 들을까봐 넌 지시 여쭙 것일지요.』 이 말을 들은 尙公은 놀라 깨달은 바가 있었다.

『세상에는 소가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다 보았다. 이에다 대면 나는 얼마나 顯

重치 못한가.』 尙公이 훗날, 절단코 남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말리가 없다. 그 農夫는 一國의 宰相을 愚弄하려던 것이거나, 아니면 魯鈍하기 짝이 없는 者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옳다고 나도 同感이다. 그렇지만 이 逸話의 核心은 神化된 農夫의 心境에 있지 않고 人間 尙公의 覺醒에 있는 것이었다. 尙公을 이보다 더 美化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封建君主時代의 權力者가 이처럼 反省할 수 있는 것이라면 民主社會에서의 所謂公僕으로 自處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침저녁으로 自己를 反省할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그런 時間을 스스로 내라. 바쁘다 함은 대개 무엇을 위해 우리는 바빠야 하나 함도 모르는 말이다.

○ 碩學 林語堂翁의 『言論自由』論의 一節을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人間과 動物의 差異는 人間이 말을 하는 데 反하여 動物은 가카스로 울음소리를 내는 정도이다. 버너드·소우氏는, 단지 하나가 질만한 自由는 被壓迫者가 危害를 받았을 경우에 울부짖는 自由와 그들에게 害되는 條件을 除去하는 自由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맞는 말이다.』

오늘날 中國에서 우리들이 必要로 하는 自由란, 바로 이 種類의 危害를 當했을 때 울부짖는 自由인 것이며, 말을 하는 自由는 아닌 것이다. 우리들은 지껄이기는 누구에게 지껄임을만큼 지껄이지만 危害를 당했

을 경우에 감히 울부짖는가 하면 이는 甚히 적다. 우리들의 言語는 洗練된 것이니까 우리들의 生活上의 必要를 表現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것은 내생각대로 말 할 양이면 이 또한 人間과 動物과의 差異인 것이다. 밤중에 울며 소다니는 고양이는 一般的으로 말하여 제가 欲求하는 自由를 모조리 享有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항상 表現의 이다. 그러나 中國의 農民은 그렇지 못하다. 危害를 입으면 짐으로 돌아가서 辱說과 惡談을 퍼부었지만 그 辱說惡談이 남의 귀에 들리기를 점낸다.

○ 言論의 自由란 外國의 概念이다. 왜냐하면 中國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큰 常識으로써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沈黙함을 讚揚해 왔던 것이다. 中國 箴言에 말하기를 病從口入, 禍從口出—病은 입으로 서 들고, 禍는 입으로 서 난다—하였다. 中國의 官僚들은 『넷물을 막느니보다 백성의 주둥이를 막는 것』에 노상 머리를 썼었다. 『防民之口, 甚於防川—그리하여 백성의 입은 끊임없이 彈壓되었다.』

단지 하나, 여기 或種의 言論의 自由를 許한듯이 보이는 箴言이 있다. 그것은 笑罵由他. 笑罵好官. 我自爲之—웃으면 웃는대로 내버려둬라. 투덜대면 투덜대는대로 내버려둬라. 나는 良吏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自由가 아니다. 百姓이 웃거나 투덜대거나 아플 것이 없을 때에 限하여 自由가 許諾된 것 뿐이지, 만약에 아픔을 느꼈을 때, 그 良吏는 百姓을 射殺해도 좋은 것이다.』

中國사람을 닮았는지 어쩐지 모르나 過去

우리나라가 이렇게 앉았는가.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도.

言論의 自由의 問題는 言論의 自由가 限定 없이 發展함에 따라 亦是 複雜해 간다. 言論의 對象에도 言論의 自由는 있는 것이니까. 言論의 自由가 束縛을 받으면 民衆이 이를 용어한다. 言論의 自由가 束縛으로부터 解放되었을 때, 民衆에는 害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

「言論人」중에 傲慢하거나 腐敗한 者는 其가 發說한 「言論」은 鈇알 같은 것으로 말고 있다. 남을 쓰아 너머뜨리거나, 그렇지 못 하더라도 鈇알은 다시 제기는 돌아오지 않는 物件이라고 여기는 點에서.

「파스칼」의 「팡세」(思想錄)에서 한 句節을 引用해 본다.

「時間은 피로움을 덜어 준다. 그것은 사람이 變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미 同一한 사람 아니다. 侮辱한 者도 侮辱 당한 者도 이미 同一한 사람은 아니다. 일찌기 怒하게 한 어느 國民과 二世代를 지

내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지금도 佛蘭西 사람이지만, 同一한 佛蘭西人은 아니다.」(一一二)

「그는 十年前에 사랑한 그이를 이미 사랑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여자는 이미 같은 그여자가 아니며 그도 또한 같은 그는 아니다. 이전에는 그도 젊었고 그여자도 젊었다. 그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여자가 옛날과 같은 그여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그여자를 사랑했으리라.」(一一三)

사람은 자꾸 變하는 법이다. 發展하기도 하고 後退하기도 하고 一進一退하기도 한다. 어쨌든 生命있는 것 중에 사람처럼 固定하지 않는 動物은 없다.

十年前에 評價했던 基準으로 知人을 評價하기 때문에 人物을 잘못 아는 수가 있다. 特別히 어느 人物을 起用하고 싶어도 過去の 印象 때문에 勇斷을 못 내리는 上司가 있다. 이런 사람은 極甚한 人物難에 부딪치리라. 어찌나 孤獨을 느끼리라. 自身은 變했다고 認定하면서.

그런가 하면 남이 變한 것만 아는 사람도 있다. 自身도 變했는데도.

時間은 情을 메고 時間은 忘却시킨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남의 變한 것을 理解하고 同時에 自己의 變한 것을 理解하는 일이다. 사람의 老衰하는 過程은 몽고롭게 위에서 부터 아래로 되어 있다. 우선 頭髮이 희거나 빠진다. 다음에는 눈이 어두어진다. 다음에는 齒牙가 不實해진다.

그러나 한편 高齡에 達하면서 圓熟해지는 것도 위, 卽 머리카락. 孔子는 七十에 이르러 자기가 뜻한대로 되었다고 말한다. 孔子는 七十三歲에 逝去했으니 그가 眞實로 세상을 안 것은 겨우 三年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孔子는 身體의 老衰와는 正反對로 생각하는 바가 圓熟을 志向하여 上昇하였던 것이다. 知性은 나이를 먹을수록 높아진다.

이것도 自己를 理解하고 남을 理解하고 그리고 時間에서 오는 忘却을 超越한 때문이다.
△筆者·소년한국일보主幹▽



軍人의 教養과 人品

洪 鍾 仁

현대의 군인으로서 절대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양이요 그 인품이라 하겠다. 옛날 말에도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앉으면 재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부의 겸전(文武兼全)을 높이 말한 바 있다. 군인정신이라던가, 군대의 전통이란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그역시 군인 자개인이 가진 교양과 그군대의 품격을 떠나서 말하기 어려우라고 믿는다. 군인의 교양을 말한다면 그중에서도 장교의 교양, 지휘관의 인품이 어떤것이냐 하는 것이 곧 그군대의 사기(士氣) 전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군인 복무령(服務令)에 보아도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보다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신사도(紳士道)의 일반적 교양과 품위에 관한 규정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 한 것을 비롯하여 청결정박하여야 할 것, 남비할이 없이 부채를 저쳐 안릴 것,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안릴 것,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 동작을 삼가야 할 것 등 모두가 어느 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교양과 인품을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군인 교양은 군인복무령에 규정된 바와 같은 소극적인 범위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아니다. 군인복무령의 규정은 군인으로서 「잘못」이 있어서 안릴 경우를 경계하는데 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군인의 교양은 군대생활중의 「잘못」이나 「부족」의 범위를 넘어서 자개인의 군인의 군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중에서 선발된 대표적 청년인 그 지위와 번복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믿어온 일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군대라면 어느나라 낮추도 다룰 수 있는 그나라 청년 대표적 인간 집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대는 단

순한 전투집단일뿐 아니고 군사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훌륭한 나라의 모범인물을 길러 내는 곳이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서 교양이라고 하면 당면하여 우리 군대에 요구되는 교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점을 몇가지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군인에게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무기의 지식과 아울러 그기민한 조종의 지식을 포함한 기술에 능단하여야 할 것이 그 특수 임무로서 가장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을 정신무장이라고 한다. 강력한 정신무장에 의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떨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강한 군대의 강한 표시가 그군대의 자개의 정신력과 전군의 정신적 통일에 있다고 일러왔다. 이는 다름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적과 나의 화력이 꼭 같다고 할때에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힘의 차이들이 더져 받 견할 수 있겠느냐 할때, 그는 오로지 정신력이 어느정도 더 강하냐 하는데 달렸다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정신력의 무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군대의 지휘관 이하 자개 군인의 평소의 훈련이외에 전투의 상황판단이 유능할 수 있는 두뇌와 지식의 종합적인 것도 정신력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더 나아가서 정신력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한 것은 결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애국심이 어떤것이냐 하는 것이는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애국심은 곧 그국민의 국

민정신이오 그 국민정신은 국가목적에 위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 내지 않아서 아니될 국민의 최고의 의무요 또 그것이 최고의 명예임을 스스로 깨달고 그것을 자자의 신념으로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애국심——국민정신은 어떻게 해서 길러 낼 수 있으며 또 무엇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좋은 국민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생활을 통하여 애국심을 더 널리 또 더 길어 담아가자고 해서 국가정신에 더 두터울 것인 것은 이 민족, 이 국가 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과관속에 어떤 어려움과 싸우며 우리들의 이종족을 유지 발전시키며 우리의 문화를 창조하며 생활의 전부를 쌓아 올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나 역사에서 잘 더듬어 그것을 가슴에 새겨 놓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많은 교훈과 아울러 희망과 포부와 그리고 내일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중 가장 중요한 교육과목을 살펴볼때 그것은 나라라고 가장 중요하게 힘써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국사(國史) 교육인 것을 볼 수 있다. 국사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엄격한 교육과정을 밝게 하는 것이 국어(國語) 교육이다.

三

한민족이 한 핏줄속에 번영했다는 동포애의 정신은 그 핏줄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한 땅의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이 서로 도와서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영원히 그러 하여야 할 공동운명에 처해 있고 그때문에

같은 구가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민족의 발전을 살펴볼 때 그 시초의 그 민족의 정신은 무엇으로써 통일을 이루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다름 아니라 그민족 혹은 민족이라고 불르기 이전의 그종족(種族)이 오랫동안 애써서 발전하고 발전시켜온 그「말」(言語)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민족 그나라의 「말」이란 것은 그민족의 사상(思想)과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방법——논리(論理)와 철학을 가지는 것이다. 또 한민족의 말이 어느 정도로 그들의사를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민족의「말」자체의 발전 정도를 저울질할 수 있는 동시에 그민족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의 정도 내지는 그민족의 발전의 유구——역사적 장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여 4천년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역사와 우리의 문화, 그진동은 어디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는 우리의 생각의 발표수단중의 가장 처음되며 가장 자연스럽게 또 크게 발달된 우리의「말」을 토대로 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말——즉 우리들의 언어생활은 어떤 것이냐? 일본사람들의 침략과 그들의 잔악한「한민족소멸」정책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없이할 정책을 썼다. 그들은 우리「말」과 우리「글」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크게 해쳐왔다. 그때문에 해방된 오늘까지 소위 지식계급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너무나도 무자각하게 함부로 일본말의 날말을 섞어서 쓰는 것을 본다. 우리는 우리말이 아니라 침략의 원수이었던 왜적의 말을 섞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가, 그만큼 우리말은 미개한 것인가? 묻고 싶다. 혹은 습관 때문이라고도 한다. 나쁜 습관을 심수년을 두고 버리지 못할 정도라면 그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사랄된 명예를 저버리며 우리나라 이 민족의 아들 딸된 명예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정신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말」을 살려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더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국민의 국민적 정신부장(普遍的)인 길이고, 이것이 또 우리네 청소년의 장래를 독립·자유와 가장 건전한 민족으로 그 길을 닦아 주는 방도요 또 무적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전제에서 군대의 정신부장 또는 건전한 교양을 위하여 특히 장병들은 우리국사와 국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고 부탁하는 바이다.

(筆者·朝鮮日報 取締役會長)

— 詩 —

讚

歌

— 讚 頌 · 哈 嘯 · 無 限 的 —

李

興

雨

푸른 蒼空을 향하여
젊은 意慾이 날개친다.

푸른 蒼空 안에서
젊은 가슴이 활개친다.

無限

오직 이

無限。

無限은

人間의 영원히

憶懷하는

人間의 故鄉。

無限。

人類의 영원한 理想의

나라。

無限。

푸르른 無限。

無限한 강물처럼

푸르른 大氣의

無限。

사나이의 意慾의

無限한 勝利가 潜在한

宇宙의

廣場。 廣漠한 空間。

젊은 피가

끓으며

날개치는。

無限

아아 無限。

날개 날개

치는 날개

치는 하늘의

젊음의

아아 無限의

젊음의

無限의

젊은, 젊음의 無限

아아 無限이여。



江華要塞 30 年の 抵抗

우

리

先

祖

는

이

령

계

國

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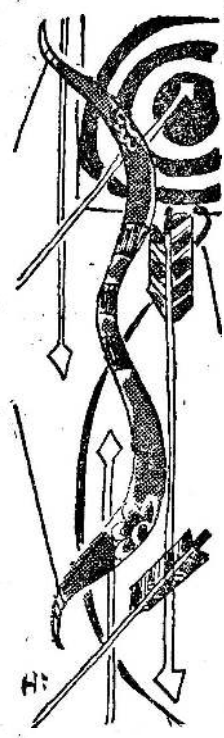
하

였

다

韓民族이 外敵의 侵襲으로부터 그 自身을 獨立自主의 氣魄으로서, 強敵에게 抵抗한 것은 史上 무엇보다도 江華三十餘年の 蒙古에 대한 투쟁일 것이다. 對蒙古抗爭 近半世紀의 이 血痕에 아롱진 民族抗拒야 말로 당시의 世界帝國인 大蒙古를 상대로 하였음에 그 意義가 한층 크고 새롭다 할 것이다. 蒙古族은 北지 黑龍江上流의 轉難河의 源流地에 雄據하던 유목민족으로서 代代로 金과 遼에

에 속하여 지내던 中 高麗 神宗(二十代) 때에 鐵木眞이란 一個英雄이 그 族屬 가운데서 일어나 近方 諸部族을 아울르고, 內外蒙古의 여러부락을 통일하여 熙宗二年경에는 大汗(君主)의 位에 나아가 號를 成吉思汗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蒙古의 勢力은 점점 強盛하여 東西南北 다치는 대로 近隣을 併吞하여 마침내 大皇帝國으로 黃河이북의 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金에게 北邊의 地역을 掠取당하였던 契丹遺族들은 大遼國을 세우고, 金의 遼東直撫使 蒲鮮萬奴가 自立하여 大眞이란 國家를 세웠다. 未久에 이들은 蒙古大軍에게 밀린바 되어 抵抗이 약한 高麗로 밀려들었다. 高宗四年에 契丹人들은 大舉 南進하여 鐵原과 原州 등지를 유린하다가 女眞의 勇將 金就礪와 州南에서 싸워 大敗를 입고 連戰連敗하여 東北女眞으로 달아났다. 未久에 契丹軍은 女眞의 兵을 얻어 南下하여 지금의 咸平兩道에서 東西로 轉戰하면서 擧賊과 같이 약탈을業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蒙古는 東眞과 和盟을 맺고 合力하여 契丹의 殘敵을 소탕한다 하고 또 高麗



趙雪嶺

를救出한다고揚言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에는兩國의聯合軍은半島東北面으로부터西方에나타나契丹의諸城을깨뜨리고그主力인江東城에유박하였다. 그때大雪이내려糧道가두절되어蒙將哈眞은西北面元帥趙沖에게兵糧을청하였다.朝廷은이를반대하였으나趙沖은그要求에응하여將兵一千과米穀一千石을보내고다음해정월에도金就礪를보내어江東城을개침에蒙古軍과연합하여이를합락하는데이르렀다. 그러나蒙古는大遼契丹을平定하는것으로서高麗에대하여큰恩惠나배운것모양으로해마다과중한貢物을요구하고뿐만아니라蒙古의使節은올때마다그行動舉止가傲慢不遜하였다. 그런데사건이일어났다. 高宗十二年정월에(蒙古太祖二十年)蒙古使者著古與가使命을마치고自國으로歸還도중草賊에게암살되어蒙古政府는高麗人이살해한것으로의심하여數多한질문을我廷에보내왔다. 我廷에서는江外(鴨綠江)의金人の所行이라하여極口辯明하였으나蒙古人들은끝내高麗人의所行으로돌리었다. 그리하여兩國의관계는점차險惡하게되었고國交斷絶에까지이르렀으나蒙古帝成吉思汗은他故로因하여高麗侵犯을보류하고있었는데그의第三子太宗이後繼者로서乃父의遺志를이어받아서高宗十八년에金國을征伐하는동시에別軍을撤禮塔에게주어高麗로침들어오게되었다. 당시高麗는武臣崔忠獻은이미죽었으며그의아들崔瑀가政權을잡아政房을두고百官黜陟을任意로할때였다.蒙古大軍은손쉽게鴨綠江을 건너長驅하여松京을포위하였다. 蒙古大軍의經過하는도로나촌락은形跡이없을정도의被害를입었다. 家屋은燒却되었으며金銀은탈취



펜을 드니 먼저 무엇을 써야 될지 잠시 망서리게 되는군요.
물론 안녕하시겠기에 긴 인사말 줄입니다. 가을밤의 다사로운과 아쉬움을 맛 보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은 나의 모든 생각은 언니 곁을 맴돌고 있어요.
글쎄 귀뚜라미 탕도 아닐텐데... 이렇게 쉼치 해지는 밤 언니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라고생각하다 못해이내이렇게 펜을 든 거야요 웬지 모르겠어요. 늘 언니의 화제는 내게는 별로

언니에게 드리는 편지

鄭 珍 九

흥미 없었던 형부의 것이긴 했지만 이 순간 문득 그리워지는군요. 형부도 안녕하시겠조. 남달리 뽀족하고 날카로운 성질의 소유자인 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새 혹시 싸움은 안하셨겠조?

이 글을 보는 순간 언니는 약간 부끄러울걸요. 골잘 흥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섞여 가며 무엇이 잘 못하고 무엇이 틀리고 널 뵈었다고, 있는 흥없는 흥 다 보아 놓고는 혹시 내가 부채질을 할라치면 도리어 나를 면박하며 눈까지 흘리고는 어느덧 기분은 차차 변해 꿈을 그리는 소녀인냥 「난 그래도 그이가 좋아. 화를을 날으는 그이가 말야. 그 하를씩 유니폼 그이의 눈동자 음... 나는 그이가 좋아.」

내판에는 언니편을 불러 주느라고 한 말이 효력을 잃고 이렇게 불편하면 나는 고만 어이가 없어 지근했조. 항상 언니의 진실을 알기엔 앞승달승했으니깐요. 언니, 어찌저찌 같것만 빌써 철이가 있었군요. 철이도 많이 애써줬을 걸요. 아빠 탐아바 행기를 좋아 하나구요. 무엇보다 내가 보낸 신문을 좋아 한다니 정말 기뻐요. 지금은 밤, 귀뚜라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잠 전에 귀뚜라미 한

공군가족에게부치는글

되었다. 가는곳마다 焚蕩질이었다. 실로 苛
 酷 焚略이었다. 龜州, 西京의 兩戰에서 다소의
 戰功을 세웠으나 我軍의 無力함을 보인 것은
 이었다. 무서운 冬節, 首都 開京은 雪명이 朝
 夕에 迫頭하였다. 高宗은 撤禮塔의 勅降使를
 引見하고 禮幣를 厚히 하여 王弟 准安公을 撤
 禮塔의 本營인 安州에 보내어 蒙將과 和를 講
 케 하였다. 撤禮塔은 이를 許하고 다음해 정
 월에 軍事를 물이켰다. 蒙軍의 오고가는 도중
 에 民家의 피해는 筆舌로 形容할 수가 없었다.
 高麗는 萬不得已하여 敵에게 和親을 講하였
 지만 敵의 動向은 예측을 不許하였다. 權臣 崔
 瑬는 宰樞會議를 열고 江華 溇都를 撤하하여
 아무도 反對하는 者가 없었다. 마침 崔瑬가
 되었던지 夜別抄 指揮官인 金世沖이 會席에
 突入하여 遷都의 不可를 論하고 金世沖이 會席에
 守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守城方策을 묻는 말
 에 대답을 못 했다하여 衆議의 妨害者로 물리
 어 斬刑되었다. 高宗十九年 六月에 首都를 江
 都로 옮기고 敵의 銳鋒을 피하고 持久抗戰을
 考하였다. 松都의 民戶 十萬은 강제로 江華
 에 移居하였고 老弱과 일부는 山城과 海島로
 피난케 하였다. 이러한 高麗의 처사는 끝까지
 蒙古에게 敵意를 보인 것이므로 蒙古는 다시
 撤禮塔에게 大兵을 주어, 다시 高麗를 殲滅케
 하니 開京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漢江이 남까지
 奔蕩하였다. 撤禮塔은 處仁城(龍仁) 공격중에
 우리의 僧侶 金允侯의 화살에 射殺되어 그 軍
 士는 副將 鐵哥의 인솔하에 北으로 撤歸하였
 다. 高麗는 이에 多少의 兵을 얻어 崔瑬는 家兵
 三千人을 보내어 北界兵馬使 閔驥와 함께 西京
 의 叛賊 洪福源을 討伐케 하여 그 家族 數人을
 사로 잡고 福源을 遼東으로 逐出하였다. 그리
 하여 북부 諸州縣은 회복 되었으나 그 피해는

마리가 내 방에 들어 왔잖아요. 어떻게 잘도 뛰는
 지 무성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간신히 수건
 으로 덮어서 잡았어요. 나 겁본 인물은 언니가 아
 니까..... 귀뚜라미 합창은 가을의 특산물, 정말
 듣기 좋아. 어딘지 좀 구경시키고 서둘러. 게다가
 바람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 언니는 질 수 있겠
 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진 언니,
 지금쯤은 포근한 잠을 자고 있겠죠. 순간 언니가
 부러워지는군요.

요 며칠 전 나는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의 가족
 을 그런 영화를 보았어요. 특히 공연의 조종사를
 그런, 마치 언니와 형부를 연상시키더군요.

남편을 지구히 협조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
 로 엮어진 두 사람의 애정..... 저기엔 아무런 두
 려움도 거리점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영국의 시인 「존. 키츠」가 말 했듯이 「한 아
 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겠죠? 나는 재차 이
 스토리 그리고 내가 저기서 느낀 믿을 수 있는 줄
 거음, 이것이 저기에 공감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
 었어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경제적 조건에서 오

는 고난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 문제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을 비행
 장에 보내내 놓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초
 조감 그리고 안도감, 조종사의 아내 되기는 힘들
 게 보이다군요. 비록 조종사 아니라 현명한 아내
 가 되기는 힘든 일이지요. 여자의 앞은 성직에서 오

는 비유어 어떤 친구는 어떻게 누구는 잘 살고 남
 이 가진 것은 다 갖고 싶은 공통된 사람의 심리
 에서 오는 마음 그리고 허영이 쉽게 이것들이 남편

을 괴롭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
 요. 여의치 않은 경우, 언니 생각해보셨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나머지 열등의식을 가질까
 고 걱정은 것에 신경을 분산시킬 거예요. 정말 좋
 은 아내라면 우선 완전히 남편을 이해하여야 되
 겠죠. 그 Job부 Situation 속속히 알아야 되요.
 물론다면 노력해야죠. 내가 알기에는 남자들은 어
 딴지 어리석은 데가 있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때 아내의 힘도 한 키포. 세상이 말하는 내 조
 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언니처럼 조종사의 부
 인, 색다른 직업을 갖고 넓은 하늘을 나는 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만일 내가 언니처럼 조
 종사의 아내가 된다면 크게 의치고 자랑하고 싶어
 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 할 것 같군요.

첫째 믿음과 안정감으로 하늘을 날으게 하겠어
 요. 폭음을 영원히 내 빗살아! 언니 우습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탈선 했는지, 아마 언니가 조
 종사의 부인이니까 나도 이렇게 동화될 모양예요.

언니 우리 다 자기일에 충실하여 좀더 협조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해야 되겠죠. 적
 은 일부터라도. 이렇게 꾸민을 하다보니 밤도 길
 었군요. 두서없는 글 읽는다고 지루했죠. 언니
 와 형부 일꾼을 번갈아 그러려서 나도 모르게 웃
 어 버렸군요. 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형부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형부가 참 좋아.

아 참 철이 데리고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렇기
 다 리겠어요. 안녕

동생 친구가

(筆者: 女大生)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어서 北部 地方은 荒漠한 山野와 草原이였다. 洪福源은 西京의 叛將이 었으나 그는 遼陽에서 安撫 高麗軍民總管이 되 어 高麗의 降衆을 다스리었다. 蒙古는 暫時東 眞을 토벌하는 사이 壽命을 물리게 하였으나 金 과 東眞을 滅하고는 다시 銳鋒을 高麗로 돌리 어 高宗二十二年에는 唐兀台에게 大軍을 주어 全國이 그의 말발굽 아래 蹂躪되게 하였다. 그 掠奪은 慘酷이란 文字만을 가지고는 表現에 窮하다고 할까. 高麗의 全國民은 一致團結하 여 이 世紀의 大敵앞에 抗拒하였다. 高麗의 諸將은 全力을 기울여 방어하였고 朝廷의 群 臣은 江都에 偏在하여 中城 外城을 쌓으며 沿 岸을 철동같이 防禦하였다. 元來 蒙古人들은 大陸에서 長成하였으므로 騎射에는 능하나 海 中에는 능숙치 못하여 指呼의 間인 江島에는 한 발자욱도 밟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朝廷 은 和戰 兩面の 對策을 정비한새 二十五年겨 을에 金寶鼎等을 特使로하여 蒙古에 보내어 撤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蒙古에서는 高宗 의 入朝를 催促할 뿐이였다. 이로부터 蒙古는 자주 王의 入朝를 促하여 올뿐, 我廷에서는 자주 使者를 보내어 高宗 入朝의 불가능을 말 하고 대신 王族 永寧公緯을 王子로 假稱하여 蒙古에 보내어 人質을 삼게 하였다. 蒙古에는 또 太宗의 喪事가 나고 동시에 後繼者 선거에 關한 분쟁때문에 四、五年間은 뜸하다가 高宗 三十三年에 定宗이 王位로 被選되어 高麗의 歲 貢不入을 이유로 阿母佩將으로하여 大軍을 파견하니 또 奔蕩이 벌어졌으며 太宗후에 憲 宗이 即位하여 다시 高宗三十八년에는 也古, 札刺帶 등 諸將을 보내어 全國을 점탈하였다. 海戰에 미숙한 蒙古 大兵은 陸地의 諸城만을 攻陷할 뿐이요, 江華의 要塞에는 攻奪도 할 수

가 없었다. 札刺帶의 지나간 곳에는 옛날의 蒙寇의 禍보다 더 크면 족지 적지는 않았다. 이때 蒙古는 이미 元國으로 中原을 장악한 때 였다. 그 軍馬가 지친 地方마다 完전무결하게 燒盡되어 當時人의 머리에는 元寇는 蒙寇보다 못지 않게 恐怖의 對象이 되었다. 朝廷에서는 자주 使節을 보내어 그 軍士의 撤歸를 요구하 였으나 札刺帶는 國王의 出陸降伏을 권하였고 朝廷에서는 先撤軍 後入朝를 제의하여 條件問 題로 彼此 양보하지 않았다. 我方은 비록 江都 에 蟄居하여 맹렬한 저항으로 蒙寇 및 元寇에 對抗하였으나 그 文化는 高麗 四百七十五年을 통하여 가장 發展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高麗靑磁의 最優秀品 가운데는 이 시기에 제작 된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이때 江華島에서는 武臣 崔弼가 이미 자망하고 그 아들 沈이 뒤를 계승하였는데 人心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 계모 大氏와도 不和를 낳아 母를 弑하고 母의 族門 을 滅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가 崔沈이 執政 九年만에 죽고 高宗 四十四년에 그 嫡妾의 所出인 璿가 政권을 농하다가 다음 해에 金俊등에게 誅戮되어 四代六十餘年에 亘 한 崔氏 王國이 붕괴하고야 말았다. 이에 정권 은 다시 王에게 도라가고 이에 對蒙태도도 다 소달라지게 되었다. 蒙古의 주장과 요구는 如前히 強硬하여 별 도리가 없게 되었다. 蒙古 는 이제 歐亞에 亘한 前古未曾有의 大帝國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조그만 高麗가 三十餘年 을 저항하여 온 것만 하여도 民衆과 支配層이 얼마나 강대한 結束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大元帝國의 形成을 안 이상 더 저항하는 것은 無益할 것 같아서 高宗 四十六年 三月에 朴希實을 特使로하여 開京에 보내어 札刺帶와 회견하고 國王의 出陸과 太子의 入

朝를 약속하여 四十人의 從者와 더불어 太子 僎을 蒙古에 致送하였다. 蒙古에서는 我方의 방위시설을 撤毀하여야만 講和의 實을 얻을 수 있다 하여 特使를 我國에 파견하여 江都의 施設을 파괴케 하였다. 高宗은 江都에서 松京으 로 귀환치 못하고 그해 六月에 江都에서 下世 하여 太孫 謹이 임시로 國政을 裁斷하게 되었 다. 蒙古에 가 있는 太子는 二月에 귀국하여 王位에 나아가니 元宗이 그이다. 新王 元宗은 開京 宮闕造營에 稱託하고 江都를 떠나지 아 니하여 蒙古主의 催促을 여러번 받았으나 그 대신 元宗은 太子를 수차나 蒙古에 파견하여 誠意있음을 표시하였다. 崔氏 執權을 顛覆한 공훈으로 金揆은 專恣跋扈하였음으로 武臣 林 衍에게 族滅되고 林衍은 끝까지 蒙古에 不降 하여 再舉를 모의하는 가운데 元宗이하 近臣의 親蒙出陸策으로 傾倒하므로 다음 해에는 王을 別室에 가두고 王弟 安慶公涓을 세워 一權하 다가 蒙古의 叱責을 받을 수 없이 元宗은 復 位하고 林衍은 憂鬱한 끝에 病을 發하여 死亡 하였다. 前年에 西北兵馬使의 官吏 崔坦이 란 者는 林衍을 討滅한다고 크게 떠들더니 그 軍 士를 통틀어 元宗二年에 西京 이하의 諸城을 가지고 蒙古에 降伏하여 蒙古에 붙으니 蒙古 王 忽必烈은 兵三千을 보내어 高麗의 西京을 鎮守케 하고 그곳에 東寧府를 두고 慈悲嶺으 로서 兩國의 경계선을 삼고 崔坦으로 그 總管 을 삼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高麗 전체가 元 大帝國의 武力앞에 不可抗力일 것을 알고 東 北面에 있어서도 高宗 晚年에는 龍津人 趙暉가 定州人 卓靑으로 더불어 背叛하여 和州의 官 吏를 殺害하고 그 이후의 지역을 통틀어 蒙古 에 降伏하니 和州(只今の 永興)에 雙城總管府 를 두고 趙暉로서 總管을 삼았다. 牛島의 북

特殊한 氣質 理解하기를

鄭 忠 良



飛行士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면서
린 시절의 꿈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少女 때 꿈이 무지개를
타고 번질대로 번지는
幻想이糧食이 될 수도
있는 시절에 나는 하늘
을 날을 부한한 空想에
가슴이 부풀대로 부풀
어있었다.

嚴女史가 하늘을 날때, 나는 겨우 女學校 一
年生이었다. 卒業할 때까지 흘른, 이 飛行士가
되려면 志望이 어떻게 變해서 文科를 擇했는지
記憶에 確實치 않지만, 어찌했던 지금도 旅客
機를 타면 그 옛날 꿈이 아련해진다.

약간 높은 산을 征服하여도 그 기쁨이 대단
한데 하늘머 거칠 것이 없고 限이 없는 푸른 하늘
을 高速度로 날다는 일은, 人間の 꿈 중에서
도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 옛날 原始人들이 걸어 다니다가, 약간 發展
해서 動物에 올라 타게 되고 그리니까 가마를
만들어 타고, 그것이 발전해서 배, 기차, 자동차
등으로 발전한 文明의 利를 利用하게 되
었을 때의 기쁨이란 아마 기쁨중에서도 絶頂이
였으리라. 이런 것이 먼저서 라이프兄弟가 飛行
機를 發明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交通에 利用

부의 태반은 蒙古領으로 화하였으나 그 이남
의 지역으로 강토를 유지하면서 元宗 十一年에
가져야 舊鄴 開京으로 移御하니 이로부터 宛전
히 蒙古의 節制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出陸問
題를 에워싸고 여러 복잡한 暗流가 흐르고 있
었음은 高麗人의 대부분이 講和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對元講和는 大勢에 부득이하여 일
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出陸問題
는 성질이 달랐다.

『蒙古史의 宛전 에 속구』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 元宗을 증심한 文臣一派는 出陸항복을 회
망하였으나, 앞서의 林衍一派는 끝까지 항거
를 시도하였다. 林衍이 한때 元宗을 幽閉하고
王弟 渴으로 王을 삼아 獨裁를 한 것도 이와
같은 對元抗爭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
나 強弱이 不同으로 元의 干涉으로 元宗은 復
位되고 林衍은 病卒하였으며 그子, 維茂의 屠
戮으로 王權은 회복 되었으나 元宗은 蒙古에
갓다가 開京에 歸還하는 길로 江都內의 모든
계급과 기구를 옮길 것을 命하였다. 이에 대하
여 三別抄를 중심으로 한 將兵一派는 不服의
태도를 明示하였다. 이 三別抄軍 가운데는 高
麗人으로 元에 俘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사
람을 모아 神義軍이란 特殊部隊을 조직하
였는데 그들의 鬪志는 보통 다른 軍隊와는 天
地の 차이였다. 蒙古에 대한 敵愾心은 충천의
勢였다. 그러나 그들이 蒙古에 屈服하는 것
은 無원한 恥辱이요 屈從이었다. 그들은 王의
命에 服從치 않으려는 것은 아니나 蒙古에 屈
服하는 것만은 싫어 하였다. 그러자 松京의 王
政府로부터 이 三別抄軍을 罰하고 그 名簿를
탈취해 갔다. 이에 別抄軍들은

『우리의 명부를 蒙古軍에 제시하여 우리 全
部를 殺害코자 한다.』고 하며 政府에 對하여

더욱 徹底한 反意를 품었다.
三別抄軍의 指揮官인 裴仲孫은 드디어 軍卒
들을 충동하여

『蒙古兵이 상륙하여 크게 人民을 살해하려
고 한다.』

하고 외치고 沿岸과 의 警備를 엄히 하여 松京
과의 교통을 차단하였다. 그러므로 島內의 人
心은 極度로 흥분하여 人民들은 進전공공하였
다. 裴仲孫등은 王族 承化侯 溫을 王으로 추대
하여 官府를 設하고 松京政府와 蒙古에 대하
여 敵意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오래 支撐하기
힘들 것을 알고 千餘隻의 艦船에 公私재물과
島內의 子女들을 싣고 남방으로 가서 珍島에
들이가 그곳을 중심으로 沿海州郡을 약탈하였
다. 朝廷에서는 後日 日本遠征의 名將 金方
慶에게 命하여 蒙古元帥 忻都등과 함께 三軍을
거느리고 珍島를 공격하였으므로 叛衆의 別將
金通精이 餘衆을 거느리고 耽羅(只今의 濟州
島)로 들어가 내외에 城을 쌓고 새로운 海上
王國을 건설하면서 저항하였다. 蒙古가 高麗
를 지배한지 오래인 동안에도 그들은 끝까지
抗拒하여 최후에 元宗 十四년에 침패하여 餘衆
七十餘人을 모아 山中으로 피하여 가다가 무
패어 自盡하였다 한다. 三別抄의 亂은 이리하
여 平定을 보았지만 그들이 三四年 동안 孤勢
弱形으로 世界의 大帝國 蒙古와 그 傀儡政府
에 대하여 최후까지 抗爭한 것은 高麗武人의
진통적 정신의 발로이며 또한 寡衆이외 團
結된 偉力의 誇示일 것이다. 江華島란 彈丸만
한 一小島을 안전지대로 하여 疾風迅雷과 같
은 遊牧野生的인 蒙古의 大軍을 邀擊하여 三
十餘年을 항거하는 동안 모든 계급의 民族의
인意識과 愛國心에 불타 오르는 團結과 鬪爭

하여地球 어디건 다음대로 날아다니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제地球宇宙까지 날게 된 것일 때에서, 「파이롯트」는 확실한 몇몇자가 아닐 수 없다. 몇몇이만 아니라 「파이롯트」는 또한 空間을 開拓하는 勇士이기도 하다. 「라이트」兄弟나 19世紀의 鳥人 「린드」 등의 꿈과 勇氣와 기백이 아니었던들 오늘날의 航空史는 그렇게 輝煌하고 화려한 것이 못 되었으리라.

어찌했든 오늘날의 「파이롯트」는 戰爭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世界友邦의 文物 交換에 있어서도 그러하지, 그 役勤이 大端하다. 그들은 職業에 比해서 才質과 趣味에 병행해서 勇氣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파이롯트」란 가장 華麗하면서도 또한 그 生命을 걸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 勇氣와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 「파이롯트」는 飛行機와 生命을 같이 해야 하는 運命의 職業임에도 불구하고, 勇敢하게 일에 獻身하여는 意氣와 勇猛心과 英雄의 氣概는 正말 男兒다운 일이라 하겠다. 이 男兒다운 기백은 누구도 犯할 수 없는 確固不動한 人間の 姿勢일 것으로 生死를 超越하는 자오가 그들의 心性을 한층 高貴하게 세련시킨다고 할까?

당에서 구르는 여러가지 種類의 車 運轉手도 그 危險性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飛行士와 地上의 運轉手는 氣質의 差異같은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의 差異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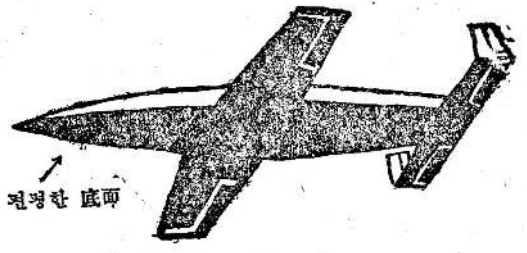
이런 職業家族은 銘心해야 할 일이다. 물론 家族의 사람이 남달리 氣를 지는 것은 물론 일 것이나 그것이 지나치게 利己적이거나 盲目的인 것은 삼가야 할 줄을 민는다. 뒤집어 말하면 너무 좋은 所見에서 사람의 表示로서 지나친 우위를 本人에게 나타낸다는지, 때로는 誇치 많은 일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그에게 소위 말하는 바아지를 들리는다는 신적 타격으로 해서, 一分一秒을 소홀히 해서 不意의 不幸을 招來할지 모를 일임을 생각할 때, 그

의 힘은 지극히 왕성하였다. 卓靑과 趙暉 崔坦 등의 祖國에 대한 反逆行動은 亂後 絕望의 인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發生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高麗 全國의 各地는 敵國 蒙古의 鐵蹄하에 맡겨져 일만 민중의 苦痛, 人口의 消滅은 물론이요 기타 文化 藝術의 損耗는 言語에 絶對한 하였다. 顯宗時의 刻藏인 大邱符仁寺 大藏經板도 高宗二十三年 江華遷都 直後에 蒙古의 禍로 全部를 燒失되는 運命에 놓였으며 新羅 爾來의 國寶인 皇龍寺 九層塔도 高宗二十五年의 慶州 侵入으로 烏有에 돌아갔던 것이다. 世界的으로 자랑거리인 두 보배를 상실한 것은 지금으로도 큰 유감이지만 당시의 國家的 信仰인 佛敎의 큰 文化財를 상실한 高麗人들의 마음은 더 동분하엿을 것이다. 皇龍寺의 九層塔은 그 후 再生치 못하였으나 高麗大藏經만은 그 前無後無한 大亂중에서도 江華島 안에서 재계회되어 蒙古兵 調伏이란 信仰의 人 愛國의 人 團結의 表象으로 熱烈한 民族意識과 偉大한 信仰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巨創한 大事業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刊經 都監을 두고 家族의 役割은 다른 職業人의 家族과는 別다른 關心을 가져야 한다.

筆者가 昨年 八個月 동안 世界旅行을 하면서 六八〇〇마일을 飛行機飛行을 하였다. 飛行機會社만 해도 數十種 會社의 飛行機를 단정하다. 이렇게 數없이 飛行機를 탈 때마다 自身의 安全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이 비행기의 「파이롯트」의 精神狀態가 平穩한지? 그것이 궁금하였다. 이렇게 여객자가 「파이롯트」의 精神狀態를 正確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생각의 焦點이 家族이 생각하는 바와 약간 相反되는 것이나 하여 飛行이란 「파이롯트」의 精神安靜이 우선 條件이다. 그러므로 空軍의 家族일수록 本人의 氣質이나 性品을 十二 刻彫에 착수하여 高宗二十四년에 시작하여 同王三十八년에 이르는 무릇 前後 十五年이던 三世월동안에 이 방대한 國家의 사업은 民族團結의 象徴으로서 完成되어 통히 板刻 八萬一千一百三十七枚로 世所謂 高麗의 八萬大藏經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이 板刻은 수많은 세월을 경과한 뒤인 오늘에도 엄연히 保存되어 당시의 民族의 團結의 結晶을 보여 주고 있다. 高宗十九年 六月에 江都로 옮기지 무릇 三十九年 이 흐른 元宗十一年에야 松京으로 다시 옮겼으니, 거의 半世紀에 亘한 이 民族의 團結抗爭은 史上 未曾有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철저한 抗拒를 계속한 高麗人民의 鐵石같은 團結은 물론 江華島란 地理的 險要에 의거한 바이지만 高麗人들의 왕성한 民族의 意識과 그 不撓不屈의 獨立精神에 힘입은 바 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 그 戰亂 가운데서도 文化的으로 巨大한 事業을 성취하였음은 그들의 團結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였음을 말하는 좋은 표본이라 하겠다. (끝)

공군가족에 부치는 글

(筆者·評論家)



上은 假想의 考案한 極間爆撃機
下는 A9/A10의 假想

A9 · A10計劃

第二次大戦中 獨逸의 미사일計劃은 前號에서 말한것에 그치지 않는다. 計劃안으로 끝났지만 A9 · A10計劃과 極間爆撃機 計劃은 戰後에 있어서 列強國들의 長距離 미사일開發에 많은 影響을 주었음을 看過할 수 없다.

A9 · A10은 二段式 長距離 미사일 이 될 예정이었다. V-2號에 五五度의 後退翼을 달아서 射程距離를 延長한 것을 A9로 한다. 그 밑에 부우스터(發射用 로켓트)로서 重量 六十八분의 A10로켓트를 달다. 그리하여 全長이 二十六미터이다.
發射用 로켓트 A10이 燃焼를 끝냈을 때는 로켓트는 高度二十四코미터에 達하게 된다. 속도는 時速 四、

二八〇키로미터로서 여기서 A10은 落下하여 A9만이 上昇을 계속한다. 마지막에 가서 時速 一〇,〇〇〇키로미터에 이르르면 燃料噴射를 끝내고 그 후에는 彈道를 그리며 비행한다.
점점 高度를 낮추어서 高度 四五키로미터에 이르렀을때에 速度는 時速 一一,八〇〇키로미터가 된다. 이때의 推力를 要領있게 應用해서 全射程 四,八〇〇키로미터에 達할 수 있도록 滑空飛行을 試圖하는 것이다.
이 計劃의 前段階로서 A9計劃 卽 V-2號에 날개를 달아 射程을 延長할려는 試圖는 이미 開始되고 있었다. 一九四二年에는 V-2號 즉 A4에 二枚의 後退翼을 달 A4b가 計劃되었다. 一九四四年에는 二發의 試作機가 만들어지고 그해 겨울에는 實驗이

미사일의 歷史

④

있었는데 그때로 바로 實用이 될상심지는 못하였다.
그 前에 A9 · A10計劃은 中止되었다. 一九四三年八月十六日 魏베른디는 六〇〇臺의 英國 長距離爆撃機의 폭격을 받아 七三五名이나 死傷者를 냈으며 연구시설도 크게 被害를 입었다. 이종되고 보니 美本土 攻擊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리고 美本土 攻擊을 꿈꾸던 폰·부라우더 國에 가서는 開發計劃을 中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후 부라우더는 二段 로켓트 혹은 三段式 長距離 로켓트는 机上論에 그치고 혹은 폰·부라우더의 머리 속에서만 살아 가게 되었다.

極間爆撃機

極間爆撃機는 오스트리아胎生の 天才航空技術者 오이겐·젠젠의 考案이다. 그才能이 曠望되어 「원」에서 독일에 招請된 겐젠은 一九三六年 트라웨에다 로켓트飛行技術研究所를 設立하고 一九三九年에는 小數의 陣容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野心的인 計劃은 極間爆撃機 卽地 球을 半周할 정도의 射程을 가진 有人爆撃機 計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三年後인 一九四二年에는 戰爭동란에 쓰이지 못할 것으로 然과 中止하여 버렸는데 이 계획은 다름나다 기술자들의 커다란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第二次大戦에서 독일이 降服한 直後 소련의 스탈린은 「젠젠博士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서 번번히 찾아 밀려오 하였다.

그 당시 오이겐·젠젠은 그의 協力者 이데네·부렛트와 더불어 聯合軍에 잡혀서 佛蘭西 空軍省으로 護送되었는데 이 두사람의 共同作品인 「젠젠·부렛트報告」 즉 「超高度를 飛行하는 長距離爆撃機의 로켓트推進」이라는 構想이 크게 列強國技術者들의 關心을 끌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奇妙한 理想을 한 폭격기였다. 胴體의 下面은 圓錐하고 胴體斷面은 높이를 보아도 底部쪽이 넓을 정도여서 圓筒形의 燃料탱크가 나란히 두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며 胴體의 先端은 아주 뾰족하였다. 主翼도 쇠다르게 생겼는데 翼幅은 十五미터 柱翼의 斷面은 三角形으로서 두개는 翼弦의 二〇分之一이라는 얇은 것으로 더구나 가장 큰 두개의 位置는 翼弦의 三分之二에 있었으며 發射重量은 一〇〇톤이나 되었다.
발사할 때는 三키로미터 거리의 水平으로 된 輪위를 부우스터의 힘을 빌려 滑走臺를 離脫할 무렵에는 時速 一,八〇〇키로미터의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三〇度 角度로 上昇을 계속하여 八分後에 燃料消費가 끝난 무렵에는 高度 一五〇키로미터 속도 約二一,四〇〇키로미터가 된다.
機體는 그대로 上昇을 계속하여 最高高度인 二五〇키로미터 까지 達한다. 그런 다음에 彈道를 그리며 四〇키로미터까지 降下해서 大氣圈 上面에서 反跳하여 떨어져 大氣圈 위를 바운드하면서 所謂스킵프飛行을 계속하다 드디어는 二〇,〇〇〇키로미터 射程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젠젠의 極間爆撃機는 미사일分類 가운데 드는 安드는지는 모르나 A

9. A10計劃이나 極間爆擊機計劃이 戰後에 있어서 미국이나 소련의 長距離로켓開發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獨逸의 技術이 그 때로 미국이나 소련에 移入되었다고 하면 잘못이나 第二次大戰中에 독일 航空技術者들이 이 와간은 將來兵器를 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이나 그 밖에 나라들의 기술자들에게 이와같은 종류의 兵器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어서 용기를 주었고 그 가능성에 關해서 어느 정도의 確信을 주었던 것만은否認할 수 없다.

美國最初の ICBM計劃

미국에서는 이미 一九四五年 가을에 長距離 로켓의 開發이 計劃되었

다. 一九四五年十月三十一日 美陸軍은 몇개의 會社를 招致하고 八,〇〇〇키로미터의 射程距離를 갖는 로켓을 연구개발 계획에 관해서 토의한 바가 있다.

오늘날 ICBM 아틀라스를 生産하고 있는 콤베아社は 一九四六年一月에 여기에서 正式로 提案을 提出하고 四月에는 陸軍과 開發契約을 체결하였다. 一九四七年에는 今日의 아틀라스가 지닌 特徵을 갖춘 試驗로켓의 原型을 만들었다. 그런데 主任 技術師는 지금 콤베아宇宙工學部의 技術部長을 하고 있는 카렌·J·보사-트였다. 이 一段식의 試驗로켓에는 MX774 하이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靜의 試驗과 三發의 實驗發射가 화이트·산스 試驗場에서 行해졌다.

그런데 MX774에는 V-2와 비교해 볼 때 몇가지 특성이 있었다. 첫째는 엔진이 可動式으로 되어 있어 方向制御를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V-2는 十字(ROZZER)가운데의 噴流翼이 方向을 바꾸어 制御하기 때문에 推力的 損失이 컸었는데 이 缺點을 除去하는 새로운 방식의 엔진技術法이 採用된 셈이다.

물체로는 構造가 가벼운 알루미늄을 主로 써서 V-2가 鋼鐵을 대부분 쓴 데 비해서 훨씬 가볍게 된 것이다. 더구나 外殼白體가 推進劑탱크의 外壁도 되어 그點點으로도 탱크나 外殼과 따로 되어 있던 V-2보다 훨씬 輕量化에의 努力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計劃은 겨우 울치이다 주저였고 말았다. 즉 一九四七年의 軍需費節減으로 長距離 로켓開發이 減縮의 對象이 되었기 때문이다. 一九四八年에 行하였던 MX774의 試驗을 最後로 公式的으로는 美國의 ICBM開發은 오랜 冬眠狀態로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 보사-트가 引率하는 技術陣은 콤베아社의 資金으로 多段式로켓의 技術, 誘導, 推進劑의 組立, 彈頭再突入의 문제에 集中하여 연구만을 그렇게끔 계속하였다.

一九五〇年 六·二五戰亂이 勃發하자 軍事實가 增額되어 ICBM計劃이 再擡頭되었다. 새로운 계획에 賦與된 名稱은 MX-159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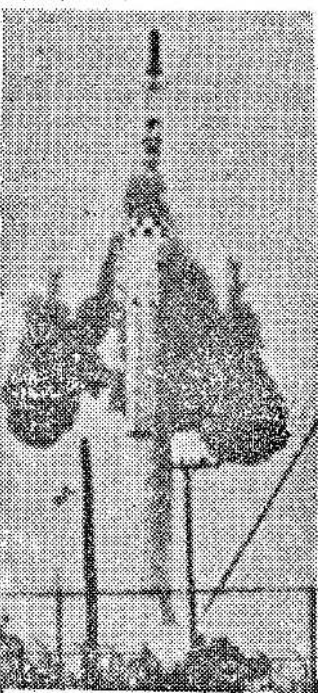
一九五二年末에서 一九五三年初에 걸쳐 C·B·미칸을 委員長으로 하는 空軍科學部門委員會는 콤베아社의 ICBM計劃에 對한 檢討가 있었는

데 그 結果 그 技術의 可能性을 滿場一致로 認定하였다. 一九五三年 가을 존·폰·노이만이 主宰하는 文官委員會도 ICBM計劃 全般을 促進해야 될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이리하여 一九五四年 空軍은 計劃促進을 正式으로 決定하였다. 그런 가운데 水爆이 實現을 보아 一九五四年三月, 비키니에서 本格的으로 實驗이 開始되었다. 彈頭는 아주 小型인데 그威力은 굉장히 큰 것이 出現하였다. 이리하여 ICBM開發이 本格化할 機會는 찾아온 것이다.

아틀라스 試驗

아틀라스 彈道誘導彈이 처음으로 試驗을 行한 것은 一九五七年六月十一日 이었다. 發射時間을 알리는 秒針이 零點을 알리자 아틀라스는 두개의 燃燒室에서 噴火口와 같이 火炎을 噴出하기 시작하였다. 一三五톤이나 되는 推力이 高熱개스의 噴射로 造成되어 液體酸素로 冷凍된 아틀라스의 胴體는 마구 떨어 水塊가 번쩍거리며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아틀라스는 불을

다고 威風堂堂하게 上昇하였다. 잠잠함이 점점 빨리 누그러져 發射순간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별다른 一大事故가 일어나지 않았다. 巨大한 로켓은 突然 豫定 進路에서 離脫하였다. 望遠렌즈로 지켜보면 技術者들에게는 아틀라스가 均衡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誘導裝置는 全力을 다하여 아틀라스의 姿勢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軌道에서 離脫한 채로 上昇을 계속하는 가운데 드디어 機體가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頭部가 거의 水平이 되어 갔으며 마구 내리는 火炎은 점점 진어졌다. 이렇게 몇십초가 경과하였다. 드디어 燃料파이프가 過熱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으며, 노즐에서의 火炎은 이미 噴出이 멎었다. 아틀라스의 全身이 눈감적할 사이에 火炎에 싸이고 말았으며 불덩어리는 四方으로 흩어져 海上으로 海邊으로 落下하였다. 不過 五五秒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것이 아틀라스 處女飛行의 全部였다. 三〇萬個의 部分品을 組立해서 만든 精巧無比의 아틀라스 第一號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말았다.



아틀라스 彈道誘導彈의 試驗光景

三強五輪

姜 小 泉

「삼강오륜」이란 말이 몇해 전부터 流行했다. 「三綱五倫」의 音을 따서 만든 「三強五輪」이다.

三強이란 「金力 權力 暴力」이요, 「五輪」이란 自家用 轎車를 뜻하는 것이라 한다.

確實히 그때는 「三強五輪」이 판을 치던 世上이었다. 그러나 이런 處世術속에 필할필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 이차 럼 아니꼽고 頂살마리 스투은 일은 없었다.

「되는 일이 없고 안되는 일이 없는게」요즈음 세상이다. 「라고 그 때 사람들은 말했다. 옳은 말이였다.

아무리 안될 일이라도 「三強」으로 우겨대면 되었고, 또 다른 사 람便에서 보면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金力은 權力을 샀고, 그 權力은 다시 돈을 건어 들었던 것이다. 金力이나 權力이 無色해질 境遇 또는 方法이 다할 때면 暴力이 動員되는 것이였다. 暴力은 金力과 權力으로 살 수 있는 것이였으 니까.

三強으로 얻은 五輪은 市場 비좁은 골목까지 自家用車를 빌고 들어갔다.

그들은 돈 쓰기에 時間이 모자랐다. 韓國 사람이랄 수 없으리만큼 그들의 生活은 奢侈해졌다. 수이 텅 비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으니 걸치례를 하는데 밖에 쓸 곳이 없는 것이다.

그게 부러워지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正當的인 方法으로 는 벌 수 없으니 속이고 빼앗고 갈라먹고 — 그리하여 우리의 社 會는 거짓과 도둑놈들의 世上으로 化하여 버렸다.

國產洋服이나 國產옷감 國產品을 쓰는 사람은 無能한 사람 같이 만 여기게 되었단 것이다.

소련과 ICBM

이와같이 미국이 계획하고 증차하 고 하는 사이에 소련도 ICBM을 미를 하고 있었다. 소련에는 원래 ICBM 연구에 血眼이 될 理由가 있었 다. 미국은 소련에 近接된 땅은 海外 基地를 가지고 있으나 소련은 그것이 있을 터이 없었다. 그럼으로 소련은 恒 常이 戰略의 弱體性을 打開하고자 狂 奔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 對 處하는 길은 오직 소련本土에서 美本 土에 到達한 만한 ICBM 完成밖에 는 別道理가 없었다. 그래서 第二次大戰 後 獨逸에서 擡出한 人的 專心專力하 였음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이리하여 實用的 水爆에서는 소련 이 미국보다 한걸음 앞섰다. 소련은 一九五三年八月에 最初의 水爆實驗에 성공하였다고 發表하였는데 그것에 基 準한다면 미국보다 약七개월 先行된 셈이다. 그 다음에는 소련이 一九五 五年十一月二十二日 비행기에서 水爆 投下에 성공하였고 미국은 一九五六 年五月二十一日에 投下實驗에 성공하 였다.

이와같이 ICBM 彈頭에 장비한 水爆이 실린 時機는 成熟하였다. 처음으로 소련의 ICBM 성공이 전 해진 것은 一九五七年八月二十六日 이었다. 이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自由 陣營이 國際政治上에 堅持해 왔던 優 位는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動搖 를 일으켰다.

그런데 一九五七年에는 소련도 ICBM을 完成할지도 모르겠다고豫 想할만한 理由는 있었다. 그것은 國

際地球觀測年 卽 世界各國이 協力하 여 地球全般的 研究를 하는 期間이 一九五七年七月一日부터 十八個月間 設定되어 미국은 이 期間에 人工衛星 發射計劃을 發表하였는데 소련도 어 쩌던 한개쯤 發射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人工衛星 發射技術 은 ICBM 技術과 그다지 틀리지 않 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上述한 바와 같이 소련은 ICBM 開發을 서둘러야만 될 戰略上 地理的 事情이 그들로 하 여금 여기에 狂奔케 한 主因이 될 것 이다.

ICBM의 精密度

이러한 소련의 ICBM 狂奔相에 미국이 坐視하고 있을 리는 없었다. 미국은 一九五八年十一月二十八日 에 아틀라스의 全射程 試驗發射에 成 功하고 實戰用 아틀라스 開發도 軌道 에 올랐다.

또한 精密度도 着着 向上되어 一九 六〇년에는 아이젠하워大統領이 年頭 敎書에서 다음과 같은 報告를 하기에 이르렀다.

「有人爆擊機에 있어서 오늘날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그 類別을 찾아 볼수 없을만큼 미국의 長距離 攻擊力은 過 去一年間에 大陸間 彈道誘導彈인 아 트라스가 實戰化됨으로 해서 새로운 힘을 倍加했다. 八,〇〇〇키로미터의 射程으로 실지된 最近의 十四回の 試射 에서 아틀라스는 平均의 四回 目標의 三·二키로미터 以內에 到達하고 있 다.」

一九五八年十一月二十八日에 있었 던 最初의 全射程 試驗發射에서는

再昨年이라고 생각한다. 國民學校 先生님을 만나려 어느 學校 教師室을 찾아간 일이 있다.

마침 그 先生님이 授業中이어서 教師室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엿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女先生 四·五名이 떠들며 주고 받은 이야기가 衣服타령뿐이었다. 三十分 가까운 동안 話題는 全く 變치 않았다.

國民學校 女教師들에게까지 奢侈는 파고 들었다. 하기가 그제 姉母들 바람이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學校를 드나드는 姉母들 사이엔 은근히 이런 奢侈의 示威가 繼續되고 있음은 遺憾千萬이다.

外國 어떤 作家가 쓴 「도토리 와 살갱이」라는 童話가 있다.

「누가 제일 훌륭한가?」하고 도토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裁判에서 「가장 키가 크지 않은 사람, 가장 몸집이 굵지 않은 사람, 가장 힘이 세지 않은 사람, 가장 훌륭한지 않은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했더니 싸우던 도토리들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다.

奢侈에는 누구보다 뒤떨어지는 者가 정말 훌륭한 國民이오, 人格者가 아닐까?

奢侈란 하나의 虛勢같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救濟品市場에 가서 救濟品을 사서라도 外來品을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그런 것 같다.

어떤 國民學校學生이 쓴 作文에

「마음이 부자야 정말 부자라고 우리 아저씨는 늘 말씀하셨읍니다. 속이 빈 사람이 걸치레만 한다네요.」 이런 말이 문득 생각난다.

奢侈를 버리는 생활은 곧 우리 生活의 全體를 마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外面生活만이 아니라 精神生活에도 革新을 가져올 것이다. 속이 빈 배앗아서라도 奢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날... 우리 개인의 生活는 眞實해질 것이요, 우리나라는 富強한 民主共和國이 되리라.

(筆者: 隨筆家)

미국은 소련보다 ICBM開發에 있어서 相當히 뒤떨었다는가 혹은 總合的으로 볼때는 앞섰다고 하는 것 같은 論爭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點에 論爭도 식어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소련水準을 능가하고 있다는 自信이 생겼기 때문이다. 地球의 크기는 一定하다. 따라서

氣球의 乳兒

十八世紀初葉에 불란서 사람인 몽골피에(一七四〇—一八一〇)가 最初의 氣球을 올렸다. 그리자 당장 當의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同僚들 한테까지도 嘲笑을 받았었다. 그의 그와 같은 연구시력이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되었다. 그가 올린 비극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크린(政治家, 出版者, 文筆家, 科學者, 一七〇六—一七九〇)도 끼어 있었다. 어느날 프랭크린 앞에서 名聲 있는 學者 한사람이 氣球을 올린데 대해 해서 몽골피에고는 말로 우물거렸다. 학자는 물에 가서 「만약 氣球가 空中으로 上昇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目的의 달성된다는 것이 있니까?」라고 말하였다. 프랭크린은 이 말을 듣고 나서 反對意見을 表示하는 뜻있는 質問을 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을 대제 조상은 乳兒가 어떤 目的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말에 그 학자는 말문이 막혀 버렸다.

東西 二分利子

미국의 石油王으로 億萬長者인 존. 데이빗. 루벤더(一八三九—一九三七)가 어느날 秘書에게 「백스값으로 십

「내가 지금 잔돈이 없어서 그러는게 내일 곧 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내게 빌려주게.」라고 그가 말하니 비서는 대답하였다. 「社長任 뒤 그런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그말을 듣고 루벤더는 호통을 쳤다. 「자네는 計算을 모르는 사람이군! 이 십센트는 一弗의 二分分利子란 말입니까?」

雜中の 繩數

物理學者인 슈튼은 研究에 열중하

〈解説〉

美國의 로켓 衛星

지난 八月十三日 美航空宇宙局은 年內에 人間衛星의 發射을 實現할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彈道미스트는 그리송大尉의 實驗으로 終結되고 急速한 時日內에 軌道미스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첫 人間衛星 軌道미스트로서 實施한 것이 지난 九月十三日 케이푸·케나베탈에서 發射한 머-큐리 二番 케슬이다. 이 實驗은 모기종게 成功하여 地球를 一周하고 케슬은 回收豫定 地點인 머-큐리島 東方 約三百키로 海上에서 回收되었다. 美國은 지난 四月二十五日에 이와 같은 實驗發射을 했으나 로켓트의 코오스가 豫定을 벗어나 爆發하여 失敗하였는데 九月十三日의 實驗成功은 머-큐리(人間이 搭乘한 衛星)의 年內發射의 可能性을 立證한 셈이다. 이 머-큐리·아트라스 D는 다음과 같은 點을 테스트 했다고 한다.

- ① 容器를 軌道에 올린 다음 地球 上의 豫定地點에 自動적으로 降下시키 回收한다는 點
- ② 머-큐리計劃의 追跡、情報에

① 大量集、飛行制禦網 테스트
③ 軌道에 오른 容器의 數千에 達하는 裝置의 實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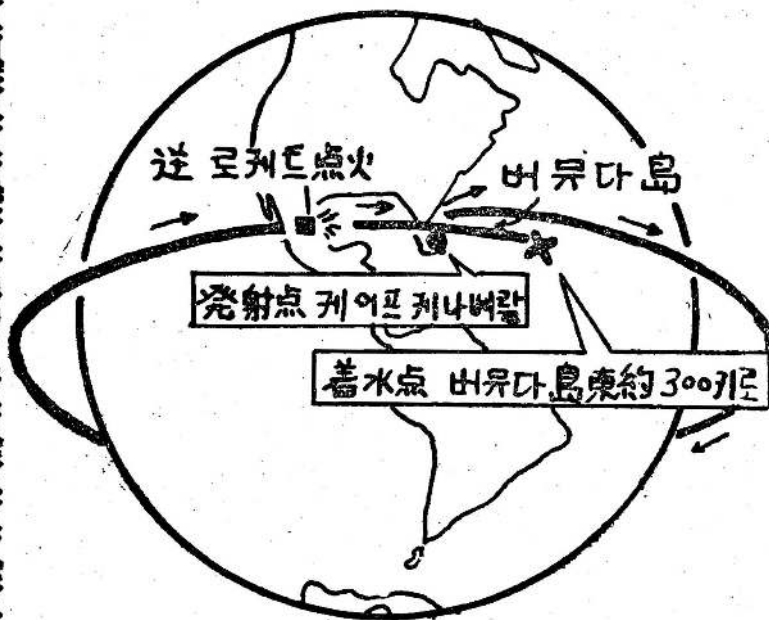
④ 大氣圈 再突入에 依한 高熱과 重力의 八倍에 達하는 引力에 대하여 容器가 어느 程度 견디어 나는 가를 알아보는 點

美航空宇宙局이 아트라스에 依해서 케슬을 發射하기 始作한 것은 昨年 七月이었다. 以來 四回 實驗에서 二回는 失敗하였고 二回는 成功하였는데 前番의 高度 百七十三키로에 비해서 이번은 二百四十키로의 高度까지 올라갔다. 蘇聯은 昨年五月에 衛星船第一號을 發射하고 가가 락을 生還시킨데까지 十一個月이 걸렸는데 美國이 滿一年內에 衛星船을 成功한다면 蘇聯보다 最少限 三個月은 빠른 셈이 된다.

그런데 九月十三日에 行한 머-큐리 實驗은 「로켓트 衛星」이라고 하는데 이 케슬 속에는 길이 一미터 幅六〇厘 높이 三〇厘의 로켓트가 裝置되어 電氣機械로서 酸素를 呼吸하고 사람의 體溫에 該當하는 溫度를 保有하며 宇宙人이 搭乘될을 境遇와 同一한 作業이 모두 實驗되었음 되어 있다.

이 로켓트 衛星은 發射後 二〇分

머-큐리 發射 飛行經路



에 軌道에 올랐다. 그리고 아트라스·로켓트로부터 分離된 것은 高度 百六十키로의 地點이었으며 로

켓트 衛星은 二臺의 카메라、二臺의 테이프·레코더를 가지고 時速 二萬七千八百四十키로 날았다.

讀書週 間標題

책 속에 길이 있다

올게 읽고 바로 가자

나는 이렇게美蹟했다

貴下는 革命課業 完遂를 爲해서 무엇을 실천 하였습니까?

- 問 一、反共을 위한 나의 實踐 第一項은?
- 問 二、耐乏生活로 첫째 實踐한 것은?
- 問 三、國民으로서 國民道義振作에 特別 留意하고 實踐한 것은?
- 問 四、社會氣風 振作을 위해서 家族에게 第一 勸奨한 것은?
- 問 五、나는 家計를 어떻게 立て고 植다?

(各項 100字 以內로써 주실것)

탁영호 소령



쫓겨요.

二、내평생활의 첫 실천은 담배부터였읍니다. 洋담배만 피면 나로서는 의과라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진달래

하여 특히 防諜을 實踐의 第一로 삼았읍니다. 아마 이진 反共과 防諜任務를 담당한 제 職責의 탓이

一、나는 이기회를 통

를 애용하지요.

三、우선 말씨부터 고쳤읍니다. 저 도목을 곧잘 했는데 요즘은 피침 짚어졌으니까요.

四、고쳐진 것이 많읍니다만 먼저 부장을 간소화 했읍니다.

五、나는 술, 담배를 몹시 좋아했는데 그걸 피 줄이니까 몸도이 제법 남 아가게에 보탬이 되더군요, 그래서 매달 食口數대로 淸환해 우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기 소령



고 있다.

- 一、民主主義의 자랑인 寬容과 妥協精神에 共產主義의 間接侵略이 浸透해 오기 쉽다는 것을 특히 靑少年에게 強調하고 있다.
- 二、外來品에 도취되어 洋담배를 피워야만 사달수실을 하는 것같이 느껴오던 버릇을 과감히 말피하고 白루담배를 남알에 내놓고서 도속스릴지 않아 졌다.
- 三、洞民과 함께 南原, 原州地區 水災民救護運動에 参戰하여 나섰다.
- 四、두말할 것 없이 國産品을 애용하다.
- 五、家計의 支出을 計劃的으로 秩序 있게 단들었다.

관丙 億少領



으로 삼고 있습니다.

- 一、혁명공약 제일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로서는 군에 몸을 둔만큼 革命부흥을 실천 제일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 二、혁명전에는 하루도 一週日에 한 번 程度는 外食을 하고 茶房에 가던 것을 지금에야 통이런것을 있어 버린 듯음식점과 茶房의 門前에 일신도안 하는 것은 勿論 음식점과 茶房 앞만 지나가도 무슨 罪를 짓든良心의 가책을 받을 程度입니다.
- 三、그에서 第一 좋아 하는 것은 저의 집 사라이지요. 왜냐고요? 첫째로 이런

태를 안가고 집에 꼭 붙어 있으면 안되요. 둘째로 돈이節約되고요. 결국 행복 고 알 되는 식이지요.

- 三、남이 싫어하는 것을 구하여 량 잡아 꼬집어 내지 않고 먼저 자기를反省한 후 言行에 옮기도록 하고 있으며 相互間에 禮儀凡節을 지키기 서로 도우며 新生活運動에 協助하고 있음.
- 四、먼저 우리집 주위 환경을 淸결하게 하여 깨끗한 분위기에서 明朗한生活을 하도록 장려했읍니다. 왜냐고요? 원체없는 살림에 환경마저 저저분하면 차등만 더 나니깐요.
- 五、집소 삼악한 生活를 하며 奉양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生計를 세워 나의 身分에 맞지 않는 모든 허영과 사치를 일소 하였읍니다.

조일동 소령

(技數團 通電校)

- 一、機密文書에 비밀을 神主 위하듯 하라고 課員에게 注意를喚起시킨 일.
- 二、劇場은 早朝劇만 利用하기로 했다. (但 休日에 限함)
- 三、비오는 날 鎗車 運轉兵에게 휴 養을 뒤겨지 말라고 呼喚.
- 四、革命公約 암송.
- 五、아침 出勤時를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姿勢로...

金東遠 大尉

(空七)



一、共產主義의 直接的 被害를 經驗해 보지 못한 靑少年들에게 機會가 있

을 때마다 共產主義의 侵略性에 대한 說明을 하여 주었습니다.

二, 때로는 一週間에 二, 三回씩을 程度 밖의 안갔습니다. 들이서 映畫를 가가 시작하면 錢을 쓸 수 없이 支出이 많아 점으로 우선 이 점에서 耐乏하기로 하였읍니다.

三, 점은 錢에서는 왼쪽 步行, 車道 橫斷은 반드시 「진너가는 길」로 낮이고 밟고 나갈 것 없이 徹底히 實踐하고 있습니다. 눈에 닿는 대로 學生의 不良한 服裝, 步行態度를 注意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公公然하게 倭音曲을 틀고 있는 商店에 대해서는 호 통을 쳐 주었습니다.

四,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車道 橫斷은 「진너가는 길」로 반드시 가도 辱 強調하고 있습니다. 社會生活에 있어서 自己態度에 대하여 明白하고 率直한 것을 約束했읍니다.

五, 結婚生活을 시작하지 얼마 안되어서 뜰어 고칠 것이라고는 없으나 健康한 家計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박 산 찬 대위

(항공본관)



一, 소극적인 反共인론은 防諜으로 부터 實踐했다. 日課時間 外에 一旦 부대를 이탈하면 部隊에 關한 어떠한 事項에 關하여도 말하지 않으기로 했다.

따라서 나의 家族는 나의 所屬조차 모르고 있으리라 믿는다.

二, 간소한 服裝을 擇하기로 했으

며 虛飾에 치우친 娛樂方法은 삼가하기를 했다.

三, 間或 內務班員에게 이야기할 機會를 갖는다.

「저로 보살피 戰友를 아끼자고」.

四, 아침에 빗자루를 들면 이웃집 뜰까지 쓸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웃에 친절토록 원장했다.

五, 별로 고쳐야 할 點을 發見치 못했다.

이 정 우 대위

(三一戰隊 作戰課)



一, 反共에 조그만 치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用心하고 小心한 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部隊에 關한 限 勿한 소기의 이름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二, 近日 白半담배보다는 진달래가 맛이 좋아 졌다는 評이 巷間에 떠돌아 진달래로서 統一을 期하고 過食을 좋아한 내良心에 反問하여 몇몇한 感情을 갖게 하는 同時에 거기서 節約되는 돈으로 體位向上에 努力하기로 했다.

三, 老少에게 應분의 예절을 갖추기 위하여 매일 마음의 종아리에 체적질을 한다.

四, 老人같은 고집과 애기는 강하게 볼 필요는 불상과 바리고 좋은 일이면 食母의 말이라도 無條件 받아들여 기로 합성했다.

五, 家計의 六十%를 차지하였던 體面維持費 伙食費를 家族健康費로 轉換시켰다.

劉 哲 鍾 大尉

(七航保團 通信部)

一, 從來에 部隊內 消息에 대해서 民間人이 基地將兵들 보다 더욱 精通한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어 「反共은 防諜에서」라는 口號의 實踐으로서 部隊外에선 일을 부정하게 갖기로 했습니다.

二, 耐乏生活의 賢明한 實踐은 生活의 合理化에 있다고 생각하며 現在의 收入에 저울질하여 모든 無用을 除去하는 生活改善의 合理化에 着手하고 있습니다.

三, 「나도 곧 三十代인데」라고 버티고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마음과 動作을 習慣화시키고 있습니다.

四, 創意性이 缺乏된 우리의 生活周圍에서 뛰쳐나와 모든 면에 健全한 疑問을 갖고 이의 改善에 努力하는 問題意識의 態度를 갖도록 極口 勸誘하고 있습니다.

五, 現在의 收入으로 浪費가 있어서 아 큰일이겠지만 突發事에 對備할 貯蓄의 必要性을 痛感하여 積極 古物과 廢品을 利用하고 問食도 줄여 每달 殘金을 낼수 있는 家計簿를 꾸미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 희 동 대위

(七航保團 氣象部)

一, 가정에서나 부대에서 나의 일부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빈틈없는 마음의 무장을 갖추어 간첩철학을 막아낸다.

二, 담배의 진미도 모르면서 호기심

에서 뒤워본 담배의 양을 물이고 매일과 같이 양팔레타와 구두손질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서 그 수명을 연장시킨다.

三, 公課규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교통도덕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며 이웃이 서로 협조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서 복지사회를 이루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청소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四, 의식주 생활을 간소화하도록 하며 패디어나 신문 제진생활등의 좋은 책을 통해서 현사회의 실정을 똑똑히 이해하여 혁명파업 완수에 이룩난이 없도록 한다.

五, 주부의 알뜰한 살림으로서 (즉 내집생활로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利得이 가정경제를 크게 좌우함을 인식하여 생활비의 식주필수품비, 교양비, 공공비, 잡비, 미래의 생활을 위한 예비비의 各費目別로 매달 예산정정정을 하여 계획성있는 소비생활을 하며 일일 가계부를 정리하고 월말에는 반드시 검토하여 다음달의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로 하고 있다.

박 공 진 대위

(十一戰隊 一〇一大隊)

一, 부어진 임무중 가장 주요한 비행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전투능력을 향상하는 데 보다 더 열중하고 진취함에 노력하며 공익의 제일인 反共 전선에서 싸고 있습니다.

二, 일상생활을 통해서 耐乏 정신을 길러 왔으나 다만 특히 현명무에는 정부에서 시달린 바 混食을 실천하고

있으며 휴식을 위한 시내의 술의 빈도
 높이고 있습니다.
 三、(一) 교통수단을 증진하고 때
 로는 일반 불행인에게 충고를 해주었
 습니다.

(二) 퍼스나 전차에서 노인이
 나 불우자에게 좌석을 양보하고 학생
 들이 무관심할 때 그들의 처지를 부드
 러운 말씨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四、(一) 의국산 화장품을 사들이
 지 말것.

(二) 검소한면서도 단정한 부장
 을 할것.
 五、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가계부를
 재검토하여 낭비부분을 제거하고 계획
 된 생활수준에 부합될 예산을 수립
 하여 보다 많은 저축을 꾀하고 있음
 이다.

金 熙 中 中 尉

(技 教 團 航 校 校)

- 一、1. 精神武裝 強化
2. 精神武裝 強化
3. 精神武裝 強化
4. 浪費 一掃
5. 國產品 愛用
6.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7.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8.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9.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0.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1.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2.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3.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4.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5.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6.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7.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8.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19.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20. 1. 1. 새로운 道德觀을 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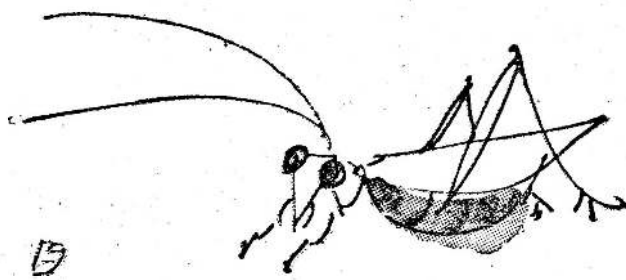
유 태 영 一 兵

(三十號報戰隊)

一、國民各자가 마음의

俗 談 春 秋

孤 客 子



格言은 倫理的 이지마는 俗談은 躊躇
 없는 表現者다.

格言은 天言이니 하는 偉人들
 의 發見하고 人生을 배운다.

格言은 人間의 共通性을 지니고 있
 지마는 俗談은 民族, 社會, 國民에 따
 라서 固有하고 제작기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歷史, 그 風土, 그 生
 活이 바탕된 自然發生的인 하나의 地
 域社會의 庶民層의 素朴한 生活의 表
 現인 지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韓國사람들이 곧잘 입에
 달는 俗談과 格言속에서 우리 自身을
 發見해 보기로 하자.

格言이나 名言을 偉人들이 남긴(법
 의 가족)이라던 俗談은 庶民層의 生活
 에서 생겨난(素朴한 才談)일지도 모른
 다.
 格言은 思索의 이지마는 俗談은 直感
 의 이다.

一 己의 밤의 夢인 夢인 夢인

자식은 크기가 똑같은 꿈이지마는
 가령 남의 밤의 꿈이 내 밤의 꿈보다
 굵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그 굵은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이 보인다」에 있
 는 상 싶다. 같은 크기의 꿈이 왜 굵
 어 보인단 말인가? 이 視覺은 아무
 래도 健全치 못하다. 이 視覺은 하나
 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밤 그릇에 感謝
 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남의 밤 그릇
 을 賞내는 心思에서 出發한 것이 아
 니겠는가? 먼저 「나에게 주어 진 것」
 에 充實한 일이다.

世上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에게
 주어 진 權利的 正當한 行使와 自己에
 게 주어 진 義務의 充實한 履行을 생
 각하기 전에 남의 權利 또는 權限에
 屬하는 일에 容喙하려 드는가 하면 남
 이 履行하려는 義務의 神聖함을 理解
 하려 들지 않는 자가 있다. 自己 卑그
 린은 懲개치고 남의 밤의 꿈을 妬이
 다 보는 부질없는 者라 할까?

「동부와 늘부」에 가는 勸善懲惡을 말
 하는 우리 民族의 古談이지마는 남의
 밤의 꿈이 꿈어 보이는 視覺은 分明히
 늘부의인 思考方式이다. 그런데 視覺
 이란 人間이 가진 五覺中의 하나로서
 마음 가짐에 따라 그 作用도 달라지
 는 것 같다. 굵다고 생각해보면 꿈이
 보이고 밟다고 생각해보면 밟게 보인
 다. 弱해 보였던 者가 意外에도 強한
 者였고 無識하다고 본 者가 突如에 有
 職한 者였다든 예는 우리가 흔히 經
 驗한다. 그래서 「은은 마음의 거울」일
 지 모른다. 觀相家들이 눈은 보고 그
 사람의 人品을 가려내는 由緣이 여기

反共을 갖자. 卽 그것은 共產徒輩들의 惡辣한 宣戰術을 무찌르는 唯一한 武器이다. 故로 틀만 있으면 그들의 惡行을 모르지는 未成年들에게 反共思想을 注入시켰다.

二, 衣食問題다. 前에는 流行따라 옷을 맞추어 입을려 하였고 돈만 조금 있으면 洋服, 누구를 만났는데는 茶房... 그러나 이제 담배는 화랑으로, 約東... x 百貨店 앞으로 하고 있다.

三, 前장으면 老人이 車에 올라도 窻밖이나 내다 보고 시침을 똑딱딱 내가 지금은 용수철이 무색한 境遇로 잘 일어난다.

사양하는 처하면서 앞으는 할머니 주름살속에 내 마음이 마냥 흐르며 지킨다.

四, 우리는 좀 많이 알아야 하겠다. 트림프를 하며 저녁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讀書을 하는 편이 더욱 좋으리다.

개구장이 조카들에게는 만화「거꾸리 장대리군」을 사다 주었다. 나는 思想界를 사고.

五, 식당에 外上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佛給날이면 全額을 몽땅 주머니에 넣으니 마음이 富者 같다.



一, 職務遂行中 (비밀 문서 打字時) 認知한 軍機密누설 防止.

최 덕 연 문단

(황공은찬)

- 一, 職務遂行中 (비밀 문서 打字時) 認知한 軍機密누설 防止.
- 二, (一) 整소한 服裝.
- (二) 國產品 愛用.

에 있다고 할까.... 내 밥의 콩이 남의 밥의 콩보다 굵어 보이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權利와 義務가 남에게 주어진 그것보다 重大하다고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 民主主義는 남의 밥의 콩이 굵다든가 작다든가에 關心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밥의 콩을 내가 찾아 먹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二, 재밥 그릇 재가 못 찾 아 먹는다

라는 것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權利를 行使 못하는 못난 사람을 鬱鬱한 俗談이다. 재밥 그릇을 못 찾아 먹는 것은 재밥 그릇을 제쳐 놓고 남의 밥 그릇을 넘어서 보는 者와 다를 바가 없다. 權利의 正當한 行使는 뒤따라 보던 하나의 義務의 履行이기도 하다. 남의 權利를 侵犯하는 것이 나쁜 것이 라면 자신의 權利를 拋棄하는 것도 同一하게 나쁜 일이다. 남의 權限에 容喆하는 것이 社會秩序를 紊亂케 하는 者라면 權利를 拋棄하는 者도 이에 못 지 않는다.

社會秩序는 사람 個人이 自己밥 그릇을 自己가 꼭꼭 찾아 먹음으로써 올바르게 維持된다. 自己밥 그릇을 못 찾아 먹는 사람은 自己가 굶는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秩序를 破壞하는 責任까지 져야 한다. 우리는 흔히 社會에서나 職場에서 自己밥 그릇을 自己가 못 찾아 먹는 사람을 본다. 그로 인하여 被害를 上司나 部下, 또는 同僚가 입는 例가 許多하다. 그 被害는 남의 밥의 콩을 노리

는 癖... 다시 말하면 남의 權限分野에 容喆하므로서 惹起되는 被害와 結果의 多를 바가 없다. 남의 밥의 콩을 굶게만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밥 그릇을 재가 못 찾아 먹는 사람은 우선 民主主義 國家의 國民 資格이 없다. 秩序가 紊亂하고 社會가 混亂하다면 이 責任은 兩者가 同一하게 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세악이 터져서 저러니 辨明이 많은 법이다.

三, 콩이로는 太白山, 손에 는 투전장

이라는 俗談은 바로 이런 者를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입만 살고 實踐力이 없다는 뜻이다. 말로서는 太白山이라도 메이울 수 있을 것이 지꺼리 면서도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者를 가리킨 俗談이다. 元來 곧잘 壯談하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實際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니 自然 말쟁을 일으키기 쉽고 失言 食言 失수가 많아서 合宜하는 者라는 評을 받게 된다.

自由黨 時代에 이런 標語가 거리에 나붙었다. <말없는 者의 비이름이 愛國者다> 모두가 이 標語에 贊同하던 서도 事實은 말없는 者를 알아 주려고 드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爲政者나 一般社會가 그것을 強力히 實踐할 것을 勸獎하려는 뜻발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文字를 빌린다면 百言이 不如一踐이다. 自己가 먼저 約束을 해 놓고 自己 스스로가 約束을 履行하지 않는 사람이 흔히 있

는데 이런 者는 太白山은 姑姑하고 재 밥 그릇을 남이 찾아서 가져다 대령해야만 먹는 不誠實한 者다. 革命課業을 遂行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社會가 가장 싫어 하는 사람은 이런 者이다.

「푸들머트는 用語는 꼭하나 뿐이다.」라고 양드레. 지이드가 말하였는 데 우리도 일상生活에서는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必要로 外的 말이 몇갈래 많다. 일상으로 有名한 버나드. 쇼는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必要한 잔소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 데 아무런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음 失言도 많고 食言도 많지마는 이런 사람 가운데에는 虛風쟁이도 많으니 自然 거짓말도 많은 거짓말이다. 食言도 結果의 으로는 거짓말이다.

누가 말없는지는 記憶이 나지 않지 마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뿐만은 아니고, 境遇에 따라서는 適當한 거짓말이 必要하며 이같은 거짓말은 有益한 것이라고 말한 偉人이다. 이것은 事實이다. 참말은 할 수 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는 境遇가 우리의 家庭生活에서나 社會生活에서 때로 있다. 속임으로써 내가 득을 보는 境遇가 아니고 속히우는 相對方이 이 有益한 境遇에 이 거짓말은 社會 道義의 으로 許容된다. 그래서

四, 거짓말도 하나의 方便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俗談이라기보다 格言에 가까운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사람들社會에서 쓰는 말로 記憶되지 마는 우리

(三) 도시락 持參에 第一人者가 되었다.

(四) 愛人과의 메이트場所를茶房에서 들과 산으로 變更(茶값 減) 약.

(五) 三(一) 버스 및 公共場所에서 敬老思想 發揮.

(六) 交通法規 履行(實은 臨時 加算 拘留場이 設이 나서 이지만).

(七) 契를 없애도록 권장했다.

이 순 자 문판

(三一) 職隊人事課



면 좀 잊혀지지만 그제 恒常 마유다저되는 일이 있죠. 軍隊인 만큼 비밀문서까지 檢査가 종종 檢査를 거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몇 번이 고 되새기죠. 비밀누설은 卽 容共精神 이 되고.

二, 可憐한 일을 全然 生覺조차 없었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배가 痛 죽게 드느니, 보리알만 입안에 서 뱀뱀. 도느니 해가며 勞動者나 농사꾼이나 毒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보리밭을 이제 오히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신을 뭐 다행이라 생각하죠.

三, 차 탈때의 多幸이라 생각하죠. 急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속에 끼여 차에 오기만 기다릴 수 있는 忍耐心과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울 수 있는 愛함을 記했습니다.

四 「가시오」 「서시오」 라는 신호는 電氣가 남아 돌아가서 해 놓은 것

나라에서는

五, 男子의 거짓말과 雨傘의 眞意는 언제나 지고 다닐 것

이라 하여 거짓말의 適當한 必要性이 容認되어 있을 상식이다. 한때 우리 社會에서는 거짓말을 洪水가 일어서서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世上이 있어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出世하고 거짓말 잘 하는 작자가 社會의 中心人物이 되곤 하여 마침내는 眞實을 수 없는 社會的 混亂을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體驗한 바가지와 이와 같은 一切의 類撥을 一掃하고 危機에 놓인 國家의 再建을 위해서 五, 一六革命이 不可避하다는 事實을 새삼스러히 想起시키기도 한다.

어름칠의 남자는 확실히 변덕이 많다. 살을 찌는 듯 햇볕이 쏘이느냐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일수이다.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으니 雨傘은 비가 필요하듯이 男子가 世上을 살아갈려면 마치 雨傘처럼 거짓말이 언제라도 必要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俗談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거짓말은 꼭히 必要한 境遇에 限해서 쓰라는 것이지 革命前의 그 어느 때처럼 밤 먹듯이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俗談을 男子는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無妨하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이 俗談의 眞意를 잘못 解得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마치 스담날이 말한 戀愛 相對가 없거든 食母라도 메리고 하라는 것을 戀愛의 相對는 아무라도 無妨하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曲解하는

것과도 같다. 異性을 사랑하는 즐거움이나 피로움은 相對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相對方에서 求해 질 수는 없다는 뜻이다. 참다운 戀愛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明朗해지며 또 勇氣를 가져가 된다. 스담날은 이 아름다움과 明朗한 心과 勇氣가 사람의 生活를 淨化시켜 준다는 점에서 戀愛한 것을 勸獎한 것이지 戀愛를 위한 戀愛를 主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스담날은 戀愛하는 것은 하나의 事業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戀愛를 하나의 遊戲처럼 생각하는 요즘의 一部 사람들에게는 좋은 警告인상이다.

戀愛를 勇기 한다다는 것은 정말 스담날의 말처럼 어려운 事業과도 같다. 戀愛가 여러가지 悲劇을 자아내는 예가 많다는 것은 이것을 立證하는 것이라 할까! 그래서

六, 戀愛는 잘 드는 面刀 칼과 같다

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戀愛는 달콤한 포도주와 같다는 말도 있다. 잘 드는 面刀와 같은 잘못 쓰면 다 치기가 쉽고 달콤한 포도주는 過飲하기가 쉽다. 戀愛가 빚어내는 悲劇들은 모두가 그 잘 드는 날에 다 치거나 그 달콤한 甘味를 過飲한 것이다. 出發時부터 健全치 못한 戀愛의 結果라고나 할까? 孔子도 中庸之道를 德의 至高라 했거니와 달라고 해서 過食하면 病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七, 술도 適量은 藥이 된다

는 말이 생겨났다. 술이나 배는 것이 아니라 過飲하기 때문에 恒常 藥性이다. 人參 鹿茸도 過食하면 藥이 病으로 轉身한다. 우리의 個人生活이나 社會生活도 이 適量이 要領이다. 無秩序한 生活, 社會의 混亂은 이 適量의 均衡이 깨트리진 않, 바란스라 할까. 藥애기가 나오니

八, 藥은 쓰다

라는 俗談이 생겨난다. 옛날의 藥은 모두가 쓰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지만 오늘날에도 藥은 種類가 많은 것을 볼 때 쓴 藥의 屬性(?)인가 보다. 勿論 맛은 쓰나 그것이 몸에 利를 주는 藥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쓴 말을 苦言이라고 하고 藥이 되는 말은 쓰다라는 俗談도 있다. 또 우리의 流行歌에도 引用된 것으로 생각되는 八스면 배알고 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모두가 人間의 常情이다. 그러나 쓴 것을 먹어야 할 境遇가 있고 단 것이라도 藥이어야 할 境遇가 많은 것이 人間이다.

생각하면 아무도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달갑게 여겨지는 苦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드는 일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眞正 이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感謝해야 하겠는 때 세상 사람을 가운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爲인이 드물다. 이것도 人間의 常情이지... (眞正한 親友)은 第二의 自己다. 라고 말한 세스피어가 苦言을 親友와 結付시켜 이렇게 말했다. (眞正한 親

이 아니니 제발 交通信號를 無視할라
는 것, 교통 신호가 있다 없나 살피고
는 아무데나 횡단 하는 양태가 되지
말라고 同生들에게 제삼 부탁.

五, 월 三회 정도 가던 구장을 회
로 주리고, 조금 편하다 하여 타고 다
니던 합승을 전차나 버스로 바꾸기로
했죠. 말하자면 必要以上の 준비를 남
비않도록.

吳桂子文官
(第十一戰團飛行團)



「술취하게 답한다
면 에 날에는 반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보
다 무관심했다고 할까
요?」 그러나 혁명이후 많이 알게 되
었어요. 四, 一九이후의 여타가지 사
회문제 특히 학생들의 「판문점」으로
간다고 의치는 일들이 왜 생기게 되
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
으로 이 문제들을 좀 더 알아 보겠어요.

「판문점」 방침이니 기밀이니 하는
것이 어디나 소중한 일인지도 새삼스
럽게 느껴졌어요.
二, 단순한 처의 생활이라 큰 변화
라고는 있을 수 없었지만 우선 교통
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또 경제적이거나 건실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플랜)을 세우고 있었어
요(지면이 허락치 않아 공개 않겠습
니다). 특히 지나나 체외라고 생각하
실분은 계절적 모르겠으나 평평한
생활을 위해서 또 적장을 가진 여성
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또한
가지늘이 좋은다면 저는 간편한 작

友란 苦言해 주기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
苦言을 眞心으로 고맙게 여겨 받아들
이는 사이이다(라고). 우리 俗談의

九, 眞正한 親舊는 앞을 본
얼마지기와 바꾸지 않
는다

九, 眞正한 親舊는 앞을 본
얼마지기와 바꾸지 않
는다

다는 말과 相通되는 상 싶다. (印度를
잃어 버리고 세스피어를 잃을 수는 없
다)고 하라드 세스피어를 무척 아끼는
英國의 名醫은 좀 거창스럽지만 참
된 벗이라면 門前玉趾라도 바랄수 없
다는 이 俗談은 사람의 心算을 찌르
는 맛이 있다. 정말 眞正한 벗은 (第二
의 自己) 門前玉趾가 아니라 生命
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다. (親舊파라
江南잔다)는 말도 있거니와 이쯤 되
어야 이른바 親舊라 할수 있지 않겠
는가. 이런 벗을 가진 사람은 얼마
나 幸福할까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
런 벗을 가진 사람이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親舊에 관해서 公算
이런 말을 한다. 「그 親舊, 平素에
한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자기야 必要하
거나 急한때 꺼리점이지 아가와서 야단
법석을 치진다」고 하려 못마땅하게 여
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親舊에 비
해 유카지 한다. 이같은 不平은 果然
옳을까? 생각하면 잘못일지도 모른
다.

참된 벗이기에 平素에 찾을 必要는
없다. 眞正한 親舊이기에 必要할때 그
리고 急한때 꺼리점이지 아가와서 야단
법석을 치진다」고 하려 못마땅하게 여
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親舊에 비
해 유카지 한다. 이같은 不平은 果然
옳을까? 생각하면 잘못일지도 모른
다.

分數說는 勇進

중주 晋나라 때 (二六五—三一七) 勇
將으로 後日 平西將軍의 稱號를 받은
周處라는 사람은 젊었을때 무더 兇장
周處라는 사람은 젊었을때 무더 兇장
周處라는 사람은 젊었을때 무더 兇장
周處라는 사람은 젊었을때 무더 兇장

어느 때 동리 노인 을 보고
「올해는 드물게 보는 豊作이라고
하는 데 왜 드물든 우물만 일할것을 하
고 있는 지 물어 보았오. 그랬더니 그
하고 물어 보았오. 그랬더니 그
하고 물어 보았오. 그랬더니 그
하고 물어 보았오. 그랬더니 그

「말하기 거북 하지만 자네세」
「종소 그렇다면 그것을 모조리 없
애 버리려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호랑이를
射殺하고 지네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卽一年 동안 謹慎을 하며 오직
학문에 열중 하였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벼슬에 올라 御

대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원망
말지이다...
누구나 일이 생기면 必要한 사람을
찾는다. 平素에 찾지 않는 것은 無事
히 잘 있다는 消息이다.

史中 丞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官吏
의 非違를 가려내는 벼슬아치가 되었
는 데 그는 딱 치는대로 상대방의 不正
을 假借없이 摘發하였기 때문에 모든
官吏들로 부터 많은 榮譽을 받았다.
그가 西南地方의 蠻族이 謀反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 謀反을
뜻이 平素에 그물 미워하던 者들의
蠻族의 征伐을 그에게 맡겨 혼을 내
줄려고 일을 꾸민다. 그때 伏波將軍
이라는 稱號를 가진 孫秀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陰謀를 看破하고

「내에게는 言은 어디나 계시니
이것을 辭讓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나 자기 싫어하는 성미의
그는 「그런일에 구애받기는 싫다」하
고 우겨 용기 충천하게 出陣하였다.
그러나 생각하기 보다는 強敵이어서
戰鬪는 始終 不利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退却함이 좋겠다고 勸告하는 部
下도 있었으나 그는 일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罪證門에서 나온 사람이다.
죽는 것을 怯을 내 내가 아니다」하고
氣高萬丈하게 앞으로 나가다가 드디
어 戰死하고 말았다. 그래서 反對派
들의 陰謀에 걸려든 바 된 것이다.

十, 無消息이 喜消息

이다. (無言이 보다 더 強力한 發言)
을 意味하는 境遇가 있고 (行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行動)이라고 한 앙드
레 지이드의 말처럼 이런 境遇의 無
消息은 하나의 消息인 것이다.

인복을 입기 보았어요. 피 권리래요.
三, 평소부터 항상 조심하는 일이
라 별로 많을 드릴 것이 없어요.
四, 하나 하나의 자정이 명량한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좋은 기풍을 자랑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드
라도 자중을 부리지 않고 가솔거리서
로 의논을 해서 해결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五, 가난한 생활이라 해서 고칠 여
지가 없군요. 하지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볼 겁니다. 현
재의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저축한 건
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수입으로
서 가능한 제일 좋은 방법을 개발차
토지요 하지만 아직 서둘러서 탁상공
논인 때가 많아요.

정 준 자 문관

(十職飛)



一, 평화하게 요절하
내서 이어나가고 내분을
수 없어요. 하지만 처음
일어나다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어요.

二, 우선의 북부터 간소화했어요.
다음인 중의 활동적이 더 실용적인 신
발을 신겼어요.

三, 외의 관념이 퇴화한다는 게 선조
들에게 미안스러운 지경이에요. 우선
이른을 긍정하려고 마음먹었지요.

四, 우선 부드러운 말씨와 단정할
결정거리가 좋아졌어요.

五, 가계라고 할 수 없지만 단정 조금
이라도 派養하고 생과 되는 건 하지 않
기 보았어요.

門前玉초과도 바랄 수 없는 親善—
革命前 우리 社會風潮가 極度로 頹廢하
여 이터한 親善가 存在할 수 없었던
것은 슬픈 일이었다. 親善을 親신적
처럼 깃발을 들었었다. 親善을 中
傷謀陷하여 自己出世에 利用하는 가
런 親善을 팔아서 賤賤한 기를 얻
는 族屬이 있기도 했다. 생과하면 이
나라 社會의 모든 腐敗와 舊惡을 一
掃하고 頹廢한 國民道義와 民族正氣
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는 먼저 朋
友의 道가 振作되어야 할 일이다. 우
리의 舊惡가운데에는 이미 그것이 하
나의 버릇으로 되어버린 것이 없지 않
으니 이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다
들여난 生活革命이다. 버릇이란 習慣
들이니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 같다. 그
데서

十一, 세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俗談이 있거니와 나쁜 버릇을 고치
려면 非常한 覺悟와 手段-革命的인
아니고는 어렵다. 며칠전 라디오의
「다음의 생애」에서 버릇에 대한 얘
기 있었다. 한가지의 나쁜 버릇을 고
치려면 한가지의 나쁜 버릇이 따라서
쳐지고 한가지의 좋은 버릇을 길러면
열가지의 좋은 버릇이 따라서 길러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全然
버릇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萬一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은 뭐이나 無味乾燥한 人間인지도
문다. 단지 우리가 가려야 할 것은 좋
은 버릇과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이
고 그 버릇의 影響이 自己一身에 局
限되는 것까 他人에게 미치는 것이 있

은 더 좋은 버릇은 좋은 影響을 주는
反面에 나쁜 버릇은 나쁜 影響을 준
다는 점이다.
個人的 나쁜 버릇은 人間革命이나
生活革命이 있어야 하는 데 政治的 社
會的 惡習은 政治的 社會的 革命으로
만이 가능한 것 같다. 四, 一九革命은
亦是 政變이었고 五, 一六革命이 진
짜 革命이었다는 것은 革命後의 亂기
산 庶政의 改革이 立證하고 있다.
世界各國 各民族 各人種의 固有
버릇을 紹介할 紙面은 없으나 革命後
의 社會의 痼疾이었던 舊惡이 하나하
나 剷除되어 가는 現象은 이나라의 앞
전에 세 希望을 비취주는 것으로 저
히 반가운 일이다. 사실 五, 一六以
前까지는 나쁜 버릇만이 늘어만 가서
저지러였다. 슬 버릇 나쁘기로는 韓
國사람이 世界에서 第一位이지만 요
즘은 明洞의 밤거리만큼 安心할 수 있
다. 그런 때 슬 버릇쯤 그래도 참을 수
있다. 李朝의 四色派의 버릇은 그
오리를 解放後에 까지 버리지 못한 남
아저 民主政治의 原理인 輿野의 協同
精神을 姑捨하고 그처럼 불고 불기만
일상다. 四, 一九後의 民主黨政治는
派爭의 絕頂에 이르러 五, 一六革命
이 아니었으면 나라를 亡절했으리라
정말 이따위 버릇은 개에도 소에도 못
터우어서는 안 될 버릇이다. 派爭, 派閥,
宗派意識은 民主主義의 根本인 協同
精神의 敵이요 이 協同精神의 發揮을
強力히 요구하는 革命課業의 遂行過
程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斷乎히 切
斷手術을 敢行할 일이다.
勿論 某某黨에도 政治的 社會的
惡 버릇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十二, 뉘들이 밤아야 아랫을

이 많다

俗談의 眞理를 물었던 것일까?
아니 세 살만 어린아도 알고 있는 이 俗
談을 도를 理 없었다. 率先垂範 먼저
履行해야 한다는 實踐力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와 같은 警告는 마치 허 참
은 正장의 바람 風字 發音과 같았기 때
문이다.
옛날 어느 書堂에 허가 짧은 漢文
先生이 있었다. 그는 허가 짧아서 바
람 풍자의 發音을 바람 뽕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다. 書生들은 先生님의 發
音을 따라서 바람 뽕으로만 읽는다.
정장은 바람 뽕이 아니고 바람 뽕이
라고 화를 내면서 是正하기를 하나
「뽕」이 아니고 「뽕」이다. 自身들은 온
갖 不正과 狹雜을 일삼으면서 部下職
員들에게도 官紀肅正을 아무리 부르짖
어도 바람 뽕이 바람 뽕으로 들리는
것은 當然한 노릇이었다.
五, 一六革命은 뉘들이 깨닫지 못
아졌다. 이 俗談의 眞理는 五, 一六
革命에서 그 實證을 얻어 아랫들의 뉘
아짐이 허우 허우 눈에 띄우게 되었다.

世界의 新聞 이야기

①

金基漸

瑞典篇



瑞典은 約四十五萬平方키로의 面積으로 英國本土의 約二倍인 國土를 가진 富裕하고도 理想의 나라로 世上에 알려지고 있다.

이 나라의 넓이와 形狀은 美國「캘리포니아」州와 相似하며 該國人口의 約三分之一에 도 못미치는 近七百萬가량의 人口로서 우리나라에 比해 人口密度가 아주 낮은 나라라 하겠다.

그리고 文盲者만 不遇 人口의 一乃至二%밖에 안되는 文明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瑞典에서는 新聞讀者가 많으며 百名當 五〇部라는 新聞購讀率은 美國과 英國의 中間의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

即이나 나라에는 約一六〇萬에 아리는 新聞과 總發行部數約三百五十萬部的 日刊紙가 「스톡홀름」과 「에스테르」의 兩大都市를 中心으로 全國約五十個都市에서 發行되고 있다.

逸語로 된 新聞이었으며 이것은 十七世紀 前半期에 있었던 三十年戰爭時 獨逸領土內에 占領軍을 指揮하며 駐屯하고 있었던 瑞典王「구스타프」二世인 「아돌프」가 이 地域을 對象으로 發刊한 新聞이었다.

그리고 瑞典語로서의 最初の 新聞은 一六四五年에 創刊된 「오디나리 포스트」(Ordinari Post Tid-ender)이며 이 新聞은 一八三一年의 「포스트-우크 인리케스-티덴」(Post-och Inrikes Tidningar)로 改題하여 오늘날까지 發刊되어 오고 있다.

現在에 있어서는 廣告를 主로 取扱하고 있어 그 收入의 大部分은 노벨文學賞의 施賞으로 有名한 瑞典「아카데미」에 寄附되고 있다.

十八世紀에 이르러서도 二三個의 獨立紙가 活氣를 띄고 있었으나 近代瑞典의 黎明期라고 볼 수 있는 一八三〇年 때는 마침 佛蘭西에 있어서 七月革命이 일어났 해, 여기에 刺戟되어 革新的 思想을 가진 젊은 官吏인 「자르스」요한, 헤일터「르」가 「아후론보과넨」(紙를 創刊하였으나 이 新聞은 뉴-라와 더불어 明確하고도 銳敏한 論調로 그 의見을 讀者에게 널리 알리므로서 當時의 貴族政治에 反對하여 「一般民衆을 民主的이며 人道主義의 改革에로 引導할 것을 目的하였던 것이다.

이 新聞으로 말미암아 幾어년간 政治的 關心으로서 當時 瑞典國內에서는 많은 新聞이 繼刊되었던 것이다. 今日에 이르러까지 繼續되고 있는 新聞은 不過 몇 個紙에 그치고 있다.

勿論 新聞이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部門에 걸쳐 社會의 公器로서

各角度로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政治問題를 自由로 다루기 爲해서는 新聞의 自由, 言論의 自由를 保障할 만한 法的 根據가 뒷받침하게 마련이며 또한 마련되어야 하겠다.

瑞典같이 報道的 自由가 法律로써 完全하게 保障되어 있는 나라도 아마 別로 없으리라 믿는다.

瑞典의 憲法은 出版에 對한 事前干渉을 禁하고 있는 同時에 公文書의 無制限의 公刊을 規定하고 있다. (第八六條)

그리고 國會는 「聰明하고 學識있는」 六名의 委員과 그의 長으로 된 司法監으로서 構成되는 出版自由委員會를 四年마다 任命하게 되어 있다. (第一〇八條)

瑞典 最初の 新聞法이 採擇된 것은 一七六六年이며 이 法은 新聞의 自由保障의 大義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

十八世紀에서 十九世紀 初期에 걸쳐 一時的이나마 絕對 君主政治의 強壓을 받았으나 一八二〇年과 一八一二年에는 「新聞의 自由에 關한 法令」으로서 새로운 法律의 原則이 確立되었다.

第二次世界大戰中은 다른 民主主義國家와 같이 國際情報機關이 設立되어 이것이 新聞例에 對한 設得과 國民의 宣傳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政府는 國民의 大多數가 支持한 中立政策을 지키기 爲해 新聞發行社의 聯合團體와 協調하여 「나치」傾向의 新聞論調의 緩和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政府는 瑞典에서의 世論의 自己統制力 缺如는 政府의 中立政策에 妨礙하지 않다가 言論의 自由에 直接干渉하여 그 結果 三百以

上에 達하는 發賣禁止 處分까지 하게 이르러 비단 新聞紙만 아니라 「反나치」色彩가 強한 몇個의 出版物 郵送 및 鐵道輸送을 禁止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戰時中의 辱罵 經驗을 살려 새로히 一九四九年에 新聞法(Press Act)을 制定하였는데 이것은 二會期에 걸친 國會의 贊成있는 變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新聞의 編輯內容에 對한 責任은 署名記事에 이르기까지 發行責任者——編輯局長에 있다는 것이 明白히 되어 있으며 警察이나 法廷에서 뉴스의 「조이스」를 밝히는 것을 禁하고 있다. 그러나 反逆罪나 名譽毀損罪는 例外로 되어 있다.

法律로써 新聞의 自由를 高度로 保障하고 있는 瑞典의 新聞人은 新聞人으로서 職業의 尊嚴維持와 그 意見에 對한 信賴性을 높이기 爲해 어떠한 方法을 取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다면 瑞典의 日刊 新聞社에서는 到處의 揭示板의 「퍼블리스트르판」(Publicists' Libben)의 倫理綱領을 부치 놓고 있으며 이것은 卽 新聞人의 同業團體의 守則같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新聞倫理委員會같은 新聞言論人 團體의 新聞倫理綱領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 綱領은 記事作成에 있어 新聞人이 留意한 事項을 明示하고 있다. 한 便 新聞紙上으로 不當한 取扱을 받았을 때 「프렛셀스 오피나노 비임은드」(Pressen's Opinionsfund)라는 英國의 新聞評論會와 恰似한 組織이 있어 여기서 處理하고 있다.

이 評論會 構成은 前記한 「퍼블리스트, 트르판」과 瑞典 新聞發行者協會 그리고 新聞記者聯盟에서 各各一

△앙케이트▽

최근에 읽은 感銘깊은 책

- 設 問
1. 책 이름
 2. 著 者
 3. 대략 내용(百字以內)
 4. 讀後 感(百字以內)

민 병 의 소령 (三十警報職隊)

1. 完全한 結婚(Living in Balance)
2. 프랑크·S·카프리오
3. 현대 생활의 압력과 긴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신경증과 精神的 障害을 가져 오게 하여 일반의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오늘날 精神醫의 治療를 必要로 하는 神經症의 患者가 一千萬이나 된다는 事實은 이것을 證明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專門醫의 치료를 받을 만한 經濟的 餘裕가 없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우리의 계기운을 내게 하는 바는 신경증인 사람들은 대개가 自己療法을 할 수

박 산 찬 대위 (함흥분창)

1. 反抗의 人間
2. 알렉 카푸
3. 佛蘭西大革命以後에惹起된 反抗 思想을 體系的으로 分析하며 따라서 그 속에서 참다운 인간적이며 創造的인 反抗을 찾아 낸다. 不條理와 自殺을 關聯시켜 이것을 宗教를 포함하는 政治, 經濟 또는 社會問題에 까지 關聯시키고 있으며 특히 主人과 노에 사이에 있어서 노예의 反抗狀態를 위치하여 反抗은 모든 人間에게 最初의 價値를 만들게 하는 共通的인 態度로 이끌므로서, 反抗으로 하여금 人間의 存在意識의 出發點을 이룬다.
4. 이 作品에 對해서 寸評하기는, 특히 二百字 以內에서 寸評하기에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다.

劉 哲 鍾 大尉 (七航保團 通信部)

1. 獨創力을 기르라(Applied Imagination)
2. Alex F. Osborn
3. 著者인 A·O·소븐(博士)은 美

있다.

瑞典에는 政治的인 「크라부드」 없
고 政治問題를 다루는 雜誌도 눈에 띌
程度의 것은 없애 이 나라의 政治의 中
心은 오로지 新聞紙上에서 다루고 있
다 하여도 誇張은 아닐상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時는 新聞用紙難을
免치 못하였으나 今日에 있어서 用紙
價格은 多少 昂騰되었다고는 하겠지
만 瑞典신문의 外觀은 아도레도 用紙
生産國의 實錄을 如前히 보여주고 있
다.

말하자면 餘裕있는 紙面과 組版 그
리고 高價도 亦是 크게 다루고 있으
며 新聞 頁數는 一般的으로 「스투호
르프」紙가 二〇三〇頁, 地方紙라도
十二十六頁 程度이며 購讀料는 日
刊紙 一邵當 年間 八弗乃至 十四弗
(美貨換算), 韓國은 一萬圓 一萬圓
乃至 一萬五千圓의 日購讀料는
平均 千圓程度로서 우리 나라 新聞購
讀料의 比해 그야말로 廉價인 것이다.

그리고 瑞典 新聞記者의 一般的 記
事作成的 傾向은 用紙難의 經驗으로
英國記者의 戰時戰後의 經歷로
한 極端의 壓縮된 記事作成的 技術
은 있고 이것을 앞으로 報道의 客觀性을
尊重하고 있고, 또한 文體修飾의 點
에서 平凡한 報道에도 무엇이든 「의
센트」를 집어 넣어서 注目을 자아내고자
하는 傾向이 있다.

內容으로서는 뉴스, 論說, 運動,
婦人과 家庭面이 많으며 「스투호
르프」記事와 文化, 敎養記事等에 格別
한 重點을 두고 있지만 國際問題에 關
한 報道 特히 世界情勢를 大局의 見
地에서 다루는 습관은 여전히 發達한
點이 있다고 보겠다.

수년의 苦悶은 사랑에 陷入하게 된다.
最後로 그에게 맡겨진 使命은 憂鬱
地에 있는 鐵橋을 破壞하는 일인데,
그는 勇敢히 任務를 遂行하고 自己
의 同志를 無事히 脫出시키고 「마리
아」도 自己와 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
을 拒絕하고 조용히 機關銃을 잡고
敵을 向하여 불을 쏜다.

4. 「해인제의」 特出한 作品中
에서 도 斷然 優秀하다고 볼 수 있는
데 너무 敘述이 많아서 지루한 點을
주긴 하나 全篇의 흐름은 詩인한 描
寫는 지루한 感을 카버하고도 남는
다. 大體로 文學的 香氣가 드물게
풍기는 秀作이다.

박 태 표 상병

(十一月의 아전정비대)

1. 梅姬
2. 호이스 뉴-다 (郵飛石譯)
3. 一八四〇年 佛蘭西와 러의 事
實을 엮은 것으로서 內容은 여느 타
라한 女性을 貴族家門의 아들(아르
망)의 同情하는 남자가 自己 心을
犧牲하면서까지 사랑하는 反面에 이
여성(마르그리트) 亦是 「아르망」을
眞實로 사랑하게 되어 過去 浪漫生
活을 清算하고 「아르망」을 따라 올
려 健全한 生活을 營爲코자 하거나
生活이 그대로 오래 지속된다면 아
들의 命에 손과 前途가 念慮된다
는 理由로 父親의 強力히 反對한다.
「아르망」을 眞實로 사랑하는 「마르
그리트」는 자기가 犧牲할 것을 결심
하고 放浪의 길을 걸으면서 「아르

망의 사랑의 再會도 거부하고 精神
的으로 旅行中인 「아르망」을 찾으며
結局은 물론이거 別世에 世上을 離
別한 후 「아르망」의 그 무덤에서 檢
梅하게 된다.

4. 豪華로운 浪漫생활을 清算하
고 진전하게 살아가려는 意欲이나
한 男性의 命에와 前途를 爲하여 갖
은 모욕과 苦難을 참아 가는 女子의
犧牲에 感激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社會에도 이렇듯까지
自己를 犧牲하여 남을 爲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 태 영 일병

(三十警報隊)

1. SAYONARA
2. James A. 피슈가
3. 韓國動亂의 參戰하여 數營의
MIG 敵機를 격추시킨 美軍 大將의
勇敢한 아들인 空軍少領과 日本女性
團圓의 美貌의 女人 「하오나기」와의
關係을 超越한 애뜻한 사랑의 記述
이다.
4. 過去の 敵國, 異邦人과의 사
랑에 몰부림 처면서도 데로는 一國의
國民으로서 矜持를 나타 내는 점은
비단 外國人을 相對로 하는 女性의
아니라도 본받을 만한 點이 있다.

2. 나탈리알, 호오손
의 眞實한 안고 밀서하는 群衆
의 眞實대에 오른 젊은 여인은 男便
과 愛情을 잃어 혼자 살고 있는 처
지였다. 그 아이는 市에서 가장 尊
敬을 받고 있는 젊은 牧師와 的 사이
에 딸 女兒로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
지 않는다는 理由로서 方法에 따라
가슴에 두들길 때 A를 달고 암흑의
인생 속에서 수도 말만은 고히 건디는
것이다. 이러한 女人의 忍耐과 거룩
한 生活에 良心의 가책을 느낀 牧師
는 眞實대에 딸 女人을 救하고 대신
수임을 받는다.

4. 잔대처럼 女子를 弱하게 취급
한 作品과는 너무나 對照的이다. 자
기 인생의 怨鬱할 수 있는 牧師와 的
약수를 지키는 純潔한 女人의 끈기
있는 苦難정인 感銘깊었다. 모든 자
랑의 眞實과 眞實이 있을 수 있고 또 眞
實할 수 있는 機會가 있지만 良心을
속이는 瞬間이 전후부 피로움은 큰
것이다.

최 덕 민 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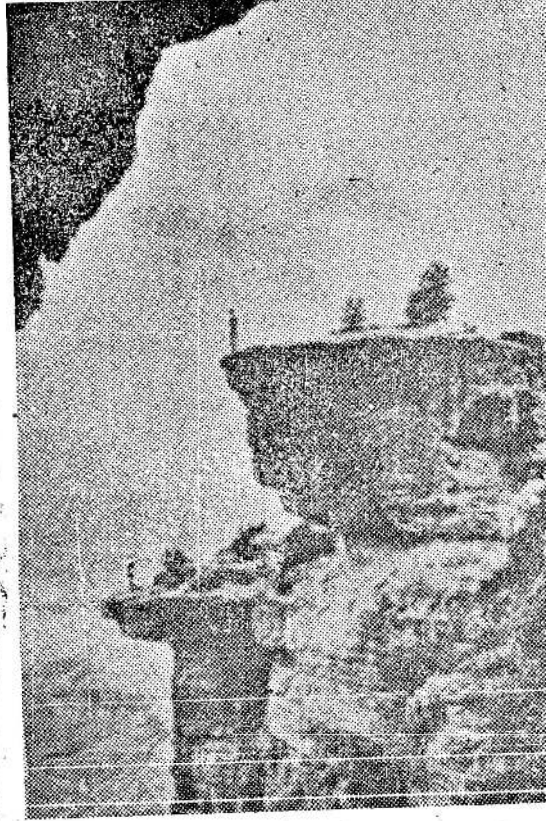
(광동분창 행정관실)

1. 大地
2. 원벽
3. 작실한 中國의 農夫 「왕」은
地主의 苦을 奮트 마지 않는다. 「왕」은
는 합심해서 奮은 아버지를 부양하
며 眞心히 農事를 지었다. 그러나
가슴으로 死境에 處해 情은 땅을 버
리고 남으로 떠난다. 거기에서 우
연히 수많은 보물을 얻어 故鄉에 온
다. 故鄉에서 大地主로서 幸福한 家

그랜드.캐논

— 世界最深의 大峽谷 —

<리차드 하리바톤>



여러분은 시보라의 「일곱개의 도시」라는 傳說을 들은적이 있는가? 그것은 지이 千年동이나 스페인에서 傳해 내려온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약 千年전에 무아인이 지부탈탈海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부터 쳐들어와 스페인을 征服을 하고 대무아帝國을 세웠을 때 이야기다.

많은 基督敎徒들은 亂暴한 무아인들을 避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갔는데 한 사람의 카트리神父와 信者들은 安住의 땅을 찾아 캄캄한 바다가 건너 아득히 먼 서쪽 나라로 건너가 거기서 일곱개의 도시를 발견하고 시보라의 「일곱개 도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後世에 널리 알려짐에 따라 黃金이 축만찬이 세상에서 가장 裕福한 땅으로 일컫혔다.

그후 十五世紀末 콜롬브스가 미국 땅을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 뉴·인도(미국을 말함)야말로 五百年前 무아인들은 피해서 카트리神父와 信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보라이며 「일곱개의 도시」도 불현 찾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黃金에 흠주린 그 당시의 黃金病者들은 몇키로나 되는 길도 없는山野를 쫓질르면서 그것을 찾기에 血眼이 되었다.

一五三九年 그 당시 멕시코에 있던 스페인의 新大陸 總督은 시보라의 黃金을 찾고자 探險隊를 보냈었는데 그것은 지금의 뉴·멕시코州에 該當한다. 그때 土着 인디안들은 探險隊員들에게 北方으로 더 올라가면 三十日 이내에는 반드시 「일곱개의 도시」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자기네들이 찾아 해대는 목적지이

며 멀지않은 將來에 큰 부자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둘렀으며 探險隊長은 案内人과 함께 몇사람의 斥候를 대내서 行路를 찾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일곱개의 도시」를 발견하였으나 亂暴한 土着 蠻族들로 해서 인디안 案内人을 매 놓고는 全部 射殺되었던 것이다.

危機一髮에서 그들의 魔手를 벗어난 案内人은 가카스로 本隊까지 도망쳐와 자기가 겪은 情況을 말하고 시보라는 발견하였으나 軍隊가 없이는 도저히 占領할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隊長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서 황급히 멕시코로 도라가 自初至終을 總督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총독은 지체없이 위대한 探險家로 알려진 코로나도를 불러들여 일곱개의 도시에 가서 亂暴한 蠻族들로부터 黃金을 빼어오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코로나도는 막심하게 교생스러운 旅程 끝에 시보라의 도시에 도달하였으나 거기서 발견한 것은 黃金의 도시가 아니고 七個所의 가난한 인디안部落이었다. 그곳은 오늘날 뉴·멕시코의 코루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 土民들은 코로나도一行을 部落에서 하루빨리 退去시키고자 만약 그들이 바라는 것이 黃金이라면 그것은 西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동시에도 또한 거기에는 크고도 不可思議한 江이 있으며 그 江은 黃金의 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에 사로은 總督과 용기를 얻은 코로나도는 부타사라 돈·로페스·드·칸페나스

士官에게 十二名의 部下를 引率시켜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하여 칸테가스一行은 不毛의 山과 언덕을 넘고 쪼는 듯한 砂漠을 건너 西쪽으로 西쪽으로 無限定 前進하였다. 이 험난한 除險의 길에서 皮膚는 벗었이 거슬러고 목이 타도록 汗복이 涸되고 보니 黃金의 壁같은 것이 浮체가 될 수 없었다. 다만 찾은 것은 물뿐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고 음부림 첫을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砂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 晴天霹靂과도 같이 전혀豫期치도 못한 때 目的地에 도달한 것이다.

그랜드·캐논(譯者註—一九一九年 國立公園이 되었다)은 코로라도州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길고 넓으며 그面積이 廣大한 것을 실로 驚嘆할만한 大峽谷이다. 칸테나스一行은 그 언덕 두리에서 서어안이 범람하며 無言가운 메 얼을 만치다 뿐이였다.

이것은 一五四〇年 即英國에서 「루리구립스·와디」라고 불리우는 新教徒의 一團이 메이플라워號를 타고 新大陸(아메리카)으로 건너오기 八十年 전일이였다.

앞이였다. 六키로나 되는 岩壁은 人인산들이 말한 것처럼 黃金으로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金銀이 黃金과 黃金같이 보여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누르스름한 그림자를 따라 빨강이 푸르스름한 色帶가 넓은 紫色안개속에 깃들고 있었다.

유명한 探險傳記를 쓴 스페인의 歷史家는 그랜드·캐논에 관해서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칸테나스와 十二名의 部下는 변두리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에 三日間이나 걸렸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江幅은 一·八미터도 안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인디언들은 그 五十倍나 되었다고 하였다. 세사람의 部下가 그렇게 험악하였다. 試圖하였으나 試圖해 내려가 불리고 斷崖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三分의 一以上을 내려갈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斷崖 兩側に 있는 바위가 대체로 사람 키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바위를 보고은 사람들은 세비리아 大寺院의 塔보다도 높다고 하였다』라고.

우리들이 다음에 찾아갈려는 驚異는 이 地球에 생긴 굉장한 龜裂이다. 우리들은 모두 그랜드·캐논의 야기를 책에서 읽고 사진으로도 보았다. 그러나 그 언덕들은 이 峽谷이 實際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는 아무 소용도 못된다. 그것은 흡사히 音樂樂을 읽는 것만으로 音樂을 理解한다던지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사진만 보고서 그것을 理解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랜드·캐논을 寫眞으로 보면 오히려 空虛한 것 같아도 보이는 데 現實적으로 一·六키로나 되는 峽谷을 呼르는 江, 十六키로나 되는 溪谷의 兩側 岩壁에 솟아있는 各色의 寺院, 塔, 피라미트의 自然의 造形物, 거기다가 골간계를 물으는 秘境으로 흘러 아름답게 彩色되어 빛나는 江의 水面을 보았다고 하면 그 황홀한 경

八月間時事

韓日會談

解説

過去와 오늘의 狀況

第六次會談

○：韓日間の 國交正常化를 위한 韓日會談은 十年의 歲月이 消費되었 으면서도 아직까지 解決을 본 懸案은 하나도 없다. 第一次會談은 지금으로부터 十年前인 一九一一年十月二十일에 開催되었고 第五次豫備會談이 五·一六軍事革命으로 自然中斷된 것이 一九六一年五月十六日이다. 그間 實質의 交涉要月數가 四一 個月이고 兩國의 政府交際가 八回에 걸쳐 있다. 韓國은 李承晚, 許政, 張勉, 日本은 吉田, 鳩山, 石橋, 岸, 그리고 池田政府이다. 十年이던 江山이 變한다는 말도 있지만 韓日會談은 十年이 지나 가도 實質의 으로는 變換 것이 없다. 이 처럼 會談이 不振한 原因으로서는 勿論 對日財産請求問題 漁業問題 平和線問題 그리고 在日韓人의 法的問題等 雜題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根本的인 原因으로는 日本側의 無誠意에 있다 할 것이다. 日本側의 比較的 積極性을 가지는 問題는 漁業과 平和線問題이고 財産請求權問題에는 더욱이 無關心한 態度를 보여 왔다. 그들의 이 같은 無誠意하고 때로는 妄言까지 發하게 된 動機에는 아직까지 그들이 幾몇이拂拭 못하고 있는 過去의 韓國統治時代의 優越感이 潜在的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日本側의 提議로 再開를 보게된 第三次會談의 財産請求權 委員會席上에서 日本側의 首席代表 久保田이 「日本이 講和條約을 맺기 전에 韓國이 獨立을 宣言한 것은 國際法違反이며...」 「日本의 三十六年間の 韓國統治는 韓國國民에 有利한 것이었다...」는 妄言을 發한 것은 아직까지 그들 머릿수에 자리잡고 있는 對韓優越感의 證據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第四次會談이 四·一九革命으로 自然發覺된 것과 비슷하게 第五次豫備會談도 五·一六革命으로 本會談이 돌아가기 전에 自然中斷되고 말았기 나와 우리 革命政府는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위한 托하 나의 韓日會談을 試圖하였다. 지난 九月二十五日 李東煥駐日 公使와 伊關日本外務 省亞細亞局長과의 合意로서 十月十日 東京에서 第六次 韓日會談을 열 것이라는 發表가 그것

차에 걸려서 말한마디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랜드-캐논은 너무나 거창한 것이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尺度로 이것을 計算하기란 不可能한 일이다. 그랜드-캐논은 처음에 大遊星인 유피타나 사탄같은 것을 위해서 만드려졌던 것이 잘못되어 조그만 地球위로 잦아온 것이나 아님이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機會에 地球로 잦아왔다 하더라도 이 峽谷의 가장 멋있는 景致는 夕陽을 하에 精力배달과 후는 달이 그 은은하게 빛을 있는 빛을 가꾸어 비출때인데 그와같은 경치는 아르디 無心한 旅行家의 마음이라도 壓倒시킴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랜드-캐논에 관해서 길게 쓴다는 것은 시간의 浪費라고 믿는다. 「百聞不知一見」이라고 하였으니 이젠만 그것을 구경하러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도 칼데나스의 一行과 같이 峽谷에 到着하기까지는 荒涼한 高原을 밟기로나 진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다가 칼데나스 一行이 접은 것과 같이 별안간 그랜드-캐논은 나타난 것이다.

우리들도 그곳에 서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된다. 아무것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案内人은 그 龜裂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긴 것이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이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것을 들을려고 하지 않고 또한 신세로 두기 싫지도 않은 것이다. 다만 이때 생각나는 것은 날개뿐인 것이다.

은동물에 올라타고 一、五〇〇미터나 되는 아래 코로라도江(譯者註-미국에서 第四位の 長江인데 全長二千키로)을 向해서 小路를 따라 내려간다. 小路는 斷崖를 헤쳐나가면서 지그자그로前進하게 되는데 兩側의 골짜기들은 自然의 岩寺들은 오랜 歲月에 걸친 風化作用으로써 圓塔이나 작은 巖塔을 세운것처럼 보인다.

이들 岩寺는 모두가 一千萬年以上이나 걸려 만드려진것들로서 이 오랜 세월에 코로라도江은 高原 한복판을 점질 길의 水路를 짜어나가 오늘날과 같은 깊은 峽谷이 되고 비나 바람이 나 自然의 힘이 兩쪽의 岩壁을 두들 두들하게 만든 것이다.

二、〇〇〇미터 높이의 가장머리에 서는 물이 옷싸하듯 즉 寒氣를 느끼게 되는데 半쯤 내려오면 어지간히 따뜻해지고 다시 溪谷 밑으로 가면 쉼 쉼이 더워서 氣溫은 五十度나 올라간다. 이것은 머리위로 二十, 三十미터 이렇게 솟아있는 岩壁이 峽谷 밑에서 密集하여 서로 熱을 反射하기 때문이다.

얼마간 신선해져라고 水泳을 하고 싶어도 강물은 파위나 모래 흙탕물을 뒤섞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니 流勝하는 씨멘트같이 끈적거리니 奔流는 칼데나스 가 말한 것처럼 一、八미터 정도가 아니고 九〇미터나 되는 이 넓은 江에 水泳하려 들어갔다고 하면 눈장작할 사이에 가루가 되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랜드-캐논 사람들은 이 怒號하는 강을 단단하게 만든 작은배에 몸을 依託하고 걸다란 輪狀을 奔流와 약화같이 싸우면서 이쪽 기슭에서 저쪽

이다. 이 第六次 會議이 어느 程度의 成果를 가져올지는 豫斷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革命政府는 日本의 誠意있는 態度를 바라고 있으며 그 말이 誠意만 보여준다면 十年來의 苦는 懸念을 急速한 時日內에 解決하고 韓日間의 國交正常化를 實現시키기를 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모로 觀察해 볼때 今次 第六次 會議은 過去の 어느때 보다도 會議을 進展시킨 몇가지의 好條件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가 東西兩陣營對立의 激化가 韓日間의 國交正常化를 促求하는 要素가 되어 있다.

둘째로 第五次 豫備會議이 五·一六革命으로 中斷되었기는 하였으나 事務的인 討議를 넘어서 政治協商으로 移行할만한 地形을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고 셋째로 革命政府가 좋은 意味에서 會議打開에 대한 誠意가 어느때 보다도 強하다는 點을 보여주고 있으며 넷째로 國內 政治態勢와 國民의 態度健實性을 가지고 있다는 點이 더 다섯째로 케네디 大統領의 朴議長 招請이 韓日會議의 早速한 展開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이라는 展望이다. 萬若 第六次 會議의 第一段階가 成功하면 韓日 再首腦級の 頂上會議의 可能性도 있다는 外交專門家들의 觀測도 있다.

◇ 韓日關係十年의 歷史

第一次會議 第一次 韓日會議이 開演된 것은 一九一一年 十月二十日 韓國側의 提議로 東京에서 열렸다.

이 會議에서는 日本占領聯合軍最高司令官 齋藤實과 參謀 齋藤實이 第一次會議 때 日本은 韓國動亂으로 인한 이른바 特需景氣 속에 있었으며 이 같은 好景氣에 醉했음인지 非妥協的인 態度로 一貫하였다. 在日韓人問題에 있어서 日本은 同年十一月一日에 發効한 出入國管理會令을 내리고 在日韓人에 對하여 여러가지 制約을 加하였다. 漁業問題의 討議는 그들

이 아직 아무런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는 口實로 拒否하고 財產請求權問題는 在韓舊日本人의 財產權을 要求하여 끝내 풀리지 않음으로써 翌年 四月二十一日의 會議의 決裂動機가 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事實은 日本은 所謂 韓日合併條約의 是認을 前提로 하고 있었다는 點이다. 韓國은 勿論 韓日合併條約이 實是 認할 수 없는 것이다.

第二次會議 一九五三年 四月十五日에서 同年 七月 二十三日사이 에 開演된 두번째의 會議은 日本側의 보다도 無誠實한 態度에 依해서 何等的인 進展이 無期休會되고 말았다. 第二次會議은 當時 聯合軍總司令官였던 크라프將軍의 招請으로 訪日한 李承晚 大統領이 吉田首相과 會議 結果 大기를 반對하였는데 第一次會議 決裂後 卅一年만이 되었다.

그러나 日本側은 在日韓人들의 前科者와 極貧者에 대해 強制退去命令을 내리는가 하면 韓國이 이의引受를 拒否하자 日本側은 無條件長期拘束하는 暴舉로 나섰다. 또 平和線問題에도 아무런 誠意를 보이지 않는 態度를 보이므로 韓日政治會議가 開演될 무렵 이에 關聯되는

기습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 리공을 征服한 사람들 가운데서 最初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미국 군인인 포일少領이 있다. 포일少領은 一八六九年에 이 倭業을 成就하였다. 缺谷은 포일少領으로 하여금 크게 감탄케 하였다. 그는 코로라도江에 關해서 그 모든 것을 探險하고 연구할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무서운 물줄기를 勝利로 利用하며 또한 制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南北戰爭에서 한쪽 팔을 잃었는데 그것은 不自由한 몸을 가지고 코로라도江上流에 작은 배를 띄워 아지어면사람도 試圖해 보지 못했던 그랜드-캐논의 全行程의 航行을 결심하였다.

처음에 포일少領이 이計劃을發表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無謀함을 說明하고 中止시키려 하였다. 기습가장머리에 서서 보면 江은 앞은 部分을 향해서 무서운 힘으로 落下하는 위험한 장소가 있었다. 인디안들은 江이 때때로 變질의 水路로 改變되어지나만 濁流에 휩쓸리게 되면 두 번 다시 살아나올수 없다고 斷言하였다. 그러나 포일少領은 여러사람들의 忠告에 一切를 기우리지 않았다. 그리고 포일少領을 비롯하여 아홉사람의 乘務員은 一隻의 보트에 分乘하여 缺谷으로부터 數百기로 北方에 있는 와이오밍州에서 이 영웅적인 冒險을 개시하였다. 九十日동안 이 용감한 小艦隊는 希望에 넘친 가운데 무사하게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航行해 갔다. 뱃도는 濁流와 奔流속을 돌고 나가 瀑布

위를 지나 작은 배들은 亂暴하고도 無慈悲한 물결에 타고 내려갔다. 아마 이마하게 울려 퍼지는 강물소리는 곧 저울지 물결 일이었다. 보이드가 뒤집히고 준비해온 道具나 식량은 것은 몇일씩 물에 채이쳐로 내버려졌다. 乘務員들은 百回以上이나 죽을 고비를 死하였다. 그러나 이제 새삼스러히 들이선수는 없는 일이었다. 실사 救援을 請하는 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하더라도 누구하나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

아홉사람의 乘務員은 隊長인 포일少領만큼 意志가 굳지는 못하였다. 그중에 세사람은 다른사람들과 같이 十二週間に 걸친 必死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이상 이와같은 苦難을 견디지 못하여 버리고는 미처 버릴 것이란 생각한 끝에 보이드를 버리고 同僚들을 떠나 一六키로나 되는 絕壁을 가사로 기어올라가 위에 있는 高原地帶에 到達하였다. 말로고 圓錐山의 砂漠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락이나 이룬 담고 친근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살았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눈곱과 할사이었다. 완전히 저쳐 누초가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불쌍한 落伍者 세사람은 드디어 모든 白人에게 不信과 노여움을 품고 있던 인디안들의 손에 무참히도 죽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죽고 바로 그날 포일少領과 여섯명의 乘務員들은 몇번이고 死境에 이르렀음에도 잘 이겨내기를 전하여 조용히 흐르는 下流까지 缺谷南쪽 入口에 무사히 到達할수가 있었는 것이다.

韓國의 國際的情勢를 觀望한 중심이 있는지 突然 休會를 提議해움으로서 無期中斷되고 말았던 것이다.

第三次會談 第二次會談이 決裂된 後 韓國은 一層 對日強硬政策을 취하게 되었다. 平和線을 強化하고 使犯하는 양은 日本漁船을 拿捕하였다. 日本이 第三次會談을 提議해온 것은 五三年十月六日 바로 이때였다. 그들은 續續 檢舉되는 日本漁船問題를 解決한 心算이 있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번제의 이 會談도 不過 三週日로서 幕을 내게 되었다. 久保田代表가 委員 席에 있었던 議의 財産請求權案發한 것이었고 同發言을 取消하라는 韓國側代表의 要求를 無視함으로써 우리代表團은 同年十月二十一日에 退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久保田의 妄言은 韓日會談을 滿四箇年間の 空白을 만드는 直接의인 動機가 되었다. 우리 韓國은 如何한 境遇에 처하였나. 이 取消되지 않는 限 韓日會談의 再開를 願치않는다는 硬固한 態度를 貫했던 것이다.

第四次會談 第四次會談은 五七年十二月三十一日 藤山日外相이 久保田發言을 取消하고 對韓財産請求權을 撤回하는 同時 大村收容所의 韓國人을 釋放하며 韓國은 釜山에서 刑期를 마친 日漁夫를 送還한다는 金裕澤駐日大使와의 文書에 署名함으로써 達成이 되었고 翌五八年四月十五日 滿四箇年間の 空白期間을 止揚하게 되었다. 그러나 會談이 開催되자 日本은 그目的이 第二次會談과 同一한 平和線 漁業問題에

있음인지 韓日會談의 가장 焦點의 隱案인 對日財産權問題는 忘避해가면서 漁業問題에만 積極性을 表示하였다. 이 會談이 繼續되는 동안 日本은 在日韓人을 北韓으로 送還하는 問題를 北傀와 論議하고 있었다. 日本이 韓國側의 意見을 無視하고 北韓送還을 決定하게 되자 韓日關係는 惡化되어 五九年一月自然一時 中斷하는 運命에 達하게 되고 이 中斷한 關係는 在日僑胞의 北送問題가 契機가 되어 在日韓人問題는 惡化를 거듭하여 韓日間 緊張造成이 漸高되자 이의 緩和을 위하여 八月十二일에 續開되었으나 이렇다 할 進展이 三・一五正副統選擧와 四一九革命으로 會談은 自然 無期休會에 들어가고 말았다.

第五次豫備會談 四・一九民主革命으로 誕生한 張勉政府는 李承晚 外交의 解氷期를 가져와서 韓日關係에도 하나의 轉機를 가져왔다. 九月六日 日本의 小波外相의 訪韓이 韓日關係의 劃期的 好轉을 가져와서 豫備會談을 十月二十五일에 東京에서 開催하고 서울에서 本會議議를 開催하는 데까지 合意가 이루어졌다. 東京에서 開催된 豫備會談은 저지않는 進展을 보였다. 平和線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漁業協定締結 交渉이 進展되었고 財産請求權問題는 우리側의 要求額과 證據資料가 提出되었고 在日僑胞問題는 다른 懸案問題가 進展되던 때라서 具體的 合意에 이를 수 있는 段階에 까지 交渉되었었다. 이 豫備會談은 五月中으로 終結지를 豫定이 었다. (X)

三個月

英國空軍의 不屈의 鬪魂——



緒言

第二天世界大戰의 分水嶺은 英國本土 攻防戰이었다. 一九四〇年 七月부터 十月에 전진 불과 十二週間の 싸움이 그 후의 戰局 그리고 英國과 全世界의 運命의 轉機가 되었던 것이다.

一九四〇年 四月 丁未, 希特勒에 侵入한 나치獨逸은 다음달 五月에는 南쪽으로 轉進하여 白耳義, 和蘭, 露墨, 불그 三國을 侵攻하여 佛蘭西로 進擊을 開始하였다. 그리고 한달후인 六月 十日에는 伊太利가 參戰하고 二十二日에는 佛蘭西가 降服하였다.

歐羅巴 거의 全城이 獨逸軍에게 捲되었으며 美國은 아직 參戰하지 않았을 때라 나치獨逸軍의 重壓은 總體적으로 英國에 向하여, 獨逸軍의 進擊을 阻止하는 것은 다만 英佛間에 가로 놓여 있는 도나바海峽 뿐이었다.

實로 大英帝國의 運命을 堵한 超非常의 戰局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英國人들이 眞價를 발휘한 時機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런던市民들은 連日 連夜의 大空襲에도 조금도 용기를 잃지 않고 不屈의 鬪魂으로 對敵하였던 것이다.

고난을 전디어 나가는 엄숙한 얼굴들, 그런 가운데서도 유모아를 잃지 않고 頑固하면서도 따뜻한 情과 親切味를 지니고 있는 그들, 그리고 骨髄까지에 征服되지 않는 者의 矜持가 배여 있는 그들, 大空襲下의 特異한 聲 활과 여기에 따르는 恐怖 그리고 모든 싸움과 動搖에 전디어 英國國民들은 卽刻 그런것들에 適應하였다.

저—칠氏は 그의 大著「大戰回顧錄」

防空救國

— 第二次大戰時 防空戰線에서의 —

一九四〇年七月十日 英佛海峽 上空에 侵入해 온 나치스 獨逸空軍 戰線聯合 大編隊에 三臺의 英國空軍 하리케인機가 勇감히 應戰함으로써 英國本土를 둘러싸고 있는 攻防戰線 開始되었다.

그때로부터 三個月 — 正確히 말하면 十二週間 동안에 『英國本土 上陸은 九 月까지라는 預言의 狂의인 怒號 밑에 그칠 줄 모르는 獨逸空軍의 波狀攻擊은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一對七 或은 一對十이라는 壓倒의인 數의 劣勢에도 不拘하고 英國防空 戰鬥機隊의 英雄的인 反擊은 계속되었다.

十月初旬에 이르러 英國本土 上空의 制空權獲得에 失敗한 預言은 드디어 英國本土 征服의 꿈을 斷念하였다. 적게는 英國의 歷史를 크게는 人類의 歷史를 나치스의 魔手에서 救한 이 三個月間을 어떤 사람은 『워털루나 르라화갈 海戰과 더불어 永久的 歷史에 남을 大空中戰』이라고 말하였다.

祖國의 危機에 直面해서 英國國民이 얼마나 勇감하고 끈덕지게 싸웠던가? 여기에 英國國民의 防空救國 三個月間의 生々한 戰況과 그 背景을 더듬어 祖國과 自由를 爲한 英國國民의 不屈의 闘爭을 傳하고자 한다. (外誌에서)

가운데서 『어떻게 英國 國民이 單獨으로 英國本土의 孤壘를 守護하였던가? 이 미 쉬운 것을 어찌면 英國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라고 記述하고 있다. 第二次大戰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著述이 있으나 그 평가들이 된 英國本土를 둘러싼 攻防戰 — 所謂 『英國의 戰爭』 — 에 對해서는 史家의 評價가 區區各色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過大하게, 또 어떤 사람은 過少하게 評價하고 있다. 그때부터 二十年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英國人들 자신까지도 英國의 싸움은 忘却의 世界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第二次 大戰이 全世界的인 大戰에 까지 擴大되지 않고 英國만이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 나간 十二週間, 이것을 그대로 歷史가운데 묻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서운한 일인 것 같다.

敵編隊 四時方向

一九四〇年七月十日午後一時四十分. 英國空軍 第三十二中隊의 하리케인 戰鬥機 六臺는 高度 三千米에서 도-바海峽 上空의 哨戒線으로 進出하려고 하고 있었다.

도-바의 靄 안개가 흐린 太陽 밑에 눈부시게 빛나던 이날 計器가 가동한 音은 操縱席 안에서 파이오트들은 분주하게 눈알을 굴리고 있었다.

視界는 좋지 않으나 그래도 왼쪽에는 英國 오른쪽에는 佛蘭西의 푸른 들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인다.

좁은 海峽 兩旁판에는 英國海軍

의 輸送船團이 航跡을 그리며 大
小船船 燃料及 食糧과 補給品을 滿載
하고 徐徐히 北上을 繼續하고 있었
다. 文字 그대로 이것이 英國의 生命
線이다.

船團의 한줄로 늘어선 배와 배사이
를 護衛 驅逐艦이 8字型으로 누비며
달리고 있으며 마스트의 纜 깃발이 是
부시게 떨려왔다.

六臺의 ハリ케인戰艦機는 比와 千
를에 부딪쳐 編隊가 離散되어 三臺씩
달렸다.

구름을 뚫고 視界를 다시 維持하자
船團上空到處에서 白色 彈幕이 피어
올랐다. 獨逸空軍의 攻擊이 분명하
다. 이때 驅逐艦은 對空砲火의 砲門
을 열어 삼시간에 彈幕이 蒼空에 번
져나갔다.

「敵編隊 四時方向! 여섯 集團으로
來襲! 이렇게 最右翼機가 報告하였다.
ハリ케인은 即時로 急降下를 取하
여 攻擊態勢로 들어갔다. 實로 三對
百의 劣勢이었지만 英國의 蒼空健兒
들은 是하나 抗擊하지 않았다.
基地에서는 스피드와이아 戰艦機와
ハリ케인二十臺가 遊擊次 떠올랐다.
그런데 海峽上空으로 달리고 올라간 스
피드와이아의 操縱士들은 의제까지 보
지 못했던 光景을 目睹하게 되었다.

獨逸空軍의 百臺의 戰艦聯合編隊는
三層으로 나누어져 完全히 英國輸送
船團위를 包圍하고 있는 것이었다. 即
單發의 汎사슈미트-1109 戰艦機가
最上層, 中發에는 雙發 重戰艦機 및
사슈미트-1110, 最下層에는 모두
사슈미트-117 爆擊機가 차지하고 있었
다.

스피드와이아는 四千미터까지 上昇

하여 最上層에 있는 汎사슈미트-1
09보다도 三百미터 높은 位置에서
비스듬히 내리 곤지며 攻擊을 加하였
다. 이때 機關銃의 방아쇠는 잡아다
린채로 最下層의 도루니에-17 爆擊
機群의 한부분을 轟고 나가 海面에 달
락할락 한데까지 降下하였다가 愛機
의 機首를 上向할때는 彈倉이 텅텅 비
도록 銃彈을 消費했던 것이다. 이렇
게 해서 銃彈 補給次 基地로 돌아갈
때면 스피드와이아 ฝูง무니에 汎사슈
미트가 망을 매는 한臺에 六臺씩이나
달려 들었다.

이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던 일로 바
야호로 獨逸空軍의 本格的인 英國本
土 攻擊이 시작됨을 示唆하는 것이었
다.

이날 구릿그 情報政務次官은 下院에
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오늘 午後 七시에 없었던 大規模
의 空戰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폭격기는 英國本土 上空에 머물
러 있으며 爆彈을 퍼붓고 있을지 모
른다. 英國海軍에 對하여 敵의 上陸
作戰에 對備해서 全員 警戒配置에 臨
하도록 命令이 내려졌다.」

救國前線으로 總進軍

佛蘭西가 降伏하고 英國의 싸움이
開始되기까지 二週日 남짓한 사이에
獨逸空軍은 休養과 部隊再編을 끝내
고 佛蘭西와 自耳義의 各前進基地에
展開하고 있었다. 그때 展開配置된 獨
逸 航空機는 二千六百六十九臺인데 그
內譯을 보면 도루니에-117, 도루니
에-215, 하이켈-111等의 폭격
기가 千十五臺, 옹카스-187, 옹켈
-188 같은 急降下 폭격기가 三百四十

六臺, 汎사슈미트-1109가 九百三
十三臺, 汎사슈미트-1110이 三百
七十五臺였다.

이때 獨逸軍으로서 有利하였던 것은
廣大한 地域에 散在하는 많은 基地를
自由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南
쪽을 攻擊하는 것처럼 示威하면서 北
쪽을 包圍하는 作戰이나 自耳義 基地를
使用함으로써 攻擊目標이 어딘지를 감
춘체, 展開되어 있는 大兵力을 一舉
에 集中해서 攻擊을 加할 수 있는 것
이었다.

한편 英國側도 戰略적으로 不利
點이 있었다. 佛蘭西나 自耳義에서의
戰艦條件에 比較해서 甚나라인 英國
은 實질히 異質的인 戰場이었다.
도-마해峽上空이나 海峽을 넘어서
英本土上空에서의 空戰의 不利를 獨
逸側도 意識은 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
수록 이것을 버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當時의 英國首相은 처-칠이
었다. 國會議에서 兵隊의 要求를
들어준 融和政策으로 해서 議會에서
甚한 비난을 받고 있던 처-칠首相도
獨逸이 波蘭을 侵攻함에 이르러 對獨
逸戰을 布告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다시 侵略을 侵攻하자
드디어 처-칠은 처-칠에게 首相職
을 넘겨 주었다.

처-칠首相 앞에는 悲報가 연달아
날라 들어왔다. 即 悲劇의 단케르撤
收, 佛蘭西의 降服, 獨逸의 英國本土
上陸作戰, 所謂「海陸作戰」의 準備等
등.....
독일군은 和蘭 港口에서 歐羅巴 海
岸線을 끼고 北佛蘭西에 있는 여러 港
口에 百隻이나 되는 大型艦艇을 移

動시키고 있었다. 단케르에서 부레스
트一帶에 걸쳐 도 부레스트에서 비스
케灣에 있는 여러 港口에 걸쳐서 이
들艦艇은 續續集結되고 있었다. 그리
고 다시 十隻十二隻單位의 大型商船
이 獨逸海軍의 護衛를 받으며 港口에
서 港口로 隱身을 해가면서 도-마해
峽쪽으로 下向하고 있었다.
北은 한부르그에서 南쪽은 부레스
트에 이르러까지 獨逸, 和蘭, 自耳義,
佛蘭西의 諸港口는 相當數의 船隻集
結이 보이고 또한 砲臺에서도 上陸
用 舟艇의 準備가 進行되고 있었다.

처-칠首相은 그의 不屈의 忍耐力과
유-모아와 그리고 그 卓越한 統率力
으로 이 難局에 臨하고 있었다. 자칫
하면 무너질지도 모를 英國民의 士氣
가 처-칠首相 한사람으로 해서 연마
나 버티어 져는 지 모른다.

獨逸軍의 上陸作戰을 豫想하는 英
國本土의 防衛는 正規軍만으로는 兵
力이 不足하였다. 그래서 英國民들은
本土防衛隊를 結成하여 市民들은 여
기에 積極的으로 自進 參與하였던 것
이었다.
休養地로서 僻서대면 海岸 모래바
다에는 地雷가 묻혀지고 마다에는 機
雷가 敷設되었다. 道路위의 阻塞도 築
成되어 豫想되는 독일군 上陸作戰을
맞아 學族의 新聞을 是를 준비한 단단히
하였다. 英國의 新聞들은 連日「어떻
게 하면 獨逸을 有用한 兵器로서 活
用할 수 있을까?」를 解說하고 「어
떻게 하면 自動車의 暴-배아랑을
銃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報
道하였다. 또한 칼쓰는 法을 讀者의
게 圖解式으로 가르쳐 주는 신문도 있
었다. 竹槍突擊戰에 불과한 것이었

저만 讀者들은 이와 같은 記事를 열 심히 읽어 獨逸軍의 來襲에 對備하였다.

美國 톰슨社로부터 自動短銃이 每 週 船便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그 것들은 于先 陸軍에 補給 되고 本土防衛隊에도 讓渡되었는데 優先權은 軍에 있었기 때문에 本土防衛隊의 武器는 相當한 期間 統一되지 못하고 雜多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銃을 가지고 있는 隊員은 그 때도 나 은 兵이고 彈藥을 들러 대고 警備를 서는 隊員이 있는 形勢이었다.

구티그次官이 레디오로 「本土防衛隊의 隊員은 五十萬에 達하였다. 諸君이 祖國을 爲하여 奉仕할 때는 눈앞에 달려 오고 있다」라고 放送하자 伯林放送은 다음과 같은 毒舌을 퍼부었다.

「本土防衛隊의 訓練에는 監獄에서 保釋된 罪囚들이 당하고 있다. 그들은 이나 아이들만의 烏合之卒이 精強한 獨逸軍에 어느 程度 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事實 그 당시의 英國으로서 는 만약 독일군이 上陸作戰을 強行한다면 海空軍은 별문제로 考라도 陸上戰鬪만은 이 本土防衛隊로 하여금 對敵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運動競技場과 같은 그대로 陸軍이나 本土防衛隊의 演習場으로 쓰여졌으며 그와 더불어 全英國人들의 마음도 긴장되어 外國人들에 對한 取扱도 달라져 갔으니 모든 外國人들은 夜間 外出이 禁止되었다.

完備된 作戰室

獨逸航空機의 侵入經路가 南인

글랜드와 irlen을 守備하는 英國基地에는 十九個中隊인 約二百臺의 戰鬪機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 六個中隊는 스피드와이 아였으며 남은지 十三個中隊는 하리 케인 戰鬪機로서 키스·와·이크少將이 指揮하는 第一師團 隸下에 있었다.

第十一師團은 英國空軍이 保有하는 四個 戰鬪機師團의 하나로서 그밖의 第十, 第十二, 第十三師團은 各其의 글랜드西部와 東部 그리고 中北部의 스투랜드를 防衛擔當區域으로 삼고 있었다.

英國空軍 戰鬪機隊 司令官은 후·다 우딩 大將이었으며 司令部는 스탠모 아에 있었다. 키스·와·이크少將이 指揮하는 第十一師團은 우스부릿지에 있었으며 에세스州, 케트州, 사세스州, 함부샤州가 管轄區域이었다. 말하자면 敵의 連 續侵入經路의 要衝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實로 英國의 運命 殆半을 이 部隊가 擔지고 있었다. 와·이크少將은 당월 3日 撤收作戰을 當 初부터 英 글랜드南部에서의 空戰戰鬪 全般을 指揮하고 있었다.

司令部의 施設과 裝備는 最高의 水準으로 完璧에 가까운 것이었다. 作戰室은 地下 十五 미터에 콩크리트로 만든 完全한 防空壕였으며 作戰狀況



八名 劇案 內

旋風을 일으킨 嫉妬

— 노먼·크라나의 戯曲

「Who Was That Lady?」에서

웃음 없는 人生은 悲劇이다. 그리 나 눈물 없는 人生 또한 無味乾燥한 人生이라 할 것이다. 藝術에 있어서 眞正한 喜劇은 「눈물나는 웃음 거리」—— 눈으로는 웃으면서 가슴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喜劇을 말한다. 아직도 記憶에 남는 喜劇映畫 「화이트·크리스마스」인 이리한 뜻에서 名畫였는데 「Who Was That Lady?」당신과 함께 있는 그 女子는 누구요? 도 亦是 「화이트·크리스마스」와 同一한 作者 Norman Krana의 劇이다. 이 「Who Was That Lady?」는 一九五八年三月 뉴욕 부러드웨이에서 上演되어 新鮮한 感覺과 明瞭한 웃음으로 흥행이 되고 翌年 五九年에 콜럼비아社가 映畫화하였다.

解説

흔히 있을 수 있는 瞬間的인 情事——이론 究에 沒頭하고 있을 때 그의 인물 도와 주는 어여쁜 女性이 나타난다.

科學者는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女子에게 키스를 한다. 공교롭게도 科學者의 本妻가 들어오다가 이 光景을 發見한다. 이것이 原因이 되어 事件이 展開되는데 想像치도 않던 奇想天外한 事件으로 進展하는 例가 없지 않다. 사람의 運命이란 運命 그 自體가 奇想天外한지도 모른다. 이 映畫는 이와 같은 奇想天外한 事件을 웃음으로 이끌어 가면서 人生의 汗 雨을 그려 주고 있다.

스텔이나 케스트들도 有能한 사람들이 登場되고 있다. 「三銃士」를 演出한 「조오지·시드니」가 메가폰을 잡았고 「慾望」이라는 이름의 電 車」를 撮影한 「스트라드링」이 카메

室은 幅이 十八미터에 二層으로 나누어져 있어 언뜻 보기에는 地下에 있는 小劇場과도 같았다.

二層에서는 作戰室의 구성구석이 바라다 보였으며 一層 演舞판에는 커다란 地圖이 붙어 놓여져 있고 그 周圍에는 電話交換手와 航空機 標示를 옮겨 놓는 사람들을 합쳐서 二十名쯤이 서 있었다.

二層 바로 正面에는 壁全體에 黑板이 걸려 있고 이 黑板은 電球로 가로질러 여섯군데로 區分되어 있었다. 이 여섯개는 指揮下에 있는 地區 基地數이며 그 하나 하나가 다시 標示燈으로 六區分되어 있는 것이었다.

最下段의 標示燈은 그 部隊가 「待機中」임을 意味하고 다음段의 標示燈은 「準備完了」 그 다음은 「出動可能」 다시 그 다음은 「離陸出擊」을 나타내는 것이다.

左側 유리板 안에는 情報將校가 四五名 있어 各哨戒所에서 보내오는 敵情을 蒐集하는 일을 보았다.

戰團中에는 哨戒所에서 通報되는 情報가 數千에 달하기에 때문에 이를 재빨리 분석해서 地圖에 이빨로 傳하지 않으면 我方의 비행기 표시도형도 敵機의 표시도형도 옮겨 놓을 수가 없게 된다.

右側에도 유리칸을 막은 방이 있는데 이것은 高射砲部隊와의 連絡室로서 陸軍將校가 일을 보고 있다. 第一師團管區에는 二百門의 高射砲가配備되어 있었는데 連絡이 늦거나 잘못 되면 자칫하면 自中之亂의 危險이 있었다.

司令部의 作戰室과 麾下 各中隊本部, 高射砲部隊, 哨戒所는 電話로서

連絡이 維持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渾然一體로 情況에 應해서 機敏하게 움직였다.

이 시스뎀은 大우딩大將의 獻策으로 戰前에 空軍省이 設計考案한 것인데 英國이 승리한 하나의 要因은 이 시스뎀 때문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英空軍의 名將 두 사람

第十, 第十一, 第十二, 第十三 各師團과는 別途로 夜間戰團部隊가 있었는데 그것은 雙發의 부엔하임六個中隊와 單發의 테파이안트 二個中隊로 編成되어 있었다.

七月十日 英國戰爭이 開始되었을 때 大우딩司令官이 指揮할 수 있는 戰團機는 都合 六百臺였으며 主力은 라리케인이었다.

搭乘員의 數는 千四百五十名이었는데 그 중에서 五十名以上은 海軍에서 온 操縱士들이었다.

거기다 그 당시에 레이다는 상당히 幼稚하여 海上——即 海峽上空에 나타난 敵機의 발견은 할 수 있어도 陸上에서는 友軍機와의 識別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도—바해峽과 北海對岸에는 독일군이 第二, 第三, 第五空軍으로 編成된 三航空軍을 配置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第二, 第三兩軍은 獨逸北部에서 和蘭, 白耳義, 佛蘭西에 걸쳐 展開하고 그兵力은 中型용기기 一, 一三〇臺, 急降下 爆撃機 三二〇臺, 옛사슈미트—1109 八〇〇臺, 옛사슈미트—1110 二五〇臺 偵察機 六〇臺였다.

第五軍은 늘웨이와 丁抹에 配置되

라, 歌手이면서 「젊은 獅子」에서 好演을 보인 「핀·마이틴」, 大作 「마이킹」이며 「西部戰線 異狀」 등에서 그 美貌를 자랑한 「자넷트·리」 그리고 「黑과白」 등에서 格調있는 演技를 보인 「토니·카티스」 등이 主演하고 있다.

줄거리

젊은 美男教授 페이트는 어느날 그의 化學教室에 들어온 여학생 女學生의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키스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自然스러웠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페이트 男便에 用務가 있어 學校에 왔던 페이트의 妻 안이 이를 發見하고 大怒하여 卽席에서 離婚할 것을 宣言하고 안은 가버린다. 페이트는 몹시 당황하여 妻에게 발뺌한 窮理를 그의 親舊인 테레비作家 마이크에게 相議한다. 마이크가 考案한 本래기 演劇은 다음과 같았다. 페이트는 實은 FBI(聯邦警察)의 秘密員이며 女學生과 키스한 것은 그 女學生으로부터 어떠한 重大한 間諜事件의 실마리를 끌어 내기 위한 手段이었다고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페이트가 FBI 秘密員이라는 것을 立證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테레비放送에 쓰는 要員證明書와 筆硯을 携帶하고 발바타에 四개의 공을 그려 넣어서 안을 訪問, 그 밑은 화기 구멍이라는 手편이다.

이렇게 해서 안의 怒氣는 풀리고 離婚宣言도 取消되어 잔신히 原狀回復된 것은 多幸이었지만 테레비局의 小道具員이 마이크가 FBI를 潛稱했다고 FBI에 密告를 함으로서 事件은 以外의 方向으로 急

轉한다. FBI當局은 重大한 陰謀事件의 一端일지도 모른다는 觀測下에 FBI 局員을 페이트家로 派遣하여 調査케 한다. 안은 FBI 局員의 來訪을 맞아 男便이 틀림없이 秘密員이라는 斷定下에 더욱 安心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페이트는 마이크의 勸誘로 中國料理집에서 테레비志望 女性 두사람과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다. 페이트가 外出할 때 안에게 外國의 秘密要員과 相議하려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은 男便이 있어 버리고 간 筆硯을 男便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집을 나가려 할 때 FBI 局員이 왔음으로 안과 局員은 中國料理집으로 가게 된다.

한편 테레비 女優志望의 女女性은 그들의 마제에게 電話를 걸어 마이크가 믿음직한 사람인가를 照會해 본 結果 아마도 놀림감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答변에 激怒한 女女性은 큰 소리로 페이트와 마이크에게 辱罵를 퍼붓는다. 이때 안이 나타나서 男便이 무슨 危機에 陷入한 것으로 생각하고 筆硯을 전해준다. 두 女人은 거리로 도망치고 페이트와 마이크가 그들을 뒤쫓는다. 당황한 안과 FBI 局員이 또 그들의 뒤를 쫓는다. 어쩌다가 筆硯이 誤發되고 뉴욕의 繁華路는 대낮에 해야난 大騷動이 벌어진다. 新聞記者가 뛰어나오고 테레비 뉴스카메라班이 出動한다. 그러자 二層窓가에 놓였던 花盆이 떨어져 페이트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페이트는 氣絶한다.

이튿날 아침 페이트와 마이크가

어裝備로는 中型爆擊機 一三〇臺, 및사슈미트 110 四〇臺, 偵察機 五〇臺를指揮下에 保有하고 있었다. 航空戰에 있어서 數의 優劣은 때로 決定的作用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戰術機性能에 關해서 兩方의 優劣을 速斷할 수는 없었다.

릿사슈미트는 速度와 上昇力이 우수했고 英國機인 하리케인과 스피드 화이어는 機動性과 砲火力이 우수하였다.

數의 壓到的 優位에 自信을 가진 독일공군은 또한 波蘭, 폴란드, 白耳義, 和蘭, 佛蘭西 戰團에서 勝利者로서 의 자랑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英國空軍 操縱士들은 數의 劣勢을 自身들의 技術으로 충분히 補償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사실 英國 操縱士들의 訓練度는 독일공군에 비해서 어지간히 높은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영국공군은 두사람의 名將이 있었던데 한사람은 다투딩大將이었고 사람은 윌푸렛트·푸리덴大將이었다.

英國空軍 戰術機隊司令官가 創設된 것은 一九三六年이었으나 英國의 外음이 시작되기 불과 四年前的 일이다.

初代 司令官에는 다투딩大將이 任命되고 空軍大學 校長이었던 푸리덴大將이 研究開發本部長에 任命되었다.

하리케인과 스피드 화이어의 原型은 다투딩大將 밑에서 採擇된 것인데 그 연구 개발과 正式 採用後의 初期生産은 푸리덴大將의 힘을 입은 바가 컸다.

勿論 航空機生産相 비바부트크卿이 올린 生産費에 대해서 푸리덴大將의 生産費數는 微減한 것이었지만 비바부트크卿이 航空機生産相에 就任한 一九四〇年 五月十四日 即英國戰爭이

시작되기 二個月 前까지 푸리덴大將이 生産化에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비바부트크卿의 偉業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英國이 독일에게 宣戰布告하기 數個月 前부터 하리케인의 生産臺數는 增加되었었다. 一九三八年十月에는 月産二十六臺였던 것이 독일이 폴랜드를 侵攻한 三九年九月에 이르러 月産四十四臺로 되었다. 스피드 화이어도 마찬가지로 同年同期에 月産十三臺에서 三十二臺로 二倍半이나 増産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先見之明이 있었던 푸리덴大將은 반드시 가까운 將來에 大増産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豫見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푸리덴大將은 工場을 擴大하여 燃料精製를 강력히 추진한 것이었다. 한편 四發 重爆擊機 開發을 命令하고 雙發의 木製 드레비란드·모스키트의 연구 개발을 命令 하였다. 이 重爆擊機는 直接英國 戰爭에 는 쓰여지지 못했지만 二年, 三年, 四年後에는 各기 독일군의 련년空襲에 利子를 붙여서 柏林 大空襲에活躍하여 커다란 戰果를 올렸으며 모스키트機는 前日에 高速 多目的의 機로서 지극히 유용한 비행기라는 評을 받았다.

그러나 푸리덴大將은 第一線司令官으로서의 다투딩大將의 名聲에 비하면 英國民은 勿論 英國空軍 操縱士들 사이에도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따나부트 크이 하얏게 되는英國의 五月! 平和을 고 한가한 풍경이었으나 佛蘭西, 白耳義, 和蘭에서는 독일군이 侵略한 비행장 復舊工事로 벌써였다. 最惡의 事變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FBI에서 調査를 받고 있을 무렵 朝刊은 外國 스파이와 激闘하는 勇敢한 데빗트를 寫眞入으로 大書特筆로 紹介한다. 데빗트와 마이크가 調査를 받고 있을 때 난데 없는 重大한 情報가 들어왔다. 그것은 中央情報局長이 가져온 縮小된 錄音 테이프였다. 이錄音은 外國 스파이 두 사람이 交換한 電話인데 방음 테이프가 研究中에 있는 某種化學實驗을 探知하기 위하여 데빗트를 拉致하는 內容이다. 그래서 FBI는 突然 緊張한다.

이 무렵에 自宅에 있는 안에게 電話가 걸려왔다. 그것은 FBI 宣傳로부터 데빗트의 行爲를 讚揚하는 寫眞을 攝影하였으니 下午에 엔 파이어·스테이트·벨링으로 와달라는 것이다. FBI는 이 電話가 問題의 두사람의 外國 스파이의 수차임을 認知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計劃에 빠진게 하고 나타나서 그들을 一網 打盡하는 逆計를 세운다.

下午에 FBI 全員이 要所에 配置된 飛行속을 데빗트, 안, 그리고 마이크 세 사람이 들어간다. 그들이 에베레타 도로를 서자 데빗트는 두들겨 맞아 떨어졌고 마이크와 안은 麻酔藥에 걸려 떨어졌다. 데빗트는 外國 스파이들이 潜水艦으로 外國으로 끌고 간다는 威脅에도 研究에 關한 秘密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자 스파이들은 FBI의 配置를 눈치채고 세 사람을 冷房裝置 機關室에 던지고 사라진다.

에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佛蘭西에는 이미 戰術機를 보내지 않는다. 決定의 내렸는데 이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것은 비바부트크卿이 航空機 生産相에 就任한 사실이다. 그의 任命은 奇蹟을 가져왔다. 비행기 (五五五)로 계속」

은 外國 스파이들이 潜水艦으로 外國으로 끌고 간다는 威脅에도 研究에 關한 秘密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자 스파이들은 FBI의 配置를 눈치채고 세 사람을 冷房裝置 機關室에 던지고 사라진다.

에마후 정신을 차린 그들은 데빗트가 우리는 外國 潜水艦에 監禁되어 있으니 潜水艦을 沈沒시키자는 主張에 同意하고 機關室을 마구 破壞하기 시작한다. 實은 엔 파이어·스테이트·벨링의 冷房裝置 機關을 破壞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후 벨링에는 煙氣가 솟구쳐 오르는 騒動이 벌어지고 벨링 事務員과 FBI 局員들이 機關室로 불려들어 그들을 救出한다. 一는 이야기다.

이 映畫는 「旋風을 일으킨 嫉妬」라는 타이틀로 十一月初旬頃 우리 나라에서 開封될지도 모른다.

(유기연)

처음 길은 感銘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토리展開의 재미새와 幻想天外한 事件이 興味를 끌게 하며 때때로 爆笑을 자아내는 가운데 人生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思索을 갖게 한다.

寸評

英國空軍의 戰術機 整備나 生産은 奇蹟의인 速度로 進行되었다. 五月十四日 航空機 生産相에 就任한 비바부트크卿이 就任 第一週에 魔法의 지팡이를 휘둘러거나 한것처럼 奇蹟을 現實의 것으로 만들었다. 다투딩大將은 公式書翰 가운데서 비바부트크卿 任命

은 外國 스파이들이 潜水艦으로 外國으로 끌고 간다는 威脅에도 研究에 關한 秘密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자 스파이들은 FBI의 配置를 눈치채고 세 사람을 冷房裝置 機關室에 던지고 사라진다.

에마후 정신을 차린 그들은 데빗트가 우리는 外國 潜水艦에 監禁되어 있으니 潜水艦을 沈沒시키자는 主張에 同意하고 機關室을 마구 破壞하기 시작한다. 實은 엔 파이어·스테이트·벨링의 冷房裝置 機關을 破壞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후 벨링에는 煙氣가 솟구쳐 오르는 騒動이 벌어지고 벨링 事務員과 FBI 局員들이 機關室로 불려들어 그들을 救出한다. 一는 이야기다.

이 映畫는 「旋風을 일으킨 嫉妬」라는 타이틀로 十一月初旬頃 우리 나라에서 開封될지도 모른다.

(유기연)

際厚娘과 白雲郎

— 훌륭한 武人의 아내 이야기 —

김 일 순



쓰르레미가 『저리리리이……』하고 울면서 소리들며 떠주었다.

달장, 호박꽃 넝쿨을 서성거리던 딸도 『현……』하고 소리들며 버리고서 그만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뒷밭의 수수대가 한때 『스스스스……』하며 나무가끼마니 이 또한 어느 사이엔지 조용해졌다.

이러한 속에서 한낮이 훨씬 기운 새하얗게 햇빛을 그늘진 곳 저편으로 바라보며 두 대장은 뒷밭 한편에 자리 잡은 정자 나무 아래서 바둑 두기에 아무런 의념이 없었다.

그러나 수수밭가리 활가 활부하는 빛은 조금도 엷보일 겨를이 없이 오로지 들을 들 때마다 『젠, 두우우우……』하고, 부드럽게 울리는 그 우아한 바둑판 소리의만 취해 있을 듯했다.

아유(阿有) 대장과 나소(奈素) 대장의 두 대장은 진지왕 연대(年代)의 다 같은 해에, 또한 똑같이 『저라빌』(吉良村)에서 탄생 되었었다. 그리고서 역시 二八의 열여섯살을 맞이하자 이개를 나란히 하여 우다구신(宇多國仙)의 무리로 들어가 화랑(花郎)이 되었으며 그다음 이십여년간을 그 저 국가민족을 위해 신병선투 끝에 장군(將軍)의 직위를 바로 눈앞에 다 둔 지난해 가을, 훌륭한 두친구는 대장(大監)의 신분으로 서로만 죽을 느끼며 울울히 판을 물러나온 것이었다.

그리고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스쳐가고 여름마저 막상 물러가고 있는 형편이었으나, 아유대장과 나소대장이게 있어서서 한결같이 찾고 찾기가만 하는 정다운 세월이었다.

두 판채 치른 바둑판을 주섬 주섬 걷으며, 훌륭한 아유대장이 말을 건다. 『그참, 자부께서 태기중이시라고 들었는데……』혹시 또, 풍선은 아니냐고 『아……』

『아, 전 또 어떻게 알고 계시오. 풍실은 아니라고. 아마 오륙삼은 주히 됐으나 보오. 헛허……』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나소대장이, 부지런히 대답을 했다. 『그야아, 절의 머누리도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안에서들 말이 나왔나 보오.』

느릿한 말투의 아유대장도, 골바리는 『헛허……』하고 웃음으로 맺었다. 『아, 그러면가요? 그, 참……』

나소대장은 대답소리를 한결 더 간결하게 끝내 세 판채 치를 바둑 줄비 에 두 눈은 물론 아예 모란 잔쳐 있다.

쓰르레미가 다시 『씨이릉……』사이릉……』하며 기울어져 가는 햇빛을 애석히 여긴다. 『그렇다면, 그 뭔가……』

아유대장의 말소리와 함께, 바둑판 소리가 『젠, 두우우우……』하고 울렸나. 『아, 배오……』

역시 나소대장은, 대답해 했다. 한 머리 바둑판 소리도, 미미했다. 『네의 아가와 우리 아가를 차차 좋은 배편로 정한다면? 헛헛허……』

아유대장은, 띄어나 유쾌한 듯이 웃었다. 『아그야, 내종 봐야 할일 아니오. 성미도 피어나 급하시오 헛헛허……』

여아인지 남아인지 지금부터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나소대장의 말이였다. 두 대장은, 더 길게 말을 이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여전히 한적한 속에서, 바둑판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갔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진, 제후 아기(際厚娘)와 백운랑(白雲郎)이었다. 방년 심육세를 마지한, 제후 아가와 백운랑……

두 할아버지가 불아가신지도 어언 몇해들이 지나갔다. 제후 아가는 아유대장의 손녀였고 백운랑은 나소대장의 손자였다.

제후 아기는 백운랑보다도 생일이 두 달이나 뒤 늦으나마 여전히 매사에 유물 유물 소견머리가 트여 있어, 사람 들은 꼭 그 할아버지를 닮아 있다고 들었을 것이다.

백운량은 백운량대로 또 나소대강을 너무나도 넓어 있어, 강적하면서도 한바퀴 연살삼하기 비할피없는 넓은 것이었다.

이러한 두 젊은이가 서로 아끼고 서로 칭찬하여 하는 품격지도 그들의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으나, 이들이 장차 한창의 작이 될수 있는 사이이니만큼 한결 더 어느모로나 아름다워 보였다.

의도도 아름답게들 자랐다. 대감때 집안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도 한층 훌륭한 행세를 하며 지나느니만큼,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흰히 광채가 돌듯한 품체들이었다.

그런데 진영왕(眞平王) 삼십삼년 초 겨울에, 갑자기 그대왕(百濟) 병사들이 크게 물러와서 금성성을 들쳐 썼다. 서라벌 서울에서 오백여리나 떨어진 곳이였다.

이 사실은 곧, 서라벌 대내(大內)에도 알리게 왔다.

여기서 삼강제서년, 몇몇원터러비슬아치들의 헌책(獻策)을 받으시어 전의 있었. 일을 다달히 서두르시였다.

오히려 세월을 저들하는 동안 두나라 사이에는 가뭄, 지고 받고하는 날이 없지 않았. 있었다. 그러나, 국경 언저리의 어느 조그마한 책(棚)을 서로 건드려 보는 정도였지 이변처럼 어느 하나의 성곽을 범해 온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피구나 추수동장(秋收冬藏)도 이미 끝파져져 있는 즈음이라, 그 저파리 폐장은 그다라 현이 무한정 대담성의 달라 붙어, 아무작거릴 것만은 원히 드피나 비는 사실이였다.

왕의 뜻이 결정되자 생각있는 젊은

이 모조리, 너도 나도 하면서 대담성으로 달려갈 것을 자원했다. 여기애, 제후아가의 사랑하는 이——백운량도 한몫 끼게 되었다.

이미 화랑의 무리에서, 그 말타기의 재질과 드물게 보는 고운 심성으로 알려진바 있는 백운량인자라 문제없이 제일 선발대원으로 뽑히게 되었다.

백운량의 나이 이미 열여섯살이니만큼 그 당시 서라벌 남아(新羅男兒)의 기풍을 닮아, 숨김없는 이엿한 하나의 사나이로서 배웅하러 드는 제후아기를 넉넉이 배하였다.

말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밤이었다.

하늘을 호러 놓은 저편듯한 구름결이 언제 다시 건워 질것 같지도 않았. 머도 그렇다고 해서 곧 첫눈이라도 부실거릴듯한 차겨운기가 밤도는 것도 아닌 그러한, 도시 젊은이들끼리 이별을 애대워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밤이었다.

『.....』

『.....』

『.....』

『.....』

『.....』

『.....』

〈休暇은 아들〉

『이 사진보고 길에서 지나쳐도 몰라 보겠구나.....』

— 李 在 華 —



행동한 것은 저 때문이기에 백운량의 제까지
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요! 나, 이따 세백...』
피되는 대로 피 앞으로 말꼬릴 돌리
린다.』

무척도 긴 시간을 끌며, 백운량은 대
답했다. 제후아가도 이 말을 무면
미로 들은 것 같았다.

잡다무잡 저쪽이었는데, 시끄러운까지
들지 않다가 점점 화가 도사리고 있으
나 아마 그날들도 이 밤중에 단 그들의
눈초리를 잠깐 감고서 보지 않았을 리
다.』

가금성을 둘러싼 그 다량의 생포감
은 피를 흘리며, 이듬해 말 삼두령의 이르
러서 저우 폴리인저 갔다.

하늘과 땅과 그 리고 온 겨레가 되
찾은 화창한 봄빛 속에서, 오직 제후
아가만이 끝없이 끝없이 마음 어두워
했다.

백운량의 두팔에도, 단을 잃고 더
들지 않고 돌아 왔기 때문이었다.

『제후, 마음 인장이 학지마오. 내가
오지 않았소. 내, 요기 있지 않소.
시조엔 그저, 번번히의 목숨 끊으
려고만 들었으니...』 허지만 그 때
도 제후는, 내가 돌아올 줄 더 기뻐
하리라 한 민음에서 그 민음에서 외
침 같은 외침을 울었다. 『이렇게 할
아 왔소.』

이 말을 하므로 그날 밤 부사윤두의 프
이 지양한 단을 지견으로 제쳤으나,
한 마디 그 단 외의 기뻐하는 빛을
감할 줄이 없었다.
제후아가도 기뻐했다. 가슴이 잘기 잘
기 켜기 위해 나란듯이 사부쳐 오는 기
쁨이었다.

그러나 어떤 하리!
백운량의 장년의 퇴어 돌아온다는
진실을 받은 피칠천 그날부터, 아비
남제신 이미 혼사를 서둘러 달리 구
하고 있는 행진이였다.

『알은 무엇으로 생을 보낼까...』
그것도 제후, 염려 마오. 내, 일찌
기 피리에 장끼가 있었으니 장차 이
것으로 임무가 어차지하리. 지나리
하오. 제후가 내 곁에 있는 이상,
결코 저저을 생을 보내지 않게 하
린다.』

이렇게 말하던 백운량의 얼굴은 사
뭇저어 앞이 바라보는데 빛나 있
었다.

그러나 제후아가의 마음은 슬픔, 저
어 이 들속으로만 자꾸 파 들어가고 있
는 것이었다.

등운을 밝히려 들이 온 노피에게 민
담함을 느끼며, 제후아가는 백운량의
말을 물려섰다. 그나마도 아비님 볼
때, 유도와 함께 찾아왔던 길이라 잘
길을 재추해 이만 했다.

남의 눈이 두피외, 손 한번 꼭 잡
지 못하고서 끝내 되쳐자 간계술 지
략해 나가면 되었다. 그러나 제후아
기는 백운량의 마음의 입김을 가슴가
두려이 느끼며 사들리라는 발자욱과 합
께, 알은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세워본다.
수상인이 지닌 다음...

파연 제후아가 근심했는지, 나소백
에서는 제후아가 둘 두고 무진태수(茂
樸太守) 이준평에게 혼사를 인양했다.
신과 제후가 나피오던 아유와 나소
두 집안끼리의 정의는 이로써 완전히
깨트려지고야 말았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타철도 상의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일의 귀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제후아가는 아비님께 공손히 절하
며 제가 삼백여 리 떠나면 무진의까지
가서 지기서 성회할 것을 간청하였다.
어디까지나 신랑되는 이 배수를 도울
코자 하듯 보이는 제후아가의 나그려
을 태도였다.

아비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기꺼히
응답 하시고 그 리고 그날과라 백운
량을 남를 데 찾아 갔던 제후아가의 이
야기까지를 듣기도 했다.

그날이 타쳐왔다.
혼례의 행렬은 많은 사람들의 추부
을 받으며 사라벌 장안을 멀리 떠나,
저녁노을 짙은 수 보리밭 사이 길을 줄
지어 가고 있었다. 곧 이랑촌이었다.

이렇게 되고 사물제가 되는 날까
지도, 유달리 화기 넘쳐있어 비는 이
행렬은 한결같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
고 관련 있었다.

그러면 나흔제를 마지하지, 짙은 흰
상곳이 왔다. 행렬은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고 하기를 아침부터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른다.

그때도 제후아가의 얼굴은 변함 없
이 부드럽기만 했다. 가끔 무엇을 살
피듯, 남의 말을 때꿀히 내다 보기도
하고.

약간 절되지 못한 곳에 이르러서였
다.
난데없는 무량배에 의해 제후아가
는 그만, 사남게도 비탈진 저어 아래
골짜기로 끌려 가고야 말았다.
죽을 힘을 다하여 아우성치는 제후
아가를 어떻게든 붙잡고 보려고만 하

행장정들은 이 일을 어느 쪽의 편지
알려야 하느냐고 인정을 주고 받는 등
안에 그날 해도 완전히 기울어져 버
렸다.

무진성을 십리밖이다. 둘, 제후 그
한편에서는 백운량이 자기의 몇몇도
당과 함께 모든 준비를 갖추어 제후
아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앞 못보는 맹신이었으나 천하
를 노리는 배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결 총명하였다.

이제, 다 바랄 것이 없이 된 두 젊
은이.

그들 둘은 내외는 그 진로 한층 더
구식진 곳을 찾아, 보금자리를 마련하
기에 어진없이 피땀을 흘리었다.

산새조차 드나들기를 꺼려하는 길
은 산골에서 고향을 파며 한마디 앞으
로의 이바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
며, 한해 두해 그 리고서 또 수삼년의
지나 이인 일곱해라는 햇수를 보내었
다.

항상 풍만을 떠나져 없던 백운량의
세 피리는 노랑계절이, 그 청아한 소
리만 도저히 지상의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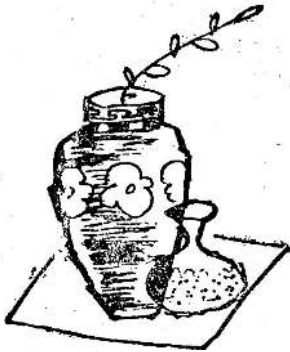
제후아가도 백운량의 두진한 사람
수에서 모든 면이 원숙하게 자라며
있던데, 그들은 기이코 나라이까지
알려진 바 되어 사라벌 장안으로 옮기
어 왔다.

임금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옮긴
것이였다.

요기서 제미있는 것은, 왕께서는 그
때 백운량을 도와 제후아가를 약탈해
낸 진진(鎭鎭)장사마저 크게 상(賞)
하시었다는 일이다.

軍
人
과
信
仰

林 東 善



軍人은 銃과 칼을 가지고 敵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只今은 科學이 發達해서 銃과 칼은 이미 原始的인 兵器모양 取扱되지 않는 事實上 軍人은 어떤 武器를 가지고 敵을 制壓하려 드는 일에 맨 앞장에서 從事하는 사람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軍人에게 꼭 갖추어야 할 몇가지 要素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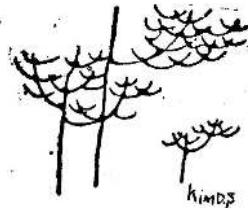
그것은 첫째 勇氣입니다. 砲彈이 날라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만한 勇氣, 槍, 칼이 自己를

찌르고 살을 베어도 不屈하는 勇氣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敵을 對抗하는 軍人이 勇氣가 없다면 그나라와 그民族은 가장 悲慘한 處地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只今 우리 軍隊는 새로운 現代 武器로 裝備하고 神奇한 技術을 갖추어서 敵을 以北으로 몰아내고 아 쉬운 現象이긴 하지만 南韓만큼은 國民들에게 自由와 安全을 保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注意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軍人 各者에

게 勇氣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問題인 것입니다. 늘라우리만큼 最新科學武器가 우리들에게 주어 지듯이 우리들의 勇氣도 前보다 새롭게 強해졌나? 疑心스럽다는 것입니다. 前의 技術보다 進통하리만큼 發達된 技術처럼 우리들 軍人이 勇氣面에서도 前進하고 있는지? 疑問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果敢 大膽 勇猛 해야 할 軍人이 怯懦 부리고 卑怯하거나 않은지? 좀 反省해보아야 할 것이라 生覺됩니다. 왜냐

落葉있는 街路樹



全 光 鋪

에 면한 원도를 스쳐 視野에 展開되
는 街路樹의 新綠에 芬香이
나 몰래 질어졌음을 의식하는 瞬間
이 있는가 하면, 비스나 電車의 車窓
너머 거친 街路樹 밑에, 都市의 騾音
속에서도 울려 놓은 지계에 비스듬히
기대어 午睡의 無我境을 즐기는 모습
을 보게 되면, 번잡한 거리에도 잠시
閑寂의 愜然한 侵犯을 錯覺하는 微笑
이런 조묘한 情感을 느끼게 된다.

都市의 季節은 街路樹에서 와서 가
로수에서 가버린다.
郊外로 나갈 틈조차 없이 都心에서
부적되고 있는 群像들은 街路樹의 새
싹을 스킵고 지나가는 간지러운 微風
에서 비로소 새봄의 聲音을 듣고, 冬
眠의 甦된 遺物인 外套의 무게와 그
속의 배인 후끈한 자기의 體臭에 새
삼 暎覺을 진드려 보게 된다.

街路樹는 보는 사람의 視覺에서 본
단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香趣를 가
지고 있다. 울터오는 새싹에서는 産
兒의 襁褓에서와 같은 유니크한 香氣
의 發散을 느끼게 되어, 진든 覺을
굳이 멈추고 코끝을 머문지 않게 한다.
疲勞한 事務室의 午後, 잠시 舖道

三伏의 무더운 한낮 街路樹는 靑
히 거리의 오아시스요 安息處다. 낮
모르는 누가 언제 그림에 의지하여도
나무람이 없다. 雨裝없이 짐을 나
날 茂盛한 街路樹는 얼마동안은 豫告
없는 스나 무를 막아주는 迷離處이기
도 하다. 店房 앞 遮日 밑이나 嬪女
關부도에서 비를 피하려던, 主人의
不安에 못이기지 않, 街路樹는 아
무는 비 없는 넓은 날개의 푸르름
근히 감싸준다. 그리고 보면 街路樹
는 거리의 말 없는 奉仕者인 줄 알
었다. 이때 손바닥보다도 더 넓은 푸
라나스 잎파리에 떨어지는 맑은 빛
방울 소리는, 햇속까지 쫓겨 내려가

는 것같이 후련하고도 시원하여 잎사
이물새이 떨어지는 若干의 물방울들
에는 오히려 不關心을 反獨하는 心身
의 호젓함마저 느끼게 된다.

○ 街路樹의 列列 그것은 都市
의 血脈인 雜多한 舖道의 淨化劑요 清
涼劑임이 分明하다.

都市의 가을은 街路樹의 落葉에서
시작되고 그 마지막 잎에서 終熄된
다. 아직 노타이에 웃음을 더 걸쳐
저 앞은 九月의 아침, 문득 어깨 위에
떨어져 발끝에 채이는 街路樹의 落葉
한 잎과파에서 가을의 序章은 千斤 무
게로 온몸을 잡아버림을 어찌할 수 없
이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가을은 街路樹의 變色과
더불어 질어지고, 그 마지막 잎마저
落葉이 끝나 는 날, 흰빛은 앙상한 가
지는 이미 豫告의 曉鐘도 없이 우리를
저울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름답고 靑靑하게 가꾸어진 街路
樹 그것은 都市 美化의 第一線의 哨
兵이요, 陋巷속에 깃들인 情緒의 보
금자리요. 아울러 그 거리에 살고 있
는 人間들의 文化 尺度를 가장 쉽사
리 判定하는 바로메터의 象徴이기도
한 것이다.

○ 美의 都市 巴里를 보고 온 사람들
은 바디장, 루우브르, 세에느와 더불어
어상체리제의 매끈히 整枝된 街路樹
의 아름다움을 이 古都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속에 새겨 놓기를 알았다.
푸르름이 없는 嬪女만의 거리, 그
것은 想像만 하여도 落木 이후의 荒
野보다 더한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요지박서울 거리의 街路樹
는 거의 전부가 落葉을 잃었다.

하면 平和와 安全과 生命을 保障
해주어야 할 軍人이 勇氣가 없
다면 믿을 수가 없고 또다시 悲
劇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
다.

둘째로 軍人이 갖추어야 할 基本
要素中에는 正義感입니다. 正義
가 없는 軍人은 暴惡을 부리고 貪
財와 安일과 음난 등의 脫練的 犯
罪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
리가 전쟁사를 볼 때 그 『피』비린
내나는 慘酷한 戰爭들이 거의 가
다 利害關係, 感情 및 報復觀念에
서 저질러진 것들을 볼 때에 實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勿論 『正義』의 基準을 어데다 두
어야 하는 問題는 論議되어야 할
問題이긴 하지만 正正 『正義』와
『不正義』는 내안의 良心에서 恒
常저울질 해주고 있는 것만은 틀
림이 없읍니다.

數없이 흘러나오는 軍需物資의
不正流出間或 軍民間에 벌어져
는 不美한 暴惡等은 우리들이 만
드시 다시 한번 自身들을 反省하
지 않으면 아닐 것입니다.

○ 參戰 軍人은 物資보다도 名譽
를 더욱 重히 여기며 善良한 百
姓들에게는 羊과 같이 順하고 戰
爭에 나아가서는 獅子와 같이 勇
敢한 것이 參戰 國家의 軍人인
것입니다. 『맥아더』將軍은 戰爭
哲學의 原理는 『勝利』라는 두 글
자 뿐이라고 말했읍니다. 『勝利』
는 기쁨과 名譽와 榮光과 삶을 意

아니 가을이면 반드시 떨어야 할 잎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원나방의 幼蟲인 벌레가 배거지를 지어 모조리 먹어갔다.

이 벌레는 아무檢疫이나 消毒도 없이 막 밭아들이나 剩餘農産物에 따라 移徙온 舶來品 害蟲이라고들 한다. 한 해에 네 번씩이나 알을 낳는 무서운 繁殖率을 가진 벌레라는 것이다.

아무리 毒한 벌레도 먹는 것에 好不好가 있지만, 이전 가리는 것이 없다. 푸른 잎과 같은 실 사이 없이도 조리 되어 제끼고는 실 사이 없이 또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街路樹의 보이는 골짜지 三冬같이 앙상한 가지들 뿐이다.

나는 한진과 담벽에 우물거리는 벌레를 비로 쓸어모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려한다.

그래 벌레까지도 어쩌면 이렇게도 外來鍾이 제고장것 보다 더 거성스리운 것인가고.....

이 벌레가 어디에서 왔건 아무튼 계절이 오기 전에 잎을 모조리 잃은 나무는 보기에 도 궁상스럽고 가엾기 짝이 없다. 이 害蟲을 撲滅할 藥조차 들뜬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살림!

하는 수 없이 街路樹는 잎없는 가지마저 이번에는 人工으로 적허우는 수밖에 없다.

남 때문에 못사는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너 이놈 왜 그렇게 皮膚이 상점하게까지 못사느냐고 밤이나 심것 후려갈기는 격이라고 나 할까!

○ 그러나 여기에도 畚蹟같은 삶의 反撥의 인 부르짖음이 있다.

○ 잎을 빼앗기고 가지를 잃은 街路樹

는 봄 아년 초가을 아침, 부드러운 淡綠色 새싹에 忍從했던 삶의 曠野를 우젓고 있으니 말이다. 쓰디 쓴 汚穢의 갖가지 지난 現實 속에서도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있는 아를 보면 우리의 삶 그것의 反映이라고도 할까.

가을은 한미다. 깊이가 있고 있지만 季節의 哨兵, 落葉 鴉은 街路樹는 武器를 메었던 老兵처럼, 잘라진 가지 끝에, 廢兵의 勳章만 앙 너쳐오르는 樹液을 흘리면서 초가을 落照속에 默黙

스튜디오의 思想

영무새처럼 지저져야 제구실을 다한다는 放送人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다. 時間의 노예가 되어 時間을 조종하여 生活해야 한다는 것은 달콤한 꿈속에서 사는 낭만과 들에게는 숨막히는 애기가 되리라.....



저인 반웅이 되라는 것이라면서 사담들은 무엇이든 할까? 放送이란 듣고 生覺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지가 않다. 下流 中流 上流의 그 많은 對象者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과 表現이어야 하고 또 대중이 願하고 있는 眞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放送局의 「스튜디오」는 까다로운 産室의 役割을 담당하기에 매일을 숨가빠하

히 말이었다.

푸라다나스, 보루라, 은배양, 미루나무, 銀杏등 雅談하게 가꾸어진 清新한 지리의 街路樹 縮圖 속에, 미운이 미워하는 이 벌레, 그리고 원나방 같은 不意의 侵犯을 모르고, 平和롭게 모두다 잘 살수 있는 安眠을 冀求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붉게 타는 저녁 노을에 빗겨 날기 위해 버티어나오는 老木의 가을 새싹을 撫視하고 있다.

(筆者: 서울文理大教授)

李賢淑

고 있는 것이다. 「아나운서」는 放送局의 「쇼-윈도우」라고 말한다. 여기에 먼저가 끼어 상품의 그 화려한 모양이 불릴라게 보이거나 가치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노력이라는 고마운 의욕이 있다.

放送이란 요해와 우연이 이미 낫은 말로 벌리 했다. 現實속에서 未來를 더 추구하며 一步前進하는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 放送이라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은 電波의 대결시대라고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숨소리들 죽이고 깊은 정막속에 쌓인 순간에도 푸른 창공에는 소리를 실은 전파들이 제구실을 하기에 바빠 뻔뻔하고 있으리라.

味하지마는 敗北는 수처와 노애와 고통과 죽음이 된다고 했을니다.

싸우는 사람은 누구나 勝利를 願합니다. 그러므로 戰爭하는雙方은 事前的 充分한 計劃과 準備가 있어서 勝算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戰爭에는 必然의 마르 勝利, 敗의 판가름이 勝利하느냐? 하는 것은 戰爭史를 詳考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軍隊는 勝利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軍隊는 敗北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便에 가담하는가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分明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正義」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美國의 獨立戰爭 南北戰爭 또 세계 제 1次, 2次大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正義」에 가담하여 勝利로 이끌었다는 事實입니다.

셋째로 軍人은 愛國心이 旺盛하여야 합니다. 軍人은 내가 왜 軍服을 입었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누구를爲하야 「피」를 리고 또 죽어야만 하는가?

이에 對한 올바른 國家觀 戰爭觀 死生觀이 確立되어야만이 진정한 애국심이 發露된다는 것입니다. 英國의 「러스킨」은 말하기를 「어떠한 民族이라도 또 어떠한 社會狀態에 있어서도 永久히 保證

「스튜디오」를 의향한다고 어떤 이는 말했다. 그래선지 푸어항같이 생긴 그속에 앉아 있으면 물고기가 된氣分이다.

그러나 먹이판을 찾아 꼬리치는 그들보다 「다이크」란 것이 있어 의류지가 없다. 이것이 무포정하고 각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일뿐일뿐없으리라.

「마이크」는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이며 거기서 동기는 한없는 때 력속에 放送人은 보람을 느끼고 되로 붙이게도 되는 것이다. 放送의 매력이란 불날의 화려한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단 그것이 오늘날에 한할 지라도 꼭 붙잡고 싶은 유망을 갖게 하는 마술사와 같은 것을 지적하라. 아무런 잡음도 들을 수 없는 이 「스튜디오」에 들어 앉았노라 하면 모순과 부정과는 타협할 줄 모르는 無我之境에서 한없는 안락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사람이란 하루의 생활에서 自己를 알아 보는 시간과 또한 自己를 잊어 보는 시간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알아 보는 時間은 來日의 生活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잊어 버리는 것은 못할 수 없는 후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음에 가한다.

○ 「아나운서」의 電話는 하루종일 바쁜便에 든다. 한번 본인도 없는 未知의 聲워져들로부터 미묘한 질문의 공격을 이다. 그러나 放送事故後에 뒤따르는 전화의 세력은 정말 있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당관 사람의 후심이 아니라 그저 있으면 안된다고 당부해야만 하였다. 그요한 호수의 물

하나를 먼저 파문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천류가 通하는 감상이라 해도 부족함이 있으니...

경쾌한 音樂이 「모나」타를 通해서 들려 온다. 작곡자와 연주자들을 알지 않아도 좋다. 그요한 「벨로디」에 오늘날의 汚點을 씻으면 밝은 來日이 또 매력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 열이 높은 창문으로 날선한 켓트기 전대의 우렁찬 북음이 들린다. 弱者에게 勇氣를 불려 이르는 偉大한 소리 같기만하다. 기제는 太陽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의 찬란한 은빛날개를 자랑하며 밀리밀리 點體로 사라져 갔다.

人類의 文明은 그 自身이 늘날 정도로 이렇게 자꾸만 무한대로 발전해

하늘로 달리는 그리움

어느 때부터인지 그 時節은 잘 記憶되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인가에 지금과 저모던이 두한 옛날일 같이 아슬한少女의 憧憬이 있었을 것이다. 「나도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았으면! 날나라 별나라도 가보고!」

童話같은 이런 꿈을 그리며 感傷에 젖던 時節이 아닐까? 날나라는 情戀의 太陽이 웃고 지고 붉게 물들이는 노

가고 있는 것인가? 이번만의 느낌은 아니지만 보면 분수룩 신비스럽고 생각할수록 물리져 오는 의문만 쌓여진다. 더욱이今年 들어서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의 기원으로 발사되어 目的한 대로 成功했고 머지않아 달나라의 여행도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꿈같은 소리고 神의 손씨 같지만 하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길 없었을 때 영원의 빛으로만 알고 처다봤을 듯은랄! 이제 그곳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간에도 이 세계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을 것인가? 땅과 공진과 하늘을 정복한人類는 이제 重大한 하나를 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神과 人類사이의 비밀이 될 것이라.

(筆者: H.L.K.A 아나운서)

차 賢 緒

울지는 華麗한 하늘을 無數히 반짝이는 별들이 傳說속의 浪漫을 불려 일으켜 주는 밤하늘을, 그리고 그요한 사랑을 품고 조용히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無邊廣大한 하늘을 날아 보고 싶어야 하면 그 時節 내겐 이 꿈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가장 近似하게 있다 할 수 있는 職場을 갖게 되어 半꿈은() 어릴 때 꿈을 이루어 본 것이 難難살이 「大邱」에서이다.

말것은 다른곳에는 하나도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의 民族이 그들이 태어난 祖國에 對한 愛國心에 依하여 各自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精神에 만이 있을 뿐이다.」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장차 내가 문필 내나라 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懇切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國家至上 民族至上 人種差別 背恩忘德 鎖國主義 排他主義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事大根性에 사로잡혀 民族의 固有한 精神을 忘却한 奴隸의 精神을 벗어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自負心과 自尊心과 自信力을 가지고 내나라 내 民族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決코 特定한 個人이나 政黨을 爲한 軍人이 아니고 나라와 種族을 위한 軍人이 아니고 나라와 種族을 위한 軍人의 自由和平을 위하여 우리 軍人은 싸우고 또 「피」 흘린다는 것입니다.

○ 옛제로 여기서 우리는 勇氣의 根源과 正義의 標準과 愛國心의 尺度가 要請됩니다. 相對的인 世界에서 勇氣와 正義와 愛國心의 標準은 恒常 不變하다. 뒤질 것이다. 그러나 어제의 勇氣는 오늘의 蠻勇도 되고 오늘의 正義는 來日의 不正義가 되고 어제의 애국심은 오늘날의 水泡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勇氣는 오늘날의

그러니까 벌써 十餘年前 일이다.

詩人 李某氏 兒童文學家 方某氏의 연
중으로 空軍에서 發刊하는 雜誌「코메
트」를 함께 편집하였다. 그 때만 해도
就職하기란 별 것이 아니다. 어떤 때 모
두를 過去에 하면 職業관 동떨어진 것
한 일거리도 없어서 못하고 서순차 앞
던 그 무렵에 그래도 내가 하면 일을
더구나 어떤 마음에 그러보면 하늘과
直接關係되는 空軍에서 일하게 된 것
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은 안개
진 父母님기 않을 팔을 두어 뒀던 옷
가지와 혼웃기를 팔아 살림살던 내게
는 所重히 지니고 내려온 작은 財産
이 측나저않게 되었다는 그것 못지않
게 기뻐한 일이었다. 진정 여러가지
로 고마웠던 본들이요! 情들게한 고
장「大邱」이다.

○ ○

그 時節에 떠오르는 몇몇 「파이롯트」
트」들이 있다. 纖細한 생김새의 손과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늘신한 體
軀와 함께 유난히 印象깊던 大領 그
는 많은 才能에다 「피아노」도 잘 탄다
는 소문난 人氣「파이롯트」였다. 그 때

蠻勇이 되고 오늘날의 自由世界 資
本主義經濟는 共產世界에서 不正
義로 되고 지난날 太平洋戰爭에
음반진 日本青年들의 애국심은 오
늘에와서 人類의 叛逆者로 烙印
을 찍히고 말았읍니다. 그러기 때
문에 이러한 時間과 空間에 따라
變하는 世界에서 永久不變의 진
리가 아쉽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런 相對的 世界에서 찾을 수 없읍
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서인지 그는 操縱士라기 보단 더 藝
術家다운 風貌였다. 또 六, 二五戰亂
때 기막힌 功勳을 세웠다는 0大尉等
그들은 當時 人氣沸騰하던 「파이롯트」
들이요, 귀에 익은 하늘의 勇士들이
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 어느 軍
隊나 다 그런가? 이들은 親切한 空
軍은 되도록 多情하다. 親切하다. 「제
틀」하고 知約이다. 그들 操縱士들하
고 들어오는 옷차림 또한
印象적이다. 은 몸에 「포
넛」과 일하는 「오귀스」엔
나타나면 방안은 금새 活
氣를 띄워 젊음이 滄溘한다. 情장은
政訓監室將校들과 이야기물 주고 받
으며 한바탕 떠돌고 가도라던 그 원찬
점은 羈氣와 多情한 餘韻의 家族들과
편어저 의로워 이어가던 避難살이의
孤寂함이 한결 가슴에 스며들고 하였
던 것이다. 지금은 없는 세계고 늘었
하던 男同生이랑, 조용하고 多情하던
오패를 생각하며, 그들 「파이롯트」의
家族들을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그

기서 必然的으로 超越的 世界 卽
神의 世界를 그리워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 世界 그 王國과의 交
際하는 모습을 우리는 信仰이라
고 表現해도 좋을리라고 生覺합
니다. 義와 善과 사랑의 生覺합
이 오르내리는 生의 아름다움이
곧 信仰生活이라고 일컬을 수 있
겠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恐怖
가 깃들지 못합니다. 不義가 恒常
正義앞에서 屈服되기 마련입니

들은 나를 잊었겠지만 나는 그들의
모습과 이름, 주고받던 弄談들이, 귀
에 익어 오던 歲月이, 호른 지음도 그
리 위치는 追憶의 한트막이다.
어린 女同生과 네살배이 큰 조카를
데리고 내려갔던 나의 避難살이「호랑
이 담배피었다」는 옛날이야기를 대신
하여 空軍의 가지가지 「뉴스」로 자랑
가를 삼아주던 그 어린 조카도 이전
「中三」의 큰 머슴아로 자랐다. 그는
요즘 부쩍 하늘에의 關心이 부풀어
가고 있다.

「아름다! 난 이따에 軍隊가면 「파
이롯트」가 될래. 일만나 멋져! 색색
이들 타던 참 신날거야!」
이런 말을 바라는 少年의 눈은 未
知의 世界를 그리며 조롱조롱 빛난다.
불현듯 하늘을 쳐다 본다. 새파란 하
늘엔 라이산 飛行雲을 그리며 「제트」
엔가 날고 있다. 우렁찬 爆音을 울
리며 오늘날도 來日도 아니 永遠히 하
늘은 어린 少年들의 그리운 꿈을 저
니고 있을 것이다.

다. 또 純粹한 마음으로 自己의
民族과 國家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自由가 極端으로 나아
가면 放縱과 無神論에 빠지고 正
義가 極端으로 나가면 獨裁와 恐
怖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이 兩者 곧 自由와 正義를 調
節하는 超越的인 權威가 要請되
는 것입니다. 이 權威는 絕對者
인 「하나님」을 意味하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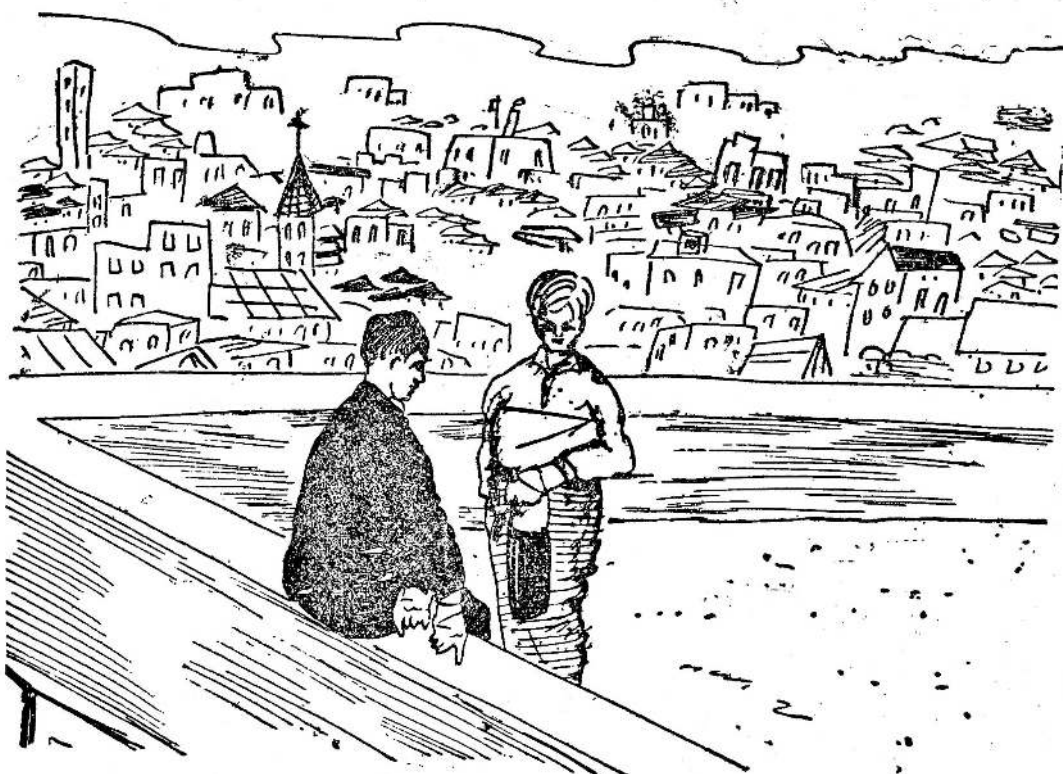
信仰이란 「하나님」의 뜻에 服
從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信仰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
른 人生觀과 世界觀을 주는 것이
입니다. 그러므로 信仰은 우리에게
勇氣와 正義와 애국심을 부풀어
주는 要素가 되는 것입니다. 國家
存亡의 運命을 걸머지고 일어난
五, 一六軍事革命의 主體가 되는
우리 軍인들이야말로 진정한 勇
氣와 正義와 愛國心을 爲해서 이
러한 信仰이 絕對必要한 줄로 믿
는 바입니다.
(筆者: 空軍中領 空本軍牧室長)

(四七面에서)

의 補給은 平靖히 改善되고 戰爭에서
의 커다란 損失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다. 오히려 航空機 生産에 操縱
士의 訓練이 따라가지 못하였을 정도
였다.

비바부트크卿은 實業界에서 側近者
를 選定하여 新設된 航空機生産省에
들어갔다. 그중에서도 主要한 人物은
포-드自動車會社의 總支配人 파트릿
크. 해네지와 航空技師 트레바. 웨스
트부트크였다.

웨스트부트크는 天才의인 才能을 가
진 사람이었는데 航空機 生産省의 修
理部門은 그가 만든 것이며 英國戰爭
期間中 空軍當局에 引渡된 戰術機가
운데 25%는 웨스트부트크가 再
生修理한 것이었다.
(次號 계속)



<小 說>

푸른 하늘처럼

俞 湖

미쓰·闊은 서울 장안에서도 맵
씨있는 오락잡지를 내기로 유명한
XX사의 편집부 기자다.

여기자라고 하면 체격이 좌달막
하고, 성격도 거세고, 도무지 불
일맛이 없는 것으로 알기 쉬운 사
람이 많지만, 천만의 말씀—미
쓰·闊은 어디를 가거나 그 주위
십메타즘이 환해질만큼 미인인데
다가, 성격도 상냥스럽고 말씨에
도 애교가 넘쳐흘러서 아직 미쓰
인채로 잡지사 한 귀퉁이에 얹혀
두기엔 아깝다 못해 분할 정도다.
미쓰·闊이 앉아 있는 자리에
는 남자가자가 세사람 있다. 편
집부장은 저만치 따로 앉아있으
니까 그것은 별문제지만 앞에 있
는 그 세사람이 문제다.

한사람은 성이 白가요, 또한 사
람은 柳가요, 남어지 한사람은 金
가다.

미쓰·闊이 마쓰인데 비해서 그
들 세사람은 모두가 총각이 아니
다. 어느새 결혼을 했는지는 모

르되 짐에는 애들이 두서넛은 배
물거리는 모양이다.

미스터·白이란 친구는 저름만
잘했다라면 여섯자는 훨씬 넘었
으리만큼 키가 밀대처럼 큰데다
가 꼬치 꼬치 말라서, 절어다니
는 것을 보면 금방 허리가 두동
장이 날 것처럼 휘청거린다. 직
업이 만화가(漫畵家)라서 그런지
무척 심정다. 그리고 술이 고래
다.

그는 전부터 집에다가 전화(電
話)를 놓지 못하는 것을 늘상 한
으로 생각했다.

「적어두 문화인 집에 전화하
나쯤은 있어야 행세를 하지...」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도대
체 문화인이란게 어떤 것이고, 또
한 전화를 봐야만 문화인이 되는
것인지, 미쓰·闊은 그 소리를 들
을 때마다 미스터·白을 얼간망
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어떻
게 했는지는 몰라도 딱하니 전화

를 노았다.

어느날 아침에 출근을 하더니
입이 해벌어져서 하는 말이
「해해해 우리 집에 전화 왔
어...」

하고는 한참동안 입을 다물출물
왔다.

아마도 전화를 노면 일이 벌어
지는 모양인가.

그리고 나서는 하루종일 집에
다가 전화를 걸 일이라도 생기지
않나 해서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장자가 날씨가 꾸물거리기 시작
했다.

미스터·白은 무슨 중대한 일이
라도 생긴듯이 얼른 수화기를 집
어 들었다. 다이알을 돌리고 나
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여보세요요! 나야! 나!
이봐, 비가 올 모양인데 장두대
덜어요! 장두대...」

전화 개롱 첫마디가 이것이였
다. 미쓰·闊을 비롯해서 모두들
웃음통이 그대로 있을리 만무했
다.

또 한번은 서울에 뇌염이 돌기
시작한다는 신문기사가 나면날이
었다. 석간신문을 퍼들자 미스터·
白은 또 큰 일이나 난듯이 집에다
가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뇌염이 돈다는데 애들 나가지 못
하게 조심해요. 알었지?」

이런엔 모두들 웃기는 커녕

「저 열장이...」
하고 눈총을 질풍시켰다. 이럴때
가만히나 있었음 좋겠는데 미스
터·白은,

「해해해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무척 편리해...」

하고 턱을 쓰우 문대는 그 표정
을 바라다 보며 미쓰·闊은 속으
로 중얼거렸다.

「에그... 이 밤통아...」
그다음—

미스터·柳라는 친구는 키가 다
섯자에 대단히 부축할만한 키에,
이역시 술통인데, 키가 작은 타
도 아니겠지만 웬일인지 부인한
데는 꼭 짝 못하는 모양이었다. 모
양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러했다.

절에는 조그마한 아들 형제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월급
날이나 잔돈뿐까나 생기는 나날
엔 두말없이 과자점으로 달려가
서 과자와 사탕을 사거나, 아니면
부인에게 줄 화장품을 사기가 일
수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
루는 미쓰·闊이 아래층으로 나
려가다가 문득 들으니까 어디선
가 아야야... 하는 남자의 비명아
닌 비명이 들려와서 주춤하고 귀
를 기울였다.

아랫층으로 내려가는데는 번방
이 하나 있는데 아야야 하는 소
리는 분명히 거기서 들려왔다.

「어쩐일이죠? 어떻게 된 일
이죠?」

이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미
쓰·闊은 여성으로서의 가질파 태
도가 아니라 고생자를 하면서도,
강금중과 호기심에 끌려 문틀새
로 드려다보았다.

그것은 미스터·柳하고 그의 부
인이었다.

「어디서 주무셨죠? 당최 안하
면 외박(外泊)을 인젠 다하구,
당신 이리키야요!」

부인의 손가락이 미스터·柳의
코앞에서 곤두 섰다.

「아, 떠들지 좀 말어요!」
「떠들지 않을테니 대답을 해
요...」

「아, 어젠 그만 술을 먹다가 시
간을 놓쳐서... 그래서...」

「놓쳐서...? 그래서...?」
부인이 똑같이 되물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여관에서서
지워야.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구 술을 퍼마시
구, 생돈 버리구 여관에서서 잔
단 말예요?」

「잘못했어... 잘못했으니 인제
그만 돌아가우...」
「그말을 누가 믿어요...」
「정말야! 뱀해...」
「다시는 안 그러죠?」
「그럼... 그럼... 그럼...」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면 그런

소리가 연거퍼 나온단 말인가.
그러나 부인은 그걸로 부축한 모
양이었다.

「정말 다시 그럼...」
「알죠? 다시 그럼 알죠?」
「아야! 아야!」

「안그런다구 약속해요, 안그런
다구...」

「그때, 그때! 그때!」
아하, 그리고 보니까 아까 아
야야 소리도 그 때문이었구나.
미쓰·闊은 하도 무안해서 얼른
자리를 떠나 버렸다.

「어쩜 남자가 그 모양일까?」
미쓰·闊은 이래서 미스터·柳
에게도 실망을 했다.

또 한 사람, 미스터·금이란 남
자의 경우다.

이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자세한 몰라도 어찌
나 살이 찰는지 페룩 페룩거리고
다니는 품이, 흙사 물소(水牛)와
같다. 조금만 어딜 다녀와도 식
석거리며 당장에 숨이 꺼질듯이
눈앞은 멀롱거린다. 그래서 술은
한잔도 못한다.

술을 못하는 대신에 이 사람에
게는 이상한 취미가 있다. 취미
라기보다 그것은 일종의 신념(信
念)에 속한다.

다름아니라 그는 외상(外上)이
라면 미치다 시피 사드린다.

요새는 하다 못해 구두약까지 지장으로 들고 와서는 월부(月賦)로 사라는 판이니까, 그밖의 것은 얼마던지 있다.

회사에 잘오는 월부장사로는 약장사, 여름에는 남방사쓰장사, 두산 커피니 <파인애플>가루 장사, 양말장사, 칫솔, 비누장사, 어느 때는 어디서 누가 라디오를 월부로 샀다고 하니까 미스터·金은 하느일을 제쳐 놓고는 뛰어 갔다 오더니, 처음에 만환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다고 누털대기까지 했다.

(詩)

太白峻嶺

李仁石

침녕불과 가지덤불에 얽혀
짐승이나 기어넘는 험한 峻嶺
깊은 골자구니와 울창한 숲을 안고
하늘 높이 솟은 太白山脈……

험준한 이곳 산허리에서
바위를 깨고 산을 뚫고
큰 길을 만든 젊은 이들이 있다

월급은 작고, 생활이 어려워나
가 월부도 좋고 외상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도 문제지 외상이라면 소도 잘아 먹는다는 격으로 미칠듯이 사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열간에 속할 문제인지 모른다.

그렇게 정신없이 외상은 사고
보니까 월급날은 야단이다.
어디서 왔읍니다. 어디서 왔읍니다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계산서를 내놓고는 성화다. 그렇게 되면 미스터·金은 아예 책상에 붙어 있지도 않게 되고, 다 쳐내며

월급이 날을매쯤 하면 어디선가 전화를 걸고는
「미안하지만 나 요양 다방에 있으니 내 월급 좀 몰래 타가지구 나와요」

하고 미쓰·関에게 애걸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한번은 그렇게 하는 기색을 알아차린 박정배 마나님이 미쓰·関의 뒤를 밟아서는 다방까지 따라와서 한바탕 들었다 놓는 바람에 미스터·金은 혼이 난일이 있었다. 그래도 외상에 맞을 드린 그의 취미는 변함이 없었다.

이래저래 미쓰·関은 결혼한 세남자에게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있는 판에 바로 일주일 전,
새 바람을 이르키듯이 흥연히 나타난 신입사원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진짜 미스터인 黄이다.

오죽도 아니오 오죽도 아닌 알맞은 키에 어깨가 딱 바라지고 눈이 부러부러한게 첫인상이 그럴 듯했다. 주간(主幹)이 미스터·黄의 소개를 하자, 미쓰·関은 몰래 서무과로 내려 가서 그의 이력서를 살짝 들추어 보았다.

이러서 한 줄에 공문(空單) 중위로 제대했다는 데무를 보고는 흥연히 가슴이 들떠했다.

그날부터 미쓰·関은 비록 부서는 다를지라도 미스터·黄을 매일 보게 되는 것이 한 없이 즐거웠다. 자연히 출근시간도 빨라지

고 퇴근시간도 늦어졌다.
미스터·黄이 남보다 빨리 나오
고, 날보다 늦게 나가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미스터·黄이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여기에도 관심 이 없을 수 없어서 하루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보았더니 그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요, 골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나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오, 난간에 손을 댄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인기척에 놀란 그는 돌아다 보더니 미쓰·関이 서 있으니 까 그저 징계처사의 웃었다.

「매일 여길 올라 오시나요?」
「네……」

약속한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벤취>에 앉았다.

「올라와서 무엇을 하시나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엔 무엇이 있나요?」

「구름과 바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좀더 다른 말이 나올 줄 기다렸던 미쓰·関은 뒤라고 말들이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찍이 都市의 뒷골목에서
장패와 양아치란 이름으로
惡의 씨를 뿌리던 人生의 落伍者를
그러나 지금은 革命的 隊列에 서서
國土를 開發하는구나

여덟시간 노동이 끝나면

〈짜리풀〉 개울가에 기다리는

송진 냄새 향기로운 깨끗한 宿所를

지난 날엔 트집이 버릇이요

싸움이 日課였건만

지금은 모두가 형님이요 동생

다정하게 지내며

서로 도우는 風俗에 산다

거봐서, 兄弟가 따루 있다 하지마라
서로도 우며 정답게 지내면 형제이리
거봐서, 파지를 허물하지 마라
뒤라서 허물이 없을진가

절망 속에 살던 지난 날은

이미 없는 것

밝은 태양 아래 넘실한 모습들이다

「공군에 계셨으니까 하늘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세요?」
「...」

이번에는 미스터·黃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을 작지켜어 뒤로 기대더니 시선은 역시 하늘로 흘러갔다.

「공군은 참 멋 있었어요. 제트기를 타구 저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라본다는 게 얼마나 상쾌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대답하는 품이 어딘가 모르게 서늘프게 느껴져서 미쓰·闊은 조용히 그를 보았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나부죠...」

미스터·黃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바로 지금 눈앞에 파아랑게 펼쳐져 있는 하늘에게 대해서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나두 저 하늘을 마음대로 날라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은이 나쁠니다. 그래서 조종사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그래도 하늘을 가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언젠가는 내손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저 하늘을 날라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끝내 나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제대를 했

습니다.」

미쓰·闊은 꼼짝도 하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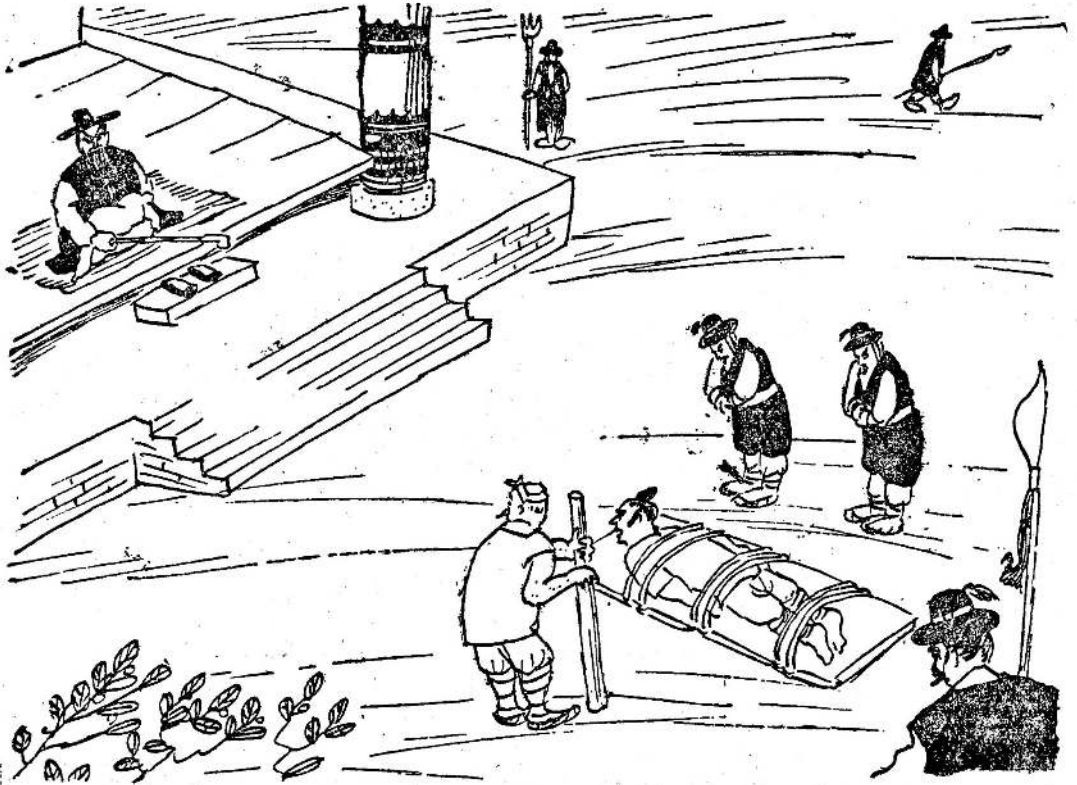
다.

「그러나 공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한대의 제트기가 나르게 되는 때는 얼마나 많은만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가를 알았읍니다. 통신행도 있어야 하고 정비병도 있어야 하고... 그 밖에도 한대의 제트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을 나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묵묵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각지 긴 손을 풀고 미쓰·闊을 바라다 보았다.
「그래두 역시 저 하늘에 대한 꿈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군요. 이전 제대를 했구, 직장에서도 일을 하게 된 몸이니까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두 별수는 없겠읍니다만, 공군에서도 지상(地上) 근무를 한 것처럼 새로운 직장을 얻은 지금의 지상근무역시 나는 훌륭하게 해나가야 되겠읍니다.」

보며,
열번 미스터·黃의 눈을 마주
「훌륭하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미쓰·闊은 자꾸 이렇게 대답하려고 애를 썼다.



〈歷史小說〉

抗拒하는 사람들

朴 贊 興

고종(高宗) 三十一年 갑오(甲午).

이조말(李朝末) 나라가 한창 어지러울때의 일이다.

청병(淸兵)을 불러들여 대원군(大院君)을 척국으로 잡아 가제한 민비일파(閔妃一派)의 사대당(事大黨) 정부는 도리어 외侮(外侮)를 받아 나라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은 도탄속 진구렁에 빠져게 하였다.

백성은 그들의 당파싸움속에서 굶주리고 얼벗고 쓰러지고 괴로운 생활을 계속한다. 사대당(事大黨)은 독립당(獨立黨)을 죽이고 독립당은 사대당을 죽인다. 피투성이의 수라장이었다.

여기애나 흉년은 해마다 들었 못된 병들은 그대로 유행했다.

이 어지러운 정국(政局)을 틀타서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피와 기름을 쭉쭉 소리가 나도록 빨아 마신다.

궁중안팎에 있는 삼강역시 돈이 필요했다. 열랑주머니에 싯용 있는 어음(於音)이 없음을 탄식한다.

쌀값, 나무값, 필유값이 그대로 뛰어들라 잔다.

나날이 뛰고 아침과 저녁이 달랐다.

한달전엔 태고적이요 어제가 옛날이었다.

여기다 청병(淸兵)의 행패는 나날이 높아 갔다.

백성들은 정부를 원망했다. 사대당은 민비일파를 원망했다.

마침내 민중의 분노는 화산의 분화구(火山噴火口)처럼 터지고 만다.

전라도 고부군수(古阜郡守)에

조병감(趙秉甲)이란 자가 있었다.

이 자는 현임(現任) 전라 관찰

사(全羅觀察使) 조병호(趙秉鎬)

의 가까운 일가의 한 사람이었다.

성적이 비부하고 욕심이 많아

서 탐관오리중에도 대표적 인물인

것이다.

조병감이 일가 덕에 고부군수

를 한자리 얻어 가지고 온 뒤에

정사 다스리는 것은 빗췌 다섯째

가 되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하는 것

이 본업이 되었다.

고부 골안에는 비백이나 하는

부자라 일하는 사람이 칠팔명이나

있었다.

조병감은 부자들의 재물을 모

조리 빗어 드릴 생각이었다.

힘 안 드리고 빗는 도둑질!

생 더 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써

워서 늙은이 젊은이 제집 해아리

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버칠을 가

두고 다시 형틀에 맨 뒤에 호를을

하여 수죄를 날린다.

『네 이름! 네가 네 죄상을 모

르느냐.』

이렇게 해서 불기살이 해여지

도록 패려서 돈을 만량 이만량을

바치게 한다.

아비와 어머니에게 불효 노릇을 했

다고 빗아 들이고 일가 형제가 반

해서 빗아 들이였다. 고부골 안엔 만석보(萬石淤)라
는 큰 보가 있었다. 동진강(東津江) 어구에 보를 대
어 태인현(泰仁顯)까지 이 보물
을 대어 쓰면 만석이 난다 해서 백
성들이 만석보라 부른다.
작인들이 이 보물을 쓰게 되면
만드시 수세(水稅)를 받게 된다.
조병감이 고부군수로 온 뒤에
이 수세를 비적 을러 놓았다.
백성들이 등장을 들어 감해 주
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감해
주는 것은 둘째요 조병감이 도입
한 그 이름해 멸정한 만석보를 그
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새 보물
दान의 강제로 수천명의 농군을
몰아 부역으로 보를 쌓고 품삯은
등전 한 번도 주지를 않았다.
새 보가 완성 되자 조병감은 호
방을 다리고 수세를 도두는 데 상
담(上贖)은 매 마지기에 두말 하
담(下贖)은 한 마지기에 한말씩
더 받아서 가뭇한 수세 무려 八백
여석은 그대로 조병감의 무구명
으로 넘어가 버렸다.
물론(物論)은 고부일군에 높아
졌다.
『참 빌어먹을 일 다 보았지, 오
을 음에 들이 갔다가 이방을 만
나서 자제한 소문을 들었네, 이
번 수세가 뭇해 받은 것이 놀라
지 않게 八백여석이라네.』
『무어라고 말해보소서.』

『허허 참 요즘의 원님 계교가

비상하단 말야, 백성의 등골 빨

아 먹는 때는 제일이거든, 요즘

두고 봐라!』

서당(書堂)방에서 글 읽다 아

이들이 다 돌아간 뒤에 마실꾼들

이 모여 들어서 새끼를 꼬며 이

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훈장(訓長)님! 어찌하던 좋

겠음니까? 이거 참 나무일 보

듯할게 아니올시다. 이리다가

는 전라도 고부 백성들은 모조

리 저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훈

장님 밭담 말씀 하시던 때는 언

제오는 것입니까?』

아랫목에 앉아서 동리사람들의

이야기 하는 것을 한 귀로 들으며

고요히 책만 보고 앉았던 이 집주

인 글방선생을 바라 본다.

글방선생은 책을 놓고 일말을

들었다.

셋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이 이

내 눈웃음을 먹는다.

나이는 사십안팠 몸집은 조그

마하다.

『때는 언제 왔네, 내나 자네들

이 기다리면 때는 언제 왔네.』

훈장은 말을 마치자 책을 던지고

또 한번 빙긋이 웃으며 입을 꼭

다문다.
『때가 왔어요.』
훈장의 얼굴엔 금방 광명이
보이는 듯 즐거운 표정이 선연히
나타난다.

『왔네 열려 말게!』

이렇게 말하는 서당 훈장은 전

봉준(全瓚準)이란 사람이었다.

자(字)는 명숙(明淑)이요 별명

은 녹두(綠豆)라고 부른다.

하도 몸집이 작고 행동이 경첩

한 때문에 사람들은 녹두 녹두하

고 불렀다.

그의 성명서자는 몰라도 전누

두라던 전라도 일판에서 도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창형(全彰赫)

이란 사람으로 전임전라 감사의

탐탁한 행동을 탄핵하고 만항하

다가 판가에 잡혀 전라 감영에서

장살(杖殺)이 된 사람이었다.

전봉준은 탐관오리와 매대로 불

공대천지 원수였다.

그는 여러해 전부동학(東學)

에 침착하여 도주(道主) 최시형(崔

時亨)의 명을 받아 전라도 고부

의 절주(接主)가 된 것이다.

그 이를날 아침 전봉준은 동문

사람 오십여명을 거느리고 장두

가 된 뒤에 고부읍으로 들어가서

군수 조병감을 찾았다.

전봉준은 원년의 전방전 거드

림 때문에 해가 반나절이나 되어

서 만나 보게 되었다.

전봉준이 앞잡이 서고 다음의
손화중(孫化中), 정익서(鄭益瑞)
두 사람이 뒤를 따랐다.
조병감은 동천에 앉아서 들어
오는 전봉준의 체소한 몸집을 하

라보자 우선 한층 떠드려야 할
아 보았다.

『무엇이 그리 억울하여서 백성
을 충동 시켜서 등장을 들었는
고?』

『소지에 사되었거니와 만석보
수제가 불한것 八백여석은 도
루돌려 보내 주시옵소서.』

『수세를 돌려 보내 주라. 그것
이 무슨 소린가. 나라에 파친 세
금을 어떻게 돌려 보낸단 말인가,
보아하니 글자나 펜 사람
같은데 무지막한 사람이면 모
르되 그만 요량은 있을 사람이
이제 무슨 해고인고?』

『아니올시다 조금도 해고가 아
니올시다. 만일 만석보세 八백
여석을 아니 돌려 주시면 고부
태인 백성은 다 굶어 죽게 됩
니다.』

『나는 돌려 보낼 수 없어, 우
선 세보를 막는데 막대한 비용
이 들었구 또 이미 상당장부에
부친이 상 원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네.』

『세보 대는 데 무슨 비용이 들
었습니까. 우리 백성들의 부어
으로 된 것이지요. 공연히 이리
저리 칭탁하시고 도루 내어 줌
시오. 안 내어 주시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 납니다. 八백여석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 을사다.
피와 기름을 너무 자시다가는
공연히 큰 불행들을 당하리라.』

전봉준은 대답하게 들 어 선다.
조병장의 얼굴은 별안간 누르
라 푸르라 하여 지며 뻔뻔 하였다.

『네 이름! 지금 나를 위협 하
는 셤이나, 봉변을 당한다?
천하에 추일놈, 네 이름 판정
발악을 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
느냐?』

『어디 발악입니까? 순순히 여
쫓는 것일쎄.』

『네 이리 오나라!』
소리가 떨어지자 군노 사령을
이 우르루 물켜 들었다.

『이놈을 우에 가두어라!』
원님의 호통은 추상같이 떨어
진다.

전봉준은 군노 사령들에게 꼭두
잡이가 되어 우에 가친 몸이 되
었다.

전봉준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
색이 없이 태연하게 우속으로 들
어 간다.

머칠이 지난 뒤 엄포로 곤장으
심도를 때려서 전봉준을 삼문밖
으로 내 쫓아 버렸다.

그러나 봉준은 곤장잡으로 그
뜻을 알면 사람이 아니었다.

맞았던 장두이 조금 풀리니 두
번재 농민 칠십명을 거느리고 다
시 군수를 찾았다.

봉준의 일가부처와 동리 사람들
은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봉준은 코웃음을 쳤다. 드
디어 봉준은 두번재 고향을 삼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병장이 사령에게 전봉준이 다
시 왔다는 소리를 듣자 불쾌하고
마음이 차차 약해진다.

보통사람 같으면 곤장 몇개에
우중생활 머칠이면 고개를 숙이
는데 이번에는 칠십명씩이나 거
느리고 들어 왔다하니 마음이 저
우히 껴름한 생각이 아니 날 수 없
었다.

만나 보자니 귀찮고 죄를 주자
니 또 곤장 몇개를 때리는 것 뿐
이었다.

보아하니 전봉준은 또다시 곤
장 몇개에 수그리칠 인물은 아니
었다.

이 편에서 차라리 무저항주의를
차리는데 옳은상 싶었다.

『얘, 그놈이 도시 머칠놈이다
전번에도 곤장을 맞고 나간놈
이 또다시 등쌀을 내이니 어디
성난놈이라 볼수 있느냐 소지
를 받지 말고 덜미잡이를 해서
그놈을 삼문밖으로 내 쫓아라!』

이렇게 본부를 내려 버린다.
봉준은 다짜 고짜로 군노 사령
에게 덜미잡이를 당하고 삼문밖
으로 내 쫓긴다.

이것이 문화구가 되어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잔뜩 굶기고 굶기었던 고품은
터져 나오고 응어리마져 쭈 빠져

고 말았다.
분함을 참지 못하는 전봉준은
삼문안 하마비(下馬碑)위에 버석
을라 선다.

『여러분, 나는 태인동팔전누두
요. 월전에 새로 막은 만석보
수세 八백여석을 고부와 태인
두골의 농민에게 내달라고 원
정을 들었다가 곤장 五십개를
맞고 내어 쫓겼던 바로 그 전누
두란 사람이오.』

『동학정주(接主) 전누두는 동학
당에게 명령한다. 시자를 지체
말고 무기를 갖추어 삼문 앞으
로 내뻐하라!』

전누두의 엄숙한 명령이 떨어
지자 군중들의 얼굴빛은 비관한
노랑게 질리고 사람물결이 확 갈
라져 흩어진다.

어느 틈에 모여 들었는지 환수전
을 짙은 짙은 동인 사람들이 쭈
쭈 내달았다.

수효가 어마어마했다. 천명인
지 만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행동을 질서 정연하게 하라!
군수 조병장이 하옥방관술을 모
조리 묶고 군기고(軍器庫)를 깨
뜨려 병기를 압수하고 군수의
내아(內衙)에 들어가 우리의 피
와 기름인 八백여석의 곡식을
빼앗으라!』

이때 조병장은 과사내아 다락
속에 숨었다가 와 소리가 일어
나자 형세가 점점 불라함을 직감

하자 다락에서 내외와의 판을 다 벗어 버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칩에게 무명·웃을 달래서 일은 뒤 립수룩한 농민의 행색을 채린채 맨상투 맨발로 뒷문을 열고 천주 감영으로 달아나 버렸다.

천봉준은 심어일 동안 고잔문을 열어서 농민에게 八백여석의 곡식을 다려쳐 주었다.

그는 마침내 봉건제도(封建制度)를 깨뜨리기를 결심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천봉준은 태인, 금구,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무주, 용담, 진안, 전주, 금산, 고산, 秦仁, 金溝, 扶安, 高敞, 任實, 淳昌, 南原, 長水, 茂朱, 龍潭, 鎭安, 全州, 錦山, 高山) 십여 고을 천주에게 통문을 물러 크게 응원해 주기를 청탁하니 열네골 동학들은 일제히 구름도 이뚱고부로 향하고 오니 그 수효는 만명이 넘었다.

폐는 고종 삼십一年(高宗) 갑오(甲午) 정월 초 일해날이었다.

이와 호응하여 천봉준의 휘하가 되기를 원하고 동학 진문에 농민이 천명을 거느리고 들어온 일 혼잡된 이철지란 함은이가 있으니 그는 내대로 내려오는 종의 자식이었다.

동학이 벌벌떨며 여겨져서 일어나 양반 계급을 두드러 부시는 것을 보자 천년 내려오던 종의 울

분이 그대로 북바쳐 타졌다.

그 노인의 상전은 무장(茂長)에 사는 홍가(洪家)였다.

수백년 뿌리 깊게 사는 혁혁한 양반으로 특히 신과와 고려 때는 큰 벼슬한 이가 많았다고 큰대짓을 하여 양반 자세를 하는 열치기 양반의 하나이다.

그러나 내대로 가세가 부유하고 전답이 많으므로 무장에서 홍가네 앞에서 굶실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홍가의 집은 종이 많은 종에 더 우기 내대로 내려 오는 씨종들이 많았다.

씨종이란 제집종이 비부쟁이와 혼인을 하여 딸을 나면 상전에게 바쳐서 또 다시 종이 되게 하고 사내를 나면 장성한 뒤에 제집을 얻어서 만 살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의 자식은 언제든지 종의 자식이 지별 도리가 없었다.

내대손손이 종년을 얻어서 친인의 대접을 받아 그들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악독한 봉건제도의 하나이다.

이참지도 홍가의 종의 자식의 한 사람으로 사내인 까닭에 홍가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나 역시 홍가를 상전대접하였다.

그러나 종의 자식이 될 기막힌 실음은 하늘 끝까지 사도쳐 있

었다.

하나 구법의 상전이 종을 때려 죽인다 하여도 살안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든차 동학이 터지는 것을 보자 이철지는 비로써 천년 내려오던 종의 신세를 한번 씻어 버릴 때라 생각했다.

그는 결지(結志)들을 불러 놓고 밤이 깊도록 의론한 뒤에 드디어 거자할 것을 결정하고 자기와 운명이 같은 종의 종속을 찾아 다녔다.

원래 이철지는 나이가 칠십이 세 된 종의 결지의 장로인뿐 아니라 신수와 풍체가 좋고 어렸을 때 홍가네 집 도련님 글배우는 글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종의 결지 속에서 타성이란도 그의 명령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날자를 기약하여 산중에서 모이게 하니 그 수효는 백여명이 넘었다.

이참지는 먼저 동동이 하나씩을 잡아 들게 하고, 炬(炬) 십여 무음을 따로이 묶게 하고 밤들기를 기다려 홍가네 집 사는 촌으로 내려왔다.

이때 홍가네 집은 유심박은 함은 홍가와 사십대의 종년홍가와 이십대의 젊은 홍가와 열일곱살 먹은 소년홍가 이렇게 삼대사부가 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조손이 정경으로 천년 들을 갈아들이는 어지러운 집안이기도 하다.

함은 참 젊은 참의 집들은 큰 집을 가운데로 두고 마치 바둑처럼 벌려져 있었다.

이참지는 자정이 훨씬 넘은 후에 백여명의 종의 결지를 불러 홍가네 대소가 천년들의 집을 에워 싸 놓고 그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들의 서로 서로 건너다 보는 눈과 눈은 투지가 말만 하다.

이참지는 호자를 한번 길게 뽑아 부니 거브스레한 동리 안에서 는 개 짖는 소리가 쿵쿵 두어 번 들리고 홍가네 큰집 비향 폐는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하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나타난다. 그 사람의 그림자는 조심조심 발자취를 주며 가면서 호자 부는 편을 향해 걸어 온다.

『글유이냐?』

함은 이참지의 텅텅한 무소리가 고요한 적막을 깨뜨린다.

『예! 할아버지!』

나이 어린 처녀 제집애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는 어둠속에서 서로 덩석 겨안는다.

다 같은 사람으로 천년을 내려오는 구박맞는 설음이 할아버지와 손녀 함은 어린 빛줄 속의 용서승처 호른다.

『금옥아 그래 지금 흉가는 흉가는 뭘체 침의 집에 있느냐?』

『오늘 원종일 다섯째 침의 집에 파묻혀있어요.』

『말할놈 흉가는것이! 충치 흉가는?』

『아랫말 회진사하고은 종일 술 타령을 하고 다니다가 저녁도 안되고 들체침의 집에 쓸어져있어요.』

『젊은 녀석은?』

『오늘밤은 웬일인지 큰집에서 대타하고 건너방에서 의 좋게 자는군요』

『그리고 아내씨는 어디서 자나?』

『도련님은 사랑방에서 전처럼 자나 봐요』

이침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하고는 금옥의 등을 밀어 보내고 다시 한번 호작을 가만히 본다. 호작소리를 듣자 백여명 총중에서 장정 세명이 나타난다.

『새삼스레 말 얹혀거나와 이거 사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 친년동안 쓰라리고 쓰라리던 원한을 싹분해 보자는 것이다. 개별히 조심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고 이침지는 흉가 사부자가 있는 곳을 말해준다. 『지금 흉가는 흉가는 다섯째 침의 집에 있구나 복질이 너는 사

람 열 다섯 다리고 가서 흉가를 결박해서 저 건너 동리 앞에 선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아라. 그리고 들쳐너는 사람 열 다섯을 다리고 충חים은 흉가를 들체침의 집에서 묶어다가 이 앞에 있는 대추나무 가지에 팔가 벗겨서 매달고, 그리고, 봉질이 너는 사람 스무명을 다리고 큰집에 들어가서 열명씩 나누어서 건너방에 본계집과 자고 있는 젊은 녀석을, 다른 열명은 사랑방에서 자고있는 아이니석을 묶어서 이 앞에 있는 왜나무와 김나무에 각각 매달아라. 그리고 왜잡이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내앞에 모이게 해라……』

『조용하던 동리안이 불안한 발판 뒤집혀진다.』

위 아래 집에서 개가 뛰이 터져라 하고 멍멍 짖고 날카로운 제침들의 목소리.

이집 저집에서 도둑이야! 사람 살려! 하고 불랜 비명이 여기 저기서 일어난다.

그러나 소장이면이라 하인들과 비부쟁이들은 모두 다 이침지의 통속이고 그 지휘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내달아 주인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흉가는 흉가와 중년 흉가는 제가 꿈 벌거벗고 제침들을 끼고 자다가 추운 겨울에 알몸동리로 묶여 나오고 젊은 흉가와 아이 흉가는 함겨를 하다가 빌타구니와 눈두

덩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얻어맞은 뒤에 결박을 당하여 강아지 끌려오듯 끌려 나오고 있다. 『왜를 내려라!』

이침지의 흉은 목소리로 말이 떨어지자 이십여속의 뿔뿔은 휘황한 불빛을 뿜어 대낮같이 밝았다.

흉가네 흉고 젊은 사부자는 팔가 벗은 알몸동리로 느티나무 대추나무 왜나무 밤나무 가지에 차례 차례 동그랗게 매달린다.

이때 흉가네 대소가 하고 젊은 제침들은 사내들이 결박되어 붙잡혀 나오는 것을 보자 호곡하며 쫓아나왔다가 이침지가 죽이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듣자

『할아버지 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이침지에게 매달릴듯이 절하는 제침도 있었다.

『훈훈 굽하면 하였으나 중의 자식보고도 할아버지라고 너희년 아갈지에서도 나오느냐……』

그래 인생이 불상해서 죽이지는 않을 때다. 그대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중의 문서를 내오너라.』

흉가는 흉가의 들체침년의 책새게 팔가 벗겨 매추나무에 매달린 흉는 흉가에 게로 바작 잔다.

흉는 다급했다. 『여보, 영감 일론 내 줘시다. 문서 책적이 어디 있소?』

『저 큰집 다락 위 오동나무 능속에 청보재기로 싸서 놓은 것

이 바로 그것이야.』

흉는 흉가는 허공은 소리로 별 별 떨어서 겨우 말 끝을 막는다.

제침들은 벌벌 떨며 허청 거름으로 맞은 편기와 침대문안으로 들어 가더니 이윽고 한 아들이나 되는 청보재기를 안고 나와서 이침지 앞에 놓고 영영우는 것이다. 『몰려라!』

이침지의 우렁찬 목소리로 상진의 제침에게 영을 내린다.

흉는 흉가의 젊은 침이 발발 떨리는 손으로 청보재기를 끌러 놓는다.

장지에 달필로 쓴 중의 문서가 차곡 차곡 개어 있다.

이침지는 왜잡이에게 뿔뿔을 바아 든 뒤에 말없이 중의 문서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문서에 불이 당겼다.

친년 무은 중의 원한이 시뻔건 불길을 이루며 한 줄기 연기가 되어 고요한 새벽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

마지막 한장이 다 타버릴 때 이침지의 두눈에선 소리 없는 피운 눈물이 주물주 흐르고 또 흘러서 뿔뿔 아래 빛난다.

좌우에 응기 중기 모여서 있던 모든 중의 절지도 이침지를 따라 소리 없이 울고 있다.

품고 품었던 친년 무은 원한을 이제야 완전히 풀고 만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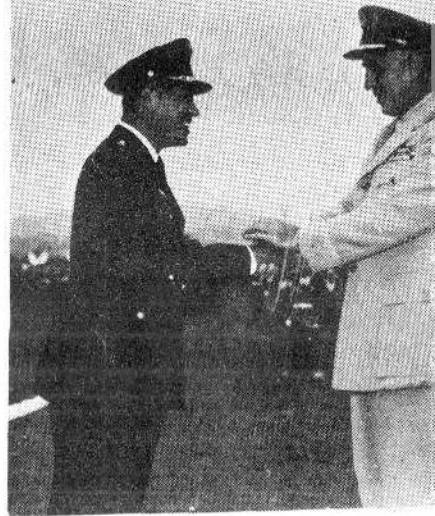


上 金參謀總長의 公式招請으로 自
中國 空軍總司令 陳嘉尚大將
來韓 (9.20~22)
中 英國極東空軍司令官 안토니
알웨이 中將 空本禮訪 (10.17)
下 自由中國 最強籠球팀인 空軍
「風」 농구단 招請競技 (9.20
(10.4)[空軍팀과 기념촬영]



美國太平洋地區 空軍司令官 에넷
오드널 大將이 金總長을 禮訪(10.16)

美國空軍醫務監 O K리-스 少將
韓 (10.13~14) 空本을 禮訪하고
參謀次長의 영접을 받고있다.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 정비 강화한다.
2. 유엔 찬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북하지**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위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나적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사치한 옷차림에 집안살림 무너진다

發 行 處 · 空軍本部 政訓監室
發 行 兼 編 輯 人 · 空軍大領 朱 貞 鎭
印 刷 處 · 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 · 空軍大領 金 石 桓

月刊 **미사일** 6號

공군본부 정훈감실